

누가복음 이야기

평화의 복음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표지설명] 17세기 초에 스페인 출신의 화가 El Greco가 캔버스에 그린 유화. 제목: 성 누가(98x72cm).

A Story of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OSPEL FOR PEAC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3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평화의 복음(눅 2:14, 19:38)

누가(Luke)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 여겨진다. 니케아(터키의 이즈니크) 공의회가 개최된 325년경에 <교회사(III.4)>를 쓴 가이사라의 감독 유세비우스와 405년에 라틴어개역 불가타를 완성시킨 제롬은 누가를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 간주하였다. 누가는 바울의 제2차 그리스 선교 때부터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선교사였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골 4:14)로 불렀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로 불렀다(딤후 4:11).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였다. 이 두 권의 책은 데오빌로로 불린 특정인에게 헌정되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후원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데오빌로(Theophilus)란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Theos’와 친구 혹은 사랑을 뜻하는 ‘Philos’의 합성어으로써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란 뜻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누가로부터 두 권의 책을 헌정 받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대표로 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위한 후원자들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누가는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74세 혹은 84세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터키에 있는 고대도시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 그곳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에 의하면, 그곳은 본래 로마시대에 유명한 용사나 건강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이였으나 비잔틴시대에 이르러 예배처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392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부상하면서 그리스-로마의 신전들이 폐쇄되었고, 그 일부가 기독교에

4 / 누가복음 이야기: 평화의 복음

배당으로 쓰이게 되었다. 유대교 성막과 성전의 입구는 처음부터 동쪽에 있었고, 이 전통을 따라 기독교예배당의 입구도 본래 동쪽에 두었으나 입구가 서쪽에 있었던 이방신전들을 예배당으로 씌으로써 출입구가 서쪽에 놓인 예배당들이 생기게 되었다.

1860년 영국의 고고학자 우드(T. J. Wood)가 고대의 음악당인 오테이온을 발굴하던 중 귀가 길에 이곳에서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와 소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사진 참조) 보게 되었고 누가의 무덤으로 확신하였다. 소는 누가와 누가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소는 평화의 상징이다. 소는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평화로움의 대명사이다. 조선시대의 화가들은 목동이 소를 타고 앉아 피리를 불거나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평화롭게 누워 있는 모습으로 도가적(道歌的)인 이상세계를 표현하곤 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세시대의 유럽화가들 역시 목가적(牧歌的)인 아르카디아를 이상세계로 묘사하였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점에서 누가복음서의 상징성을 소로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인다. 누가는 마가와 마태보다 더 자주 ‘평화,’ ‘화평,’ ‘평강’ 혹은 ‘평안’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한글 단어들은 모두 영어 ‘peace’에 해당된다.

누가신학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의 복음, 평화의 복음, 승리(영광)의 복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음서 2장 14절과 19장 3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실현하

실 내용으로 평화와 영광을 언급하였다. 평화와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누릴 구원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19장 38절에서처럼, 저 천국이 주는 것들이다.

인류의 복음(Gospel for Universe)

누가는 인류의 복음을 강조하였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이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2:32)이시고, 그분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린 그래서 누구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민’이란 더 이상 혈통과 혈연에 좌우되는 특정한 민족을 뜻하지 않고, 혈통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빈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고, 주변부와 중심부에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누가가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자, 어린이,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어린 선교에 집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선교비유가 무려 14개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을 도와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누가는 복음서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피력하였다. 누가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적 희망(Ha-Tikvah)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지 않고, 주변부 이웃들인 열방민족들의 보편적 희망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접근하였다. 따라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방인인 데

오빌로에게 헌정하였고(1:1-4), 예수님의 조상을 유대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인류의 뿌리인 아담에게까지 추적했으며 “그 이상은 하나님이지다”고 하였다(3:23-37).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렙다의 한 과부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처럼, 이방인들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4:16-27), 사마리아인들과(10:30-37, 17:11-19) 여성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였다(8:1-3, 10:38-42, 18:1-7, 21:1-4, 23:27-31, 24:1,10).

이런 맥락에서 주후 26년부터 3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역사적 삶의 자리와 유대민족의 정치경제적 희망만을 성경해석의 실마리로 보려는 사회과학적 성경비평방법은 정치적 목적에 매몰된 성경비평방법이다.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온 유대민족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만 복음서를 읽으려는 것이므로 문자적인 역사 정치 경제 사회의 틀을 뛰어넘어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세계로 나아간 바울과 누가의 세계선교의 비전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것은 복음서를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의 개혁이나 혁명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음이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목적으로 삼음이 아니다. 이 문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격하게 펼친 논쟁의 핵심이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자료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편집하여 해석했는가는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이 써낸 복음서들의 내용이 기독교의 내용이요, 기독교가 세워진 기초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복음(Gospel for Peace)

누가의 복음서 기록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고, 종말을 현재화 또는 역사화 시키려는 신학적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뿐 아

나라, 이방인들 즉 온 인류에게로 확대시킨 것과 그 목적을 위해서 출범된 신약교회시대가 성령시대요, 하나님께는 영광(glory to God)과 사람에게는 평화(peace to men)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시대 즉 미래종말의 희망과 지복이 지금 여기 역사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설명하려한데 있다.

누가의 높은 영성은 유대민족의 오랜 희망의 실현과 유대교와 유대민족사의 틀 속에 예수님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가두지 않고 더 넓은 이방세계를 향해 평화의 복음으로 지평을 넓힌데 있다. 우리가 봐야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은 로마인들의 귀에는 반역행위에 가까웠다. 로마제국의 명예와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로마가 피스메이커(peacemaker)란 것이었다. 로마는 신성의 지배자 로마황제의 후원 아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神)이라고 주장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공식 칭호들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였다. 로마군대는 이 평화를 이루고 보장하는 집단으로서 속주민들은 이를 고맙게 여기고 기꺼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죽임과 착취와 탄압의 대가로 얻어지는 잠정적인 평화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pax)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shalom)이었다. 이 샬롬은 하버드대의 하비 콕스 교수의 말대로, "황제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평화"였다. 이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진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얻어진 평화였다.

누가가 복음서에서 강조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승리의 복음(Gospel for Triumph)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천상천하의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을 암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가 배척당하여 죽음의 언덕에 오른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걸었던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고향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셨다는 점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점과 이 험한 길을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셨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 누가는 고난의 행진을 해야 하는 또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조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배척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과 쉬지 않는 기도로써 천성을 향한 행진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의 권면이다.

본서가 누가복음을 조금치라도 깊이 이해하고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012년 8월 2일

조 동 호

차례

머리말: 평화의 복음(눅 2:14, 19:38)/3

누가(Luke)	3
인류의 복음(Gospel for Universe)	5
평화의 복음(Gospel for Peace)	6

1. 전하여 준 그대로(눅 1:1-4)/17

전하여 준 그대로	17
하나님이 명한대로	18
신약성경이 명한대로	20

2. 심 없는 기도로 열리는 평강의 길(눅 1:5-25)/23

기도시간에 배달된 기쁜 소식	23
누가의 역사이해	24
구원사(救援史)의 연속성	26

3.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평강의 길(눅 1:26-80)/29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질성	29
동정녀에게 전해진 임신소식	30
신의 아들을 잉태했던 신화 속의 여인들	32

4. 예수님의 유년시절(눅 2:1-52)/35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35
예수님의 유년시절이야기	36
예수님의 성인식 준비	38

5.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눅 3:1-22)/41

10 / 누가복음 이야기: 평화의 복음

예수님의 청년시절	41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시기	42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식	44
6. 예수님의 족보(눅 3:23-38)/47	
누가복음의 족보	47
마태복음의 족보	48
두 복음서 족보들의 강조점	50
7. 호모 비아토르의 험난한 노정(눅 4:1-13)/53	
호모 비아토르가 마귀를 이기는 힘	53
호모 비아토르가 영웅이 되는 힘	54
호모 비아토르가 걷는 길	56
8. 예수님의 공생애노정(눅 4:14-30)/59	
샘플이 된 예수님의 노정	59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노정	60
성령님이 이끄신 예수님의 노정	62
9. 예수님의 품성(稟性)(눅 4:31-44)/65	
기독교 태동의 산실	65
예수님의 인성(人性)	66
예수님의 신성(神性)	68
10. 예수님의 관심(사명)(눅 5:1-39)/71	
빈 배와 교회(복음)	71
빈 배와 인간(빵)	72
빈 배와 인간다움	74
11.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조직(눅 6:1-19)/77	
손 내밀기	77
생명 구하기	78

기도하기	80
12.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강령(勸 6:20-49)/83	
강령(綱領)의 내용	83
강령(綱領)의 대상(對象)	84
강령(綱領)의 실천방법	86
13.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임무1(勸 7:1-17)/89	
공평하게 주어지는 희년	89
믿음으로 얻는 희년	90
연민으로 주어지는 희년	92
14.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임무2(勸 7:18-50)/95	
세례 요한 이야기의 배경	95
“이 세대의 사람” 이야기의 배경	96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 이야기의 배경	98
15.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훈련(勸 8:1-56)/101	
평화군의 수련: 여성들의 헌신	101
평화군의 수련: 활동의 목적	102
평화군의 수련: 가족의 의미	104
16.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파송(勸 9:1-9)/107	
파송의 목적	107
파송의 긴박성	108
파송의 연속성	110
17. 누가복음 4-9장의 만선(滿船) 이야기(勸 5:1-13)/113	
만선의 기쁨: 예수님을 태워야	113
만선의 기쁨: 손을 내밀어야	114
만선의 기쁨: 생명을 살려야	116

18. 예수님의 신분노출과 십자가의 길(눅 9:10-50)/119	
신분노출과 십자가의 길	119
신분노출과 자기 십자가	120
신분노출과 갈릴리사역의 마무리	122
19.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1(눅 9:51-56)/125	
오름과 생명의 일	125
오름과 죽임의 일	126
오름의 방향전환	128
20.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2(눅 9:57-62)/131	
오름과 그 목적	131
오름과 제자의 길	132
오름과 신앙생활	134
21.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3(눅 10:1-24)/137	
70인의 신학적 의미	137
70인 평화군의 파송	138
70인의 복음사역	140
22.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4(눅 10:25-42)/143	
유대인의 영생개념	143
오름의 행진과 이웃 사랑	144
오름의 행진과 하나님 사랑	146
23.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1(눅 11:1-4)/149	
주기도문	149
누가의 주기도문과 마태의 주기도문의 차이점	150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유대교의 쉼모네 에스레이의 차이점	152
24.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2(눅 11:5-13)/155	
간청의 기도	155

성령님의 활동	156
간청의 기도비유에 담긴 뜻	158
25.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3(눅 11:14-54)/161	
성령님의 참 능력	161
예수님의 참 능력	162
사람을 살리는 참 능력	164
26.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4(눅 12:1-12)/167	
약속을 지키는 믿음	167
박해를 이기는 믿음	168
인간의 도리를 아는 믿음	170
27.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5(눅 12:13-59)/173	
재물의 나눔	173
사랑의 나눔	174
영적정보의 나눔	176
28. 복음서시대 보통 사람들의 형편(눅 12:22-48)/179	
군인	179
평민	180
빈민	182
29.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6(눅 13:1-35)/185	
회개와 열매	185
새 패러다임	186
좁은 문	188
30.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1(눅 14:1-35)/191	
생명의 일	191
살림의 일	192
자리의 일	194

31.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2(눅 15:1-10)/197	
하나님의 심정	197
목자(예수님)의 심정	198
여인(성령님)의 심정	200
32.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3(눅 15:11-32)/203	
아버지의 심정	203
역할에 대한 성찰	204
탕자의 심정	206
33.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4(눅 16:1-31)/209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	209
이 세대의 아들들의 어리석음	210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	212
34.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5(눅 17:1-19)/215	
용서, 믿음, 순명(順命)	215
노예의 절대복종	216
은총과 감사	218
35.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6(눅 17:20-37)/221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221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	222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결단	224
36.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7(눅 18:1-43)/227	
오만에 눈이 멀어서	227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228
믿음으로 눈을 떠서	230
37.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8(눅 19:1-10)/233	

간절함	233
목마름	234
자기 찾음	236
38.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1(눅 19:11-48)/239	
오름의 시작과 끝	239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240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	242
39.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2(눅 20:1-18)/245	
기득권층의 공모	245
기득권층의 반란	246
기득권층의 참패	248
40.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3(눅 20:19-47)/251	
인두세 올무	251
수훈법 올무	252
메시아의 신성	254
41.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4(눅 21:1-9)/257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	257
예시된 기독교 박해	258
기로에 선 유대교와 기독교	260
42.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5(눅 21:10-38)/263	
기독교 박해	263
유대-로마전쟁	264
세상의 종말	266
43.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6(눅 22:1-6)/269	
가롯 유다의 배반	269
가롯 유다의 환멸	270

가룟 유다의 교훈	272
44.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7(눅 22:7-23)/275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75
옛 언약의 피	276
새 언약의 피	278
45.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8(눅 22:24-53)/281	
제자직에 관한 교훈	281
제자들이 누릴 영광	282
제자직수행의 능력	284
46.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9(눅 22:54-71)/287	
체포와 심문과 희롱	287
닭이 울다	288
통회와 고통과 환희	290
47.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10(눅 23:1-49)/293	
끌고다 언덕의 십자가	293
무죄한 자의 십자가	294
용서와 기도로 승화된 십자가	296
48.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영광(눅 23:50-24:53)/299	
부활사건과 여성	299
부활사건과 남성	300
부활사건과 증인	302
49. 평화의 복음을 위한 누가복음의 오름의 모형론(눅 9)/305	
예수님의 공적 삶의 재현	305
예수님의 오름의 시점	306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의 순례	308

1. 전하여 준 그대로(눅 1:1-4)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복음 1장 1-4절은 복음서의 기록목적을 설명한 구절이다.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주전 586년 유대왕국의 멸망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뤄진 사실들을 말한다. 2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진술은 몇 가지 귀중한 사실을 밝혀준다. 첫째는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복음서 성격의 다른 글들이 존재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저자들이 직접자료인 목격자들의 증언에 철저히 의존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저자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3-4절은 누가 자신도 전해진 증언들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조사한 것들을 차례대로 저술함으로써 이미 듣고 배운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란 것을 밝히려 했다는 점이다(공동번역).

누가의 이 짧은 진술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목격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다는 점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목격자들의 증언이란 점을 밝혀주는 매우 귀중한 내용이다. 가장 신뢰할만한 목격자들은 사도들이다.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한 수많은 제자들도 목격자들에 포함될 수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란 목격자들이 선포한 설교와 교육을 말한다. 그들의 증언들은 종종 ‘사도들의 전통’이라 불리는데, ‘사도들의 전통’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실천까지를 포함한 표현이다. ‘실천’이라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고(행 11:26), “안식 후 첫날에 ...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며”(행 20:7),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행 2:42), “물 있는 곳”(행 8:36)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내용들이 글로 옮겨진 것이 신약성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실천이 정통(옳음)인지를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지어질 당시 수집된 책들의 정경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는 사도들의 전통이었다.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엡 2:20)고 했다. 여기서 “너희는”은 에베소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모퉁잇돌”이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뤄진 사실들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목격한 자들의 가르침과 실천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고 권하였고(롬 6:17),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고전 11:2) 하였으며,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전 11:23)고 하였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고 말씀하였다. 왜 교회가 신약성경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밝혀주는 말씀들이다.

하나님이 명한대로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고소할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분노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즉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을 주어진 문자 그대로 지

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었고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율타리 법들을 수없이 만들어 계명들에 겹겹이 방어막을 칩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지키게 할뿐 아니라, 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통교회들에 남아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자들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게 한 것과 신자석보다 상당히 높고 먼 곳에 주의 만찬상인 제단을 배치하여 사제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성막건축에 관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거듭 강조된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이다. 출애굽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쓰였다. 32-3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 왔다”고 했고, 42-4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다.

성막제작의 핵심사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행하고 이루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 6:5) 문자적으로 지키려하는데 있다. 토라의 613개의 계명들뿐 아니라,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율타리 법들까지 성심을 다해서 지키려한다. 그러나 단점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근본취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문자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신약성경 저자들이다. 그들이

새롭게 이해한 것은 지상 가나안땅이 하늘 가나안땅의 그림자라는 것, 지상 가나안땅은 옛 언약이요, 하늘 가나안땅은 새 언약이라는 것, 지상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 지상 성막은 일시적이요, 하늘 성전은 영원하다는 것, 또 구약성경성막은 신약성경교회의 예표요, 모형이며, 그림자란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길을 걷고 있다. 공리주의적 성공주의에 빠져서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했던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유대교에 했던 것처럼 기독교에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구약성경교회로 또는 유대교적기독교에 치우쳐 있다. 공리주의적 성공주의와 유대교적 권위주의에 빠져서 신약성경교회의 사도전통을 멋대로 왜곡시키고 있다. 기독교가 선민(특권)의식과 교조주의에 매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만과 자기우상숭배로 인해서 응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약성경이 명한대로

유대교의 폐단을 고치려했던 것이 기독교였고, 가톨릭의 폐단을 고치려했던 것이 개신교였다. 그러나 개신교의 폐단은 누가 고칠 것인가,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줄 곳이 과연 있기는 한가? 다행히도 200여 년 전, 정확하게는 ‘알렉산더 캠벨’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화려한 목회경력을 자랑하는 레드스톤 침례회의 목사들 앞에서 1816년 9월 1일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를 시발로 1823-30년까지 7년간 발행한 <크리스천 배티스트>(Christian Baptist)지와 1830-70년까지 40년간 발행한 <밀레니얼 하빙어>(Millennial Harbinger)지에 발표한 “옛 질서의 것들의 회복”(to restore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개신교는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는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폐단과 분열이 심각하고 상호비방이 난무한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름이 다르고 조금만 다르게 실천해도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침례가 이단이 되고,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이 이단이 되고, 신성한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조차 이단이 되는 게 현실이다. 유대교나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조차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회복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와 뜻이 심각한 분열과 유대교적 기독교란 왜곡된 결과로 드러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개신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데 있다.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도를 제시하면 의심부터 하고 그 알량한 지식과 전통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약성경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한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신약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행한 것을 실천하고, 침묵한 것을 자유로 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으면 그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으면 그렇게 부르고, 침례를 행하였으면 그렇게 행하고,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였으면 그렇게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핵심사상은 만인사제론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의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 빈부귀천의 차별,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일군들이다.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셋째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아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빙자한 분열은 죄악이다.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의 해석방법인 문

자적 해석을 채용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저자들의 모형(예표)론 해석과 단순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데 있다. 여기서 단순 원리는 신약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말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에는 일치해야 한다.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은 비본질이다. 비본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2. 짐 없는 기도로 열리는 평강의 길(눅 1:5-25)

기도시간에 배달된 기쁜 소식

5절에서 ‘반열’(Courses)이란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組) 편성을 말한다. 반열은 다윗 왕 때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24개 조로 나누어 조별로 일주일씩 일 년에 두 차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데서 비롯되었다(대상 24:1-19). 각 조의 이름은 처음 조를 나눌 당시에 각 조의 조장의 이름을 따랐다. 세레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속한 조는 아비아 조로써 8번째였다(대상 24:10). 임무교대는 저녁 희생제사(오후 3시) 전 매주 안식일에 있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7천여 명, 레위인들은 1만 1천여 명, 도합 1만 8천여 명에 이르렀고, 별도의 생업들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 매일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의 수가 75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290여명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제비뽑기에 당첨되어 성소 봉사자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두세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경우 제사장들은 일생동안 구경조차 못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의인’이란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들과 온갖 규례들 즉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Gezeiroth)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6절에서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보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의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무자(無子)는 형벌이나 다

름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칠거지악에서처럼, 유대인들에게 무자는 파문이나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게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갖기에는 이미 너무 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義)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들을 주셨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배달된 것은 그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누가는 11-13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전은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있었다. 지성소에는 서편 벽 앞에 법궤 한 가지만 놓였다. 그러나 성소에는 동편 출입구에 섰을 때 정면으로 휘장 앞에 향단이 놓였고, 휘장에는 체루빔 천사들이 공교(工巧)히 수놓아져 있었다. 성소 왼편에 일곱 개의 등잔을 올리는 등대가 놓였고, 성소 오른편에 열두 덩어리의 빵을 진열하는 상이 놓였다.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놓지만,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등잔불의 정리는 아침에,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은 저녁에 이뤄졌다. 10절에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에서 보듯이 분향은 아침과 저녁기도시간에 이뤄졌다. 또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시 141:2, 계 5:8, 8:3-4). 사가랴가 분향, 곧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응답을 갖고 천사가 나타났다. 기도는 응답의 도구이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의 기도응답으로 보았다. 기도시간이 바로 문제해결의 시간임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의 역사이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야누스처럼 두 시대의 문들과 두 인물들의 등장을 볼 수 있다. 늙은 엘리사벳은 옛 시대의 상징이

요, 세레 요한은 옛 시대의 문을 영원히 닫을 자였다. 그러나 젊은 마리아는 새 시대의 상징이요, 예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영원히 여실 분이셨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歷史)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세레 요한의 등장은 비범하였다. 그는 구약 시대의 걸출한 인물들인 사무엘과 엘리야한테서 예표를 갖고 있었다. 세레 요한의 출생은 사무엘의 것과 매우 흡사했다. 양가부친이 모두 제사장 출신이었다. 양가모친이 모두 불임여성들이었다. 두 아이가 모두 기도응답으로 태어났다. 두 아이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왕의 임직을 위해 세워졌다. 사무엘은 옛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세레 요한은 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예언자시대를 연결하였듯이, 세레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였다. 한나가 찬송하였듯이, 마리아도 찬송하였다. 누가는 이런 점들을 자세히 연구하여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켜나가고 계신가를 파악하였다. 사무엘의 출생에 깊이 개입하셨던 성령님은 세레 요한의 출생에도 깊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드문드문 이뤄지는 단편들이 아니라, 아담이후 지금까지 또 미래에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연속적인 역사라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누가는 이 같은 역사이해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주목하였다. 사무엘과 세레 요한의 출생에 깊이 관여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도 특별섭리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사무엘의 출생과 세레의 요한의 출생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도 이들과의 동질성을 발견하였다. 이런 동질성의 관점에서 누가는 양가부모의 신실한 믿음과 꾸준한 기도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그 응답을 전한 천사의 수태고지와 산모와 태중아기의 성령 충만을 소개하였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함께 누가가 복음서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들에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연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힘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보았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된 힘은 구름 기둥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들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누가는 인류에게 평강의 길을 열었던 사무엘과 세레 요한이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부모들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성령 충만한 모친의 태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인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자들은 이렇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14절에서 보듯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구원사(救援史)의 연속성

세레 요한은 금욕생활을 지시받았다.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탄압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메시아의 길, 곧 평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왕하 1:8)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떠돌면서 야훼신앙복원을 위해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왕하 2:9) 받았던 엘리야는 야훼신앙을 유린하고 탄압한 아합 왕국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새 이스라엘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마 3:4) 빈들(80절)에 거주하면서 질풍노도(疾風怒濤)

와 같은 어조로 회개를 촉구했던 세레 요한은 옛 구습의 시대를 폐쇄시키고 새 시대를 열기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세레 요한이 죽자 예수님은 메시아신분을 공개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활짝 여셨다. 엘리사와 세레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어진다고 본 것이 누가의 역사관이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할 때 시너지가 발휘된다. 누가는 세레 요한의 탄생을 사가라의 기도 때문으로 보았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라는 점을 아예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다. 성경은 분향을 성도의 기도로 이해하였다.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였다. 자신의 기도를 성소의 분향에 비교했던 것이다. 계시록의 저자는 지상의 성전을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 보았다. 특히 향연을 성도의 기도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계시록의 저자는 5장 8절에서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하였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는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성소밖에 있는 제단에서 피어오른 제물의 향연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성소 중앙에 놓인 향단에서 피어오른 거룩한 관유(향기름)의 향연이었다. 제물의 향연은 제 몸을 불태워 드리는 향기로써 우리 성도들이 몸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 올려드리는 예배와 섬김의 향기를 말한다. 또 거룩한 관유의 향연은 기름과 향품을 섞어 제조한 향기름을 태워 드리는 향연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계시록 8장 3-4절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향을 받아 담은 것은 제물의 향

연이고, 성도의 기도는 성소 중앙에 놓인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늘 보좌 앞 금 제단에 바쳐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분향봉사와 기도는 맥을 같이 한다. 13절에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하심은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사가랴는 자식을 구했을 것이고, 속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천사의 기별은 정확히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이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3.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평강의 길(눅 1:26-80)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질성

누가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에서 동질성을 찾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달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결같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아버지에게 생후 첫 안식일 회당예배 때 그날분량의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아기와 부인의 건강을 비는 축복을 낭송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여아인 경우 바로 이 날의 회당예배 때 이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남아이면, '브리트 밀라'(brit milah)라 불리는 할례의식 때에 이름을 부여받는다. 사가랴의 아들에게도 바로 이 할례의식에서 이름이 주어졌다. '요한'이란 이름은 '야훼는 자비하시다'는 뜻의 히브리어 '예호하난' 또는 '여호난'의 헬라이어 이름이다. 만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그의 이름은 '벤-사가랴 하-코헤인'(ben-Zechariah ha-Kohein)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란 뜻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호수아'의 헬라이어 이름이다. '야훼는 구원자,' '야훼가 구원하신다' 혹은 '야훼의 구원'이란 뜻이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동질성을 찾아 열거했지만, 특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동질성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었다. 이 두 가지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척당함과 천로역정(天路歷程)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자주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애로의 순례를 멈추지 않는다. 배척을 극복하고 순례를 성공리에 마치는 힘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로마세계에는 영웅 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가 있었다. 그리스-로마 신화들은 이솝의 우화처럼 가공된 것들이지만, 그 속에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가공인물인 헤라클레스는 실존인물인 알렉산드로스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전쟁영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가엾은 운명과 치열하게 싸웠다. 싸움을 하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했고, 옳은 가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 그는 항상 지혜의 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았다. 신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니다. 신은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항상 예비했고, 헤라클레스는 그 방법을 찾아 난관을 극복했다. 신은 앞문을 닫으면, 반드시 뒷문을 열어두신다는 확신이 헤라클레스에게 있었다. 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으로 그를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영웅이 되게 하여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스는 최후까지 신 앞에서 겸손하였다. 그런 그에게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최고의 여신 헤라까지도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그는 '헤라클레스' 즉 '헤라의 영광'이란 칭호를 받게 되었다. 실존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삶이 이와 비슷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영웅성을 본받아 천로역정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다.

동정녀에게 전해진 임신소식

한나와 엘리사벳처럼 마리아도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었다. 그들처럼 불임이어서가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그에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출

생한다는 것이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꼭 6개월 만에 생긴 일이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다. 유대사회에서는 결혼 1년 전에 정혼하는 관습이 있었고, 1년 후 결혼식이 끝나야 합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던 것이다. 결혼이나 정혼의 여부를 떠나서 간음은 투석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임신소식은 마리아에게 까무러칠 지경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매우 침착하게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였다.

수태고지는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천사의 인사와 마리아의 당혹감이고, 두 번째는 천사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의혹이며, 세 번째는 천사의 답변과 마리아의 순응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여성이었다. 29절의 “은혜를 받은 자”와 30절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마리아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왔다는 뜻이다. 이는 마리아의 신앙이 신실했고, 몸이 순결했으며, 마음이 진실했으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사는 31절에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정해주었고, 32-33절에서 아기의 신분을 밝혀주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왕위”와 “야곱의 집”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결코 문자적인 뜻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의미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 왕이시기 때문이다.

34-38절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되었다고 말한다. 35절에서 “덮으실 것이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접촉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

신 영(靈)이시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만세전부터 살아계신 독생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체로 오신 것이지,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다.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 마리아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였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45절).

더 놀라운 것은 임신 6개월의 태아였던 세례 요한이 수주밖에 되지 아니한 배아상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뿜 것이다. 이것은 두 모친뿐 아니라, 두 태아까지도 성령님에 충만했음을 보여준다. 또 늙은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主)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태중의 아이를 “나의 주(主)”라고 불렀다. 성령님의 영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3).

신의 아들을 잉태했던 신화 속의 여인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알크메네와 세멜레는 인간 동정녀들로서 제우스의 아들들을 낳는다. 그들의 이름이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부활의 상징들이고, 헤라클레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대전(大殿)으로 승천하여 신들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한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 신은 동생인 세트 신의 손에 죽는다. 오시리스 신의 누이이면서 아내였던 이시스 여신은 오시리스의 사체를 수습한 다음 흙뭍으로 오시리스의 아이를 잉태한다. 이시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호루스 신이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환생이다. 아기 호루스 신은 세트 신의 복수를 피해 나일 강의 갈대숲에 숨겨진다. 그 후 호루스는 세트를 패배시킨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모친 올림피아스는 결혼식 전날 번개(제우스)가 그녀의 몸을 관통하는 꿈을 꾸다. 그 꿈으로 인해서 올

림피아스는 자기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를 세뇌시켰다. 전쟁의 영웅 알렉산드로스는 지중해연안세계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지만, 자신을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환생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33세에 과음이 원인이 되어 요절하였다.

자연법칙만 믿고, 예언과 계시와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서의 일부 기사들을 이런 신화에서 차용한 조작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바로 그 신화를 탄생시킨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리스-로마인의 정신과 종교와 문화는 신화가 지배하였다. 생물과 사물의 이름들이 모두 신(神)으로 불릴 만큼 그들이 믿는 신은 자그마치 3만이 넘었다. 수많은 신전(神殿)들이 대표적인 신들에게 봉헌되었고, 그들의 신심(信心)을 표현한 문화예술작품들이 화려하게 꽃피웠다. 그 흔적들을 보기 위해 지금도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리스-로마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로마 사람들의 98퍼센트가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며,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로 일컬어지는 가톨릭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는 동방교회로 알려진 그리스정교회로 발전되었다. 그러니 당대의 그리스-로마 신화와 이집트의 신화 및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차용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가를 알 수 있다.

신화는 다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살생과 파괴가 주된 테마들이다. 헤라클레스와 알렉산드로스 및 오시리스의 신화들이 다 그렇다. 디오니소스는 방탕과 환락의 상징이다. 더욱이 제우스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난봉꾼이다. 제우스는 종종 인간으로 변신하여 알크메네와 세멜레와 같은 여인들을 속여 자신의 성욕을 채운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살아계신 독생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체로 오셨을 뿐이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또 태어날 아기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죽임의 일이 아니라, 살림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모형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에 있지 않고 구약성경에 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그 어떤 종교와 신화에도 없는 특별한 은총이다.

4. 예수님의 유년시절(눅 2:1-52)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마태의 것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다. 글자 수로 비교했을 때, 누가의 것이 마태의 것보다 약 2.7배 정도이다.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관해서 기록한 저자는 마태와 누가 뿐이다. 그런데 이 두 저자들은 출신 혈통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도 달랐다. 마태는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이었고, 유대인들의 희망(Ha-Tikvah)인 메시아도래와 왕국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소개하려 하였다. 한편 누가는 헬라어를 사용한 이방인으로서 안디옥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었고, 이방인들의 희망인 평화(Eirene)와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소개하려 하였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마태의 기록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태는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6백년간 고대한 다가올 세상(Olam Ha-Ba)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은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부각시켰다. 한편 예수님 탄생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평화의 구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누가는 오랜 외로움과 가난과 질고의 짐을 지고 사는 인류가 고대하는 평화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귀구유에 임하신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은 양치는 목자들의 예방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별과 동방박사들의 예방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요셉이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대동하고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간 것과 목자들의 예방이야기 및 예수님의 유년시

절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누가의 평화의 왕은 마태의 유대 왕과 당대의 로마 황제와 대조된다.>

예수님의 탄생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문자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인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문자적인 다윗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그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 값없이 차별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희망하는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유대민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바울을 도와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누가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피력하였다. 누가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적 희망(Ha-Tikvah)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지 않고, 주변부 이웃들인 열방민족들의 보편적 희망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적었다.

예수님의 유년시절이야기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 소년으로서 겪었을 법한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하였다. 그 중의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연령대별로 아이들에게 행하는 중요한 종교의식들이다. 그것들은 할례와 장자의 대속의식과 성인의식이다.

누가는 순례(여행)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테마로 삼았던 저자이다.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는 한 가난한 여성 속주민의 몸을 빌린 예수님은 태아의 상태에서조차 북쪽 끝 갈릴리에서 남쪽 끝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셔야만 했다. 그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칙령에 따른 것이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조차도 세속 황제의 칙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그것이 세속 황제에 의한 것인 듯싶어도 실제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류구원을 위한 위대한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만 했다.

예수님은, 비록 영적이었지만, 구약예언의 성취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소년으로서 가난했지만 율법의 규례대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셨다는 점을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예수님이 도입하신 새 시대는 옛 시대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옛 시대의 완성 혹은 성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흔적을 몸에 표시하는 할례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의식(brit milah)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열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갖기 위한 것이다. 갓난아기가 여자이면 첫 안식일 회당 기도회 때 이름을 부여하지만, 갓난아기가 남자이면 바로 이 할례의식 때 이름을 부여한다. 예수님도 이 할례의식 때에 이름을 부여받으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 간 것은 아기 예수님의 속전과 마리아의 정결예식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18장 15-16절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인 '만아들

의 대속'(pidyon ha-ben)을 위해 속전의식을 출생한지 31일이 되는 날에 행한다. 만일 이 날이 안식일이면 다음날에 행한다. 이 때 지불한 몸값은 은전 5세겔이었다. 그 가치는 대략 일용직 임금으로 20여일어치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은전으로 5달러를 제사장이나 절차에 익숙한 경건한 자에게 주고 간략한 의식을 행한다. 22절의 “정결예식의 날이 찼다”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1일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41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여지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여진다. 이 기간이 차야 산모는 번제물로 어린양과 속죄물로 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갈 수 있었다. 가난해서 어린양을 바칠 수 없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번제물과 속죄물로 바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면, 산모가 정결하게 되었다. 24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던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가난은 누가의 관심사들 가운데 한 가지였다.

예수님의 성인식 준비

41-51절은 예수님이 열두 살 때의 일을 적고 있다. 유대인 소년에게 이 나이는 종교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유대인 소년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능력이 있으며 또 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할례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의 몸에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라면, 성인식은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식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서 취한 613개의 계명들(Mitzvot)과 수많은 율타리법들(Gezeiroth)을 갖고 있다. 성인식을 끝낸 유대인 소년은 이들 계명들과 율법들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이때부터

는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고, 자녀는 계명과 율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그는 이제 '계약 혹은 계명의 아들'(Bar Mitzvah)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소년은 유대인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정식회원이 된다. 따라서 유대교의 모든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회 때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봉독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회를 마감하는 찬양인도와 성경두루마리를 묶거나 법케 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헌금위원으로 뽑힐 수도 있다. 유대교에서는 최소한 열 명의 성인 남성이 있어야 회당설립과 기도회를 열 수 있다. 성인식을 마친 소년은 회당조직과 기도회 때 필요한 최소인원(minyan) 열 명의 숫자에 포함된다.

유대인 소년은 12살 때 성인식을 준비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옷 술(zizit)이 달린 기도보(tallith)를 어깨에 걸치는데, 이때 부모는 옷 술이 없는 기도보를 선물하여 일 년 간 임시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기도생활에 익숙토록 하며, 성인식 30일 전에는 옷 술이 달린 완전한 기도보를 가지고 아침 기도회에 참석토록 한다. 이날 부모는 간소한 음식을 준비하여 이를 기념한다. 성인식 7일전에 보통은 안식일 오후 기도회 때 토라를 생애 처음으로 읽을 기회를 주어 일주일 후에 있을 성인식을 준비하게 한다. 성인식 5일전에 보통은 월요일 아침 기도회 때 다시 한 번 토라를 읽게 한다. 성인식 이틀 전에 보통은 목요일에 세 번째로 토라를 읽게 한다. 그리고 성인식 하루 전에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설교까지 하도록 한다.

요셉과 마리아가 열두 살이 된 예수님을 명절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 것은 성인식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와 51-52절, “예수께서 ...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유년시절에 예수님이 예쁘게 신앙교육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런 착실한 신앙교육의 결과로 예수님이 훌륭한 성인이 되셨음을 보여준다. 누가는 2장에서만 “모세의 법대

로”(22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24절), “율법의 관례대로”(27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41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42절)란 표현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님을 신앙으로 양육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도입하신 새 언약시대가 옛 언약시대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시대의 완성 혹은 성취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예수님의 유년시절을 기록한 책들에는 외경 복음서들인 야고보원복음서와 도마복음서가 있다. 야고보원복음서는 2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도마복음서는 2세기 후반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마복음서는 나그함마디 도서관에서 발견된 이집트의 콕틱 영지주의 도마복음서와는 다른 책이다. 이들 외경 복음서들은 신약정경 복음서들이 기록된 지 최소 50년에서 최고 100년 뒤에 쓰인 것들로써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5.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눅 3:1-22)

예수님의 청년시절

누가는 예수님의 성인식준비를 끝으로 10대와 20대의 18년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은 유대인 청년들이 계명의 아들들로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며,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살에 토라(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웠고, 10살에 미쉬나(Mishna)를 배웠으며, 15살 이후에는 게마라(Gemara)와 탈무드를 배웠다. 전 세계 민중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시절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야 했다.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이 단지 계약을 지키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미쉬나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하며, 주후 200년에 사망한 랍비 유다가 수집하여 책으로 엮었다. 미쉬나에는 농사법(Zeraim), 안식일 및 절기법(Moed), 결혼 및 이혼법(Nashim), 일반 형법(Nezikin), 희생제물법(Kodashim), 레위인의 성결법(Tohovoth)이 담겨 있다. 또 게마라(Gemara)는 미쉬나를 주석하고 해석한 것으로써 유대교 교육의 특징인 문답(問答)으로 되어 있다. 탈무드는 주후 500경에 이들 미쉬나와 게마라를 모아 편집한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탈무드에는 삶의 모든 측면,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하는 것, 먹을 수 있고 없는 것, 입을 수 있고 없는 것, 몸치장하는 방법, 업무를 보는 방법, 결혼의 대상, 축일들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취급하는 방법 등의 율법과 전통을 담은 할라카(Halakah/법)와 철학, 신학, 역사, 도덕, 시, 속담, 성서 해설, 과학, 의학, 수학, 천문학, 심리학, 형이상학 등의

지혜를 담은 아가다(Aggadah/의미)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탈무드가 없었고, 미쉬나와 게마라도 문답을 통해서 구전으로 교육되어졌다.

예수님은 청년시절에 부친 요셉의 직업인 목수기술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막 6:3). 유대인은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도록 되어 있었다. 유대인은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유대인에게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다. 직업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던 고대에는 대부분 부모의 직업을 전수받았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제였을 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과 직업교육을 책임졌던 교사였다. 탈무드는 “아들에게 직업을 안 가르치면 자식을 강도로 키우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였다. 유대인들은 “생업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토라연구는 헛된 것이다. 빵이 없는 곳에 토라가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에 빵도 없다.”고 말할 만큼 생업과 율법연구를 동일하게 여겼다.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경멸하였다. 게으른 사람은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어 사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농사하는 법, 양치는 법, 전투하는 법, 노래 부르는 법, 악기 다루는 법과 같은 직업교육을 토라율법과 함께 가르쳤고, 특히 돈을 불리는 비법을 전수했다. 돈을 불리는 것만이 수천 년의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보다는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셨다. 예수님은 나이 30세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시기

누가는 예수님께서서 공생애 출범시기를 3장 1절에서 로마의 제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

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하던 때라고 설명하였다. 본디오 빌라도는 제5대 유대지방 총독으로서 주후 26년에 부임하여 36년에 파면되었다. 티베리우스는 주후 13년에 최고 통수권을 부여받고 제1대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노환으로 통치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가 사실상 단독 통치자나 다름이 없었고, 아우구스투스가 14년 8월 19일에 사망함으로써 제2대 로마황제로 즉위하였다. 따라서 누가가 언급한 "통치한 지 열다섯 해"는 주후 26-27년경을 말한다. 누가는 시리아 출신이므로 시리아의 연대계산법에 따라 티베리우스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주후 13년부터 계수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서 누가복음 3장의 역사적 시점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를 주후 26경으로 본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를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는 30세쯤의 일로 보았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연도는 주전 4-6년경이다. 영국의 천문학자 마크 키저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한 때를 주전 5년 유월절 경쯤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나이는 주후 26년에 30세쯤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주후 30년 유월절 날이었다. 그때가 만 35세쯤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암흑기나 다름없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이 압제는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으로 6백년이 넘도록 대물림되어온 것이었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반세겔(노동자의 2일간 품삯에 해당) 내는 성전세와 로마제국에 내는 인두세가 버거운 짐이었고, 세리들의 부정과 부패도 심했던 때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고 했듯이 민중들의 삶은 심히 고단하였다. 실로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마 4:16).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수많은 신들의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했고, 여성들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이나 연인 갈아타기를 서슴지 않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할 때로 피폐해졌던 때였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노예들이 시중에서 짐승처럼 매매되었고,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았으며, 투기장에 끌려 나가 많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던 때였다. 당시의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과 가난과 전쟁노예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과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시기였다.

<많은 신들의 숭배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잦은 전쟁과 노예제도 때문이었다. 일상적으로 착취를 당했던 노예들에게 도덕심과 수치심은 존재되기 힘들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사 61:1-2)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식

주후 30년경 세레 요한은 요단 강변들을 돌며,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베풀었다. 그가 베푼 회개의 침례는 오실 자 메시아를 영접시키기 위한 준비였다. 그가 외친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이사야 40장 3-5절을 인용한 것이었다.

세레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나 유대교의 개종침례와도 다르고, 유대인 쿰란공동체가 행한 정결의식하고도 달랐다.

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멤버로 가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교의 개종침례는 유대인과 혈통이 다른 남녀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의식이며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 남자 개종자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쿰란공동체는 개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정결의식은 단회(單回)의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단회의식이었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를 믿거나 신앙을 고백하도록 권하지 않았고, 오직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며, 회개가 필요치 아니한 분이셨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더더욱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 기름 부음 즉 임직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는 다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받지만, 그분은 그 누구를 믿거나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실체였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사무엘이 세례 요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살펴본바가 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침례로 기름을 부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였다. 이 “하늘로부터 소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질적으로 뛰어난 것이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자기 위에 임재하시는 것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1-22)는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침례가 성령님으로의 기름부음 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시간으로 믿게 되었고, 그 상징으로 침례직후에 기름을 이마에 바르는 인침(견진)과 주의 만찬 의식을 치렀다. 성령님으로의 기름부음은 구원의 보증을 의미한다(고후 1:22, 5:5). 16절의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과 믿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행 2:38). 물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기름부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상징되는 교회를 지나 저 천국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땅의 상속과 또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과는 다르다. 신학에서는 이 기름부음을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부른다.>

6. 예수님의 족보(눅 3:23-38)

누가복음의 족보

역사에는 순수역사(historie)와 해석의 역사(geschichte)가 있다. 순수역사는 사건그대로의 보도 즉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탐구해서 보도한 사실적 기록을 말하고, 해석의 역사는 사건이 주는 교훈과 뜻, 또는 의미와 해석을 가미한 기록을 말한다. 함석헌은 해석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그 뜻풀이에 역사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으며,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잘하는 역사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해석하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를 아는데 깊고 얕은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도 뜻풀이에 의한 족보이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500년이 넘는 유배생활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는 모계를 중시하지만, 성서시대에만 하더라도 부계(父系)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들선호사상이 매우 컸었다. 유대인들의 족보사랑은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에서부터 시작된다. 다행한 것은 창세기가 아브라함이전까지는 족보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이 빛은 아담에서 비롯된 한 가족이고, 종족과 언어와 피부색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란 점을 보여준다. 이 정신에 입각해서 누가는 인류가 하나님이 빛은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본래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형제자매인 것을 깨우쳐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가 족보나열방식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 하향식을 택한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향식을 택하였다. 마태가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낳고”란 단어를 쓴 반면, 누가는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위는”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족보상으로 상위일 뿐이지, 반드시 혈통으로 상위란 뜻이 아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지만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란 뜻을 담고 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가 75대(代)이다. 75란 숫자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첫째는 제1아담이 죄와 사망을 도입시켜 황폐시킨 세상이고, 둘째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실린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다”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보듯이, 75대(代)는 유대민족의 흥망성쇠를 암시한다. 그리고 75대(代)로써 제1아담의 죄와 사망의 옛 시대가 종결되고, 제1대(代)로써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와 생명의 새 시대를 개방하셨음을 암시한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입국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창세기 46장 26-27절에서는 70명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은 75명으로 언급하였다. 이 75명설은 헬라어구약성경에 따른 것이다. 히브리어성경에 언급된 70명은 야곱과 야곱의 남녀 자손들과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된 반면에 야곱의 자부들이 제외된 숫자이고, 스테반이 언급한 75명은 므낫세의 아들과 손자 한 명씩과 에브라임의 두 아들과 손자 한 명이 포함된 숫자이다.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낳고’ 또는 ‘낳다’란 말이 40번 나온다. 이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40대(代)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총 41명의 가장(家長)의 이름

들이 나온다. 이는 옛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민족의 기업으로 약속받고 옛 언약시대를 개방한 아브라함부터 그 기업에 속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가 총 40대(代)란 의미를 갖는다. 40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로써 떠돌이와 노예의 삶으로 점철된 슬픈 유대민족사를 대변한다. 예수님이 41번째인 것은, 아브라함이 옛 언약시대의 시조(始祖)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 언약시대의 시조(始祖)가 되심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왕국의 출범과 발전기를 말한다. 이스라엘왕국은 아브라함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웠으며 다윗이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왕국의 쇠퇴기와 멸망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노예와 떠돌이였던 유대민족의 첫 번째 희망의 성취와 실패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는 유대민족이 가나안땅을 빼앗긴 후 또 다시 예전의 노예와 떠돌이의 신세로 되돌아간 다음에 두 번째로 품었던 희망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희망은 빼앗긴 땅과 나라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모세 또는 제2다윗이 필요하였다. 그가 메시아였다. 메시아사상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회복의 메시지였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희망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문자적인 것으로써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의 첫 번째 희망과 두 번째 희망이 모두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과 유대민족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마태와 누가를 비롯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확신이었다.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겉보기에는 유대인 혈통의 계보인 듯이 보여도, 실상은 하나

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이다.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룯과 밧세바와 같은 이방인 여성들이 족보에 포함된 것이다. 동정녀의 몸으로써 뜻하지 않은 임신을 믿음으로 수용한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에 포함된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세우고 다윗이 극대화시킨 인간왕국의 실패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세우시고 극대화시킬 천국을 온 인류의 미래와 희망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왕국이 필연적으로 갖는 유한성, 제한성, 일시성, 불완전성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 정의와 평화와 안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하늘왕국의 개혁을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통해서 예고하였다. 따라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이후 580여 년간 기대하고 꿈꿨던 다윗 왕국의 재건이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밝히려고 하였다.

두 복음서 족보들의 강조점

첫째, 마태가 유대민족의 희망인 가나안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누가는 인류의 희망인 하나님의 평화에 맞췄다.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것이다(롬 1:3-4).

둘째, 마태가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반면, 누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하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온 인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마태가 예수님을 제2모세로 설정한 반면, 누가는 제2아담으로 설정하였다. 누가의 동역자였던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15-21절에서 제1아담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끼친 악영향을 예수님의 순

종이 상쇄시킬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사와 생명은 아담의 죄와 사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더욱 넘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였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아담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실한 것을 제2아담이신 예수님에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찾았고 또 찾을 것이다.

넷째, 마태가 요셉의 계보를 소개한 반면,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소개하였다. 누가는 요셉보다는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예수님이 요셉의 친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뱀(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임을 상기시켰다. 마태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한 반면, 누가는 요셉의 상위를 마리아의 부친인 헬리로 기록하였다. 그렇다고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다. 야곱은 혈통에 의한 요셉의 친부(親父)였고, 헬리는 모세의 법에 의한 양부(養父)였다.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헬리에게는 딸만 있었던 것 같다(요 19:25). 모세의 법에 따르면,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유산을 상속한 여인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 이는 지파에 속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민 27:1-11, 36:1-12). 모세의 법에 따라 마리아는 헬리의 유산을 물려받고 같은 유다지파에 속한 요셉과 결혼하였으므로 요셉은 자동으로 헬리의 법적 아들이 된 것이다.

다섯째,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서 가장 상이한 곳은 다윗부터 요셉까지의 계보이다. 메시아는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유배되기까지 14명의 유다 왕들로 채웠고, 누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나단으로 시작해서 19명의 보통 사람들로 채웠다. 마태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왕국이 망하고 왕권이 끊

어진 이후 요셉까지 13명을 요셉의 계보에서 채운 반면, 누가는 22명을 마리아의 계보에서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계보와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의 계보가 모두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들이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누가 역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제각기 적합한 족보를 취했던 것이다.

<마태와 누가의 뜻풀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겼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과 역사에 대해 뜻풀이를 잘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에 구원의 기쁨과 희망을 안길 수 있다.>

7. 호모 비아토르의 험난한 노정(눅 4:1-13)

호모 비아토르가 마귀를 이기는 힘

누가복음 4장 1-13절에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길이 가시밭길, 배척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것에 대한 예방주사이다. 그 분이 걸어가신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임직하신 후의 첫 사건이 마귀의 시험이다. 이 사건이 고향 나사렛사람들에게 당하신 배척사건으로 바로 이어진다. 누가가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첫 사건으로 배치한 이유는 마귀의 저항을 암시하려한 것이고, 마귀의 저항은 고향 나사렛사람들한테서 시작되고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에게로 이어져 예수님이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13절에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의 뜻).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마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사십 일간 광야에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으나 천사들이 시중들었다(막 1:12-13)고 간략하게 적었다. 금식하셨다는 말과 시험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십 일간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물리치셨다고 적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사십 일간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십일 간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또 받으셨다고 적었다. 누가의 보도가 다른 두 저자들의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란 문구의 추가와 시험 직후에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소개한 점이다. 마귀의 시험은 사십 일 금식기간 중에도

있었고, 금식 후에도 있었으며,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몇 번 정도 실패해도 잠시 동안만 물러설 뿐이지, 괴멸시킬 때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가가 3장 21-22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체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셨다면서 “기도하실 때”를 강조한 것이나 4장 1-3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에게 이끌리신” 때문이었다고 강조한 이유가 마귀의 저항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마귀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길 힘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가 마귀의 시험을 소개한 목적은 마태가 소개한 목적과 다르다. 마태복음에서 마귀의 시험내용이 유대인들의 정치경제적인 요구에 상응한 것이었다면, 누가복음에서 마귀의 시험은 성도들이 천로역정에서 겪는 마귀의 유혹들에 상응한 것이다. (마귀의 유혹은 본능의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 나와 왕의 길(King's Way)을 걷는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한 가시밭길이다. 그래서 마귀는 쉽고 편한 길로 유혹한다. 마귀가 원하는 길로 들어서면,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이란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그에게 '희망'이란 동료가 곁을 지킨다. 또 '약속'이란 마스터키가 그의 품에 있어서 절망을 극복하고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만든다. 여기서 희망이란 동료는 성령님이요, 약속이란 마스터키는 기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 충만은 천로역정을 마치게 하는 능력이요, 안전장치이다.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호모 비아토르가 영웅이 되는 힘

우리가 비록 헤라클레스나 이아손, 테세우스와 같은 영웅은 못되어도 험한 인생길을 헤쳐 나가는 모험을 즐긴다면 우리도

분명 영웅이다. 신화에서 신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들이 모두 영웅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항구에 머물며 바다로 나가지 않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거친 파도와 폭풍과 싸우지 않는 이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가시밭길 고난의 십자가를 굽어지지 않는 이는 영웅이 될 수 없다. 높은 산 험한 길을 오르지 않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달궈지고 녹아지고 제련되어 나오지 않으면 영웅(정금)이 아니다. 미궁에 빠져보지 않은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 고통은 인간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다. 이 고통을 이기는 호모 비아토르(떠도는 인간)가 영웅이 된다. 그래서 영웅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가 싸운다. 영웅은 거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돛을 올린다. 영웅은 높고 험한 가시밭길 산을 오른다. 영웅은 미궁에도 빠지고 하늘도 날고 지옥에도 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도 안전장치(예: 번지점프, 빙벽타기, 암벽타기)는 항상 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안전장치가 영웅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된다. 헤라클레스에게는 방망이가 있었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아폴론에게는 백발백중하는 활이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는 방패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무기 즉 타고난 재능이 그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천하의 영웅호걸이라도 아무런 도움 없이 맞닥뜨린 난관을 헤쳐 간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에게는 지혜의 신 아테나의 도움이 있었고, 테세우스에게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었으며, 벨레로폰에게는 아테나 신의 황금고삐가 있었고, 이아손에게는 헤라 신의 도움과 메데이아의 마법이 있었다.

이들 영웅들이 괴물들을 물리친 것은 자신의 재능이나 손에 쥔 막강한 무기 때문이 아니었다.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 레르네의 물뱀 히드라, 에리만토스 산의 멧돼지 같은 무시무시

한 괴물들을 물리친 것은 활과 창과 방망이 때문이 아니다. 그의 승리의 배경에는 항상 지혜의 신 아테나가 있었다. 영웅 테세우스가 미로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실타래를 입구 기둥에 붙들어 매고 철저하게 그 실에 의존했기 때문에 괴물을 물리치고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벨레로폰이 천마(天馬)인 페가수스를 잡아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지혜의 신 아테나가 황금고삐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아손이 황금모피를 손에 넣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헤라 신과 메데이아의 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영웅은 없다. 영웅이 과업을 완수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신의 도움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영웅은 일의 성패가 신의 도움이 있고 없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영웅은 일의 성패가 자신의 능력에 있다는 오만에 빠진다. 그러나 오만은 영웅을 쓰러뜨리는 아킬레우스 건(臍)이다. 영웅은 남에게 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오만 또는 자기우상 때문에 고목처럼 무너진다.

호모 비아토르가 걷는 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1947)을 쓴 신화학자 조셉 캠벨(Joseph John Campbell)은 영웅은 초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였다. 그는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의 특징이 1)모험을 떠난다는 점, 2)모험 중에 큰 난관에 직면한다는 점, 3)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점, 그리고 4)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돌아온다는 점이라고 말하였다.

조셉 캠벨에 따르면, 영웅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를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뛰어든다. 영웅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극복한다. 그리고 영웅은 과

거보다는 훨씬 새롭고 좋은 그 무엇인가를 사회에로 가져온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웅이다).

영웅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신의 부름(소명)을 받고 '호모 비아토르' 즉 모험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모험 즉 길 떠나는 것을 거부하면 영웅이 될 수 없다. 이때 영웅이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기존세계에서 벗어나 신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영웅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출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오이디푸스도 스팅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고 나서야 인생행로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관문 앞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고 통과하신 것과 같다.

그리고 문에 들어서면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성찰하게 된다. 이것을 영웅의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부족에의 각성이 영웅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 된다. 소명을 받고 모험을 떠나 얻게 되는 깨달음은 번데기에서 벗어나 나비가 되는 과정이다. 나비가 되면 이상을 찾아서 훨훨 날아가 이상을 얻기까지 싸운다. 이때의 싸움은 매우 고독한 투쟁이다. 그래서 영웅은 고독하다. 기존의 틀도 버려야 되고, 기존의 행동습관도 버려야 한다. 나비가 자기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자기를 보호했던 기존 세계와 단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독한 것이다. 그리고 영웅은 성공을 거둔 후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과정은 영웅에게 또 다른 시련이지만, 그의 귀환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이 될 것이다).

영웅이 되고 못되는 차이는 결단에 달려 있다. 익숙한 기존의 삶의 방식에 안주하여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항구를 떠나 험한 바다로 모험을 떠나 환희와 자기 성장을 맛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린다면, 또 모험에서 자기 변화에 성공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웅이 천개의 얼굴을 갖는 이유가 된다.

영웅 중에는 예수님처럼 순교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영웅이 있는가 하면, 폭군으로 변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영웅도 있다. 조셉 캠벨은 “어제의 영웅이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면 내일은 폭군이 된다.”고 하였다. 오만이란 자기우상에 빠지기 때문이다. 오만에 빠진 자치고 패가망신하지 아니한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8. 예수님의 공생애노정(눅 4:14-30)

샘플이 된 예수님의 노정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테마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란 것이다. 일군이 많고 각기 다른 지역들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다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분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 예수님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성령님은 그분의 제자들의 삶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제주도에 올레 길이 23개 정도 있다. 모든 길에는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다. 만일 제주도 땅을 한 날에 다 밟기를 원한다면, 23명이나 혹은 23개의 탐방 팀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각기 다른 코스를 선택하여 땅 밟기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갈릴리를 출발하시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땅 밟기를 하셨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노정은 기독교가 자랑하는 제1코스 또는 첫 번째 길이다. 이 코스의 백미는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곧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십자가의 길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밟아보기를 원할 것이다.

누가의 생각은 이렇다. 비록 장소나 시간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밟는 그 길들은 모두 제1-1코스 혹은 제1-2코스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코스의 이름을 제2코스 혹은 제3코스라고 하지 않고, 제1코스만 고집하는 이유는 모든 코스가 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제1코스는 십자가의 길을 말한다. 지난 2천 년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밟아온 코스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이었다. 예수님이 밟았던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에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길, 바울의 길, 바나바의 길, 누가의 길 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에 이어 제자들의 선교노정이 이어져 나가고,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노정이 이어져 나간다.

이 노정들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이 누가의 확신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은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선교노정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제한되었지만, 팔레스타인 밖에서 이뤄진 바울의 선교노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누가의 입장이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배척을 당하셨듯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바울도 동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배척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은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밟아야할 구원의 길이요, 샘플이며, 모범적인 길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4장 14-44절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맞물려 있다. 누가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다.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그가 동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배척들이 이미 수십 년 전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와 고향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배척을 당하신 사건 속에 예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의 예리한 판단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밟았던 노정은 예수님이 걷고 쟁취하셨던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다.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노정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 구원사역의 당위성이 바울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확고한 신념은 하나

님께 구원을 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신분 색깔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값을 쳐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는 것이었다. 누가는 나사렛회당에서의 사건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입는다는 바울의 신념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나사렛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19절, 즉 이사야 61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하셨을 때만 해도 목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모두 감탄하였다. 그러나 23-27절의 말씀을 이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굉장한 반전이였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의 혜택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때문이었다.

레위기 25장 8-12절과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오는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란 과격한 개혁 또는 총체적인 경제적 재분배를 말한다. 종들은 자유를 얻고, 모든 부채와 채무는 탕감되며, 저당 잡힌 토지는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경작지는 일 년간 쉬게 하는 제도이다.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갖지 못한 자들에게 50년마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희년제도는 성경에나 있는 이상(理想)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실천되지 못한 죽은 제도였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이상으로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희년을 선포한단 말인가? 대체사장만이 할 수 권한인데, 자기가 누구기에 이런 혁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해서 분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빛에 쫓들리던 사람들, 자기 땅이 없는 농사꾼들, 노예와 같이 갖지 못한 자들은 희년을

실시하면 크게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희년의 축복을 맞이할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렙다의 과부나 시리아의 나아만과 같이 믿음을 지닌 이방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데 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대로, 갖지 못한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가 치솟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상속권이 토라울법을 엄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과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박해받으신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성령님이 이끄신 예수님의 노정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 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1절)란 말로 시작되고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14절)로 시작되고 있다. 이 두 구절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노정의 첫발을 내딛으실 때부터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이끄심 혹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점이다.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광야에 계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에게 이끌리셨고, 14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노정을 밟으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셨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그분의 노정을 따라 우리 자신의 노정을 밟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

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우리만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겠는가? 신성을 타고나신 예수님조차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겹게 완주한 그 길을 육신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이 완주할 수 있겠는가?

누가가 전한 강력한 메시지는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라는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시대가 도래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시대가 도래했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누가는 신약성경을 쓴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성령'과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17회, 마가복음에 23회, 요한복음에 21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8회나 나온다. 사도행전에 쓰인 69회까지 합하면 무려 107회나 된다. 그만큼 누가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많이 강조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중도에서 낙오되지 않고 천로역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님이 이끈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을 성도들에게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노정을 지탱시킨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도,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모 비아토르'(나그네)의 험난한 삶, '비아 돌로로사'의 골고다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님은 산소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보증하시며, 인(印)치시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굴절의 빔처럼 우리 가운데 따스하게 내재하시며, 의사처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고, 변호사처럼 억울한 일을 도우시며, 상담자처럼 연약함을 도우시고, 교사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중생의 기쁨을 얻게 되며, 시련을 극복하고, 천국의 축복을 미리 맛보며 체험하게 된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막연히 주의 재림을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신 세상으로 바꿔감으로써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9. 예수님의 품성(稟性)(눅 4:31-44)

기독교 태동의 산실

예수님과 바울이 전도장소로 빈번하게 찾았던 곳이 유대교 회당들이었다. 그곳에서 지지자도 얻고 배척도 당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 회당들은 기독교 태동의 산실이였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예배를 대신할 회당예배가 생긴 것은 기독교라는 옥동자를 잉태키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였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장소는 성막 한 곳뿐이였다. 성막은 조립과 분리와 운반이 가능한 이동 성전이였다. 히브리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369년간 성막은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30분 정도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Tel Shiloh)에 있었고, 당연히 실로는 야훼신앙의 중심지였다. 이 성막은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다.

사울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시대를 열면서 남북갈등이 점화되었고, 급기야 솔로몬 사후에는 남북이 분열되고 말았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곧 남북갈등의 상징이였다. 남북분열과 함께 실로의 성막시대도 막을 내렸다.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는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블레셋에 넘어가기도 했고, 이곳저곳에 방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솔로몬이 주전 960년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비로소 정식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북왕국은 벨엘과 단에 성소를 지었으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예배자들의 행렬을 막았다.

주전 586년 바벨론제국의 대침으로 솔로몬 성전시대가 막을 내렸다. 페르시아제국시대가 열리면서 유배되었던 일부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고토에 돌아와 천신만고 끝에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마리아인들도 주전 400년경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유일하고 참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통치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주전 128년에 파괴되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과 성전예배를 복원시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믿고 있다. 이토록 막힌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무소부재하시며,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발전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유배되고 나면서부터였다. 성전이 훼파되고 없을 뿐 아니라, 몸은 이미 머나먼 이국땅에 묶여 있으니 더 이상 성전예배만을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세 이상의 남성 열 명 이상만 모일 수 있다면, 문자적으로 거의 2평방킬로미터마다 한 곳씩 기도처를 세우거나 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도처가 바로 유대교 회당들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안식일에는 물론이고 매일 세 번씩 제사 대신에 쉘모네 에스레이 기도문을 암송하였고, 토라를 낭송하고 해설을 들었다. 그러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누가문서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바울이 자주 회당에서 기회를 얻어 말씀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회당이 바로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人性)

누가가 독자인 헬라인들에게 전하고자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인자(人子)로서의 모습이였다.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혹은 인성(人性)적인 모습을 부각시

켰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선포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인간을 향한 연민 때문이었다. 다른 복음서들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14개의 선교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소개된 다수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정보다는 인성에 관한 글로 읽히곤 하였다.

인자(人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써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호칭이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5:24)이 있고, 안식일의 주인(6:5)이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분(21:27)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실 분(22:69)이시지만, 누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7:34)로서의 인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19:10),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인자(24:7)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마태복음에 29절, 누가복음에 27절에 걸쳐 인자란 말이 쓰였다. 이 말은 시편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도 쓰였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100회 이상 인자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시편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호칭할 때(8:4; 80:17), 위경인 에녹1서에서는 초인적 존재로 선택받은 자를 말할 때, 랍비 아키바(Akiba/132-135)는 다윗왕국의 메시아를 말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인자와 같은 이’란 말을 각각 두 번(7:13, 10:16) 사용하였다. 이들 묵시록은 모두 종말론적인 왕국의 통치자를 인자로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이 ‘인자’란 표현이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이란 점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호칭하실 때 쓰셨다는 점이다.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인자’란 호칭을 쓰지는 않았다.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호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그 이’ 또는 ‘선지자’와 같은 별칭들을 사용하였다.

인자호칭은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고(6:22, 19:10, 22:48), 둘째는 ‘오실 그이’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12:8, 17:22,30, 18:8;21:36). 여기서 ‘오실 그이’는 유대인들의 희망(Ha-Tikvah)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모쉬아크(Moshiach)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이시다. 계시록에서 말한 ‘인자’란 바로 이 재림주를 말한다. 이밖에도 마가복음에 쓰인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수난자 인자’가 있다(막 8:31, 9:9,12,31, 10:33,45, 14:21,41). 수난자 인자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메시아관이다. 이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영혼구원이다. 지금까지에서 보듯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품성은 신정보다는 인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神性)

그렇더라도 누가는 복음서 초반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31-44절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자들로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이 열거되었다.

유대교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보았다. 34절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고 말하고 있다.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서 말문을 닫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은 귀신들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하신 데 있다.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온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고 하였다. 더욱 진기한 것

은 39절에서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고 계시다는데 있다. 질병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질병은 육체의 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물리쳐야할 악한 세력 이요, 마귀의 권세이다. 예수님께서 병을 향해 꾸짖으신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을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할 악한 세력으로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마귀나 귀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1-4장까지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1:32) 혹은 “하나님의 아들”(1:35)이란 표현이 있다. 누가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1:76),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6:35)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8:28)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로써 “내 주의 어머니”(1:43)란 표현도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 “주”(Lord)란 표현을 40번 이상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표현이 “그리스도 주”(눅 2:11)이며, 대부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씀으로써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2:49)이라 하였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으로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3:22)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도 공회원들 앞에서 수궁하셨다(22:70)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게 하는 표적이란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 행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적의 결과라고 말한다.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놀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경청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 이런 기적의 목적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10. 예수님의 관심(사명)(눅 5:1-39)

빈 배와 교회(복음)

예수님의 관심(사명)은 떡(빵)과 복음 또는 인간과 교회에 있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과 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열두 명을 뽑아 사도로 임명한 것이 5-6장의 내용이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중간 중간에 베푸신 기적들과 기도하신 모습들을 삽입하였다.

누가복음 5장 1-11절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부름을 받을 당시 그들의 배들은 모두 빈 배들이었다. 5절을 보면, 어부들이 떡(빵)을 얻기 위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 5장 5절의 말씀은 6장 12절의 말씀에 대조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물질을 하려고 호수로 가지지 않고,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얻으신 것이 12사도들이었다. 이 열두 사도들은 6-7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는 말씀처럼, 장차 교회라는 배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암시한 말씀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밤샘기도로 이뤄진 것임을 말한다.

호수는 세상이고, 배들은 교회들이며, 고기는 성도들이고, 어부들은 교회의 일꾼들을 상징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세계에서

큰물 즉 바다, 호수, 강은 세상과 음부 즉 죽음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어 음부의 세계로 가려면 비통의 강, 시름의 강, 불의 강, 망각의 강을 차례대로 건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성경에서도 큰물 즉 바다, 호수, 강은 사단이 지배하는 최악 세상이거나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이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며, 요나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건짐을 받고 있고, 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하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그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크투스”(ΙΧΘΥΣ, ichthus)이다. 공교롭게도 “이크투스”의 다섯 글자는 각각 ‘예수’(Jesus), ‘그리스도’(Christos), ‘하나님의’(Theos), ‘아들’(Huios), ‘구세주’(Sojomete)의 첫 글자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즉 ‘이크투스’가 상징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물에 걸려 배에 오른 수많은 물고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에 입문한 자들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로 삼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빈 배인 교회에 관심을 갖고 밤샘기도를 하였고 제자들을 통해서 만선을 이루셨다.

빈 배와 인간(뺨)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출렁임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헛수고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배고픔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

들의 오랜 병듦의 상징이다. 그런 빈 배에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다.

빈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던 어부들의 상징이다(1-11절). 빈 배는 문둥병자의 상징이다(12-16절). 빈 배는 중풍병자의 상징이다(17-26절). 빈 배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의 상징이다(27-39절).

빈 배는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한다. 빈 배는 만선의 기쁨을 원한다. 빈 배는 수고한 보람을 원한다. 빈 배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고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한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빈 배는 누군가의 깊은 관심을 원한다. 빈 배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길 원한다. 빈 배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누가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셨고, 중풍병자에게 영혼과 육체의 질고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빈 배에 관심을 갖고 채우셨을 뿐 아니라, 빈 배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빈 배들을 가득 채울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적재적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36-39절). 흰 옷에 새 옷 조각이 적절치 않고, 새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가 적절치 않듯이,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의 적재적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서야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머물러야할 주소는 어디인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건강한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가득 채워진 현장이 아니라, 비어 있는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배부른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예수님은 빈 배들을 보시고 그 배들이 채워져야 할 것을 아시고 만선을 이루게 하셨다(1-11절).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엎드려

낮기를 구할 때, “손을 내밀어” 고치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 적한 곳을 찾아 가셔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기도하셨다(12-16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낮기를 원하여 지붕의 기와를 벗기기까지 했을 때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의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영혼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 그가 원하는 떡(빵)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복음(교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17-26절).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멸시의 대상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 즉 떡(빵)과 건강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복음(교회)과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27-32절).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도록 만드신다.

빈 배와 인간다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회복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백정은 칠천반(七賤班)이라 불리는 포졸, 광대, 백정, 고리장(나무껍질을 벗겨 장을 만드는 사람), 무당, 기생, 갓바치(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 일단 백정의 집에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은 일체 가질 수가 없었고,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백정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조선시대 40만 백정들의 운명이었다.

박성춘이란 사람도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정부를 상대로 백정해방운동을 펼쳐서 얻은 이름이었다. 백정인 그에게 이름이라곤 없었다. 단지 박가로 불릴 뿐이었다. 그러던 그가 장로가 되어 왕손(王孫)인 이제

형(李載馨) 장로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교회를 섬겼다.

박성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던 자신을 선교사 무어와 왕(王)의 주치의(主治醫) 에비슨이 천민인 자신을 자주 찾아와 치료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고 정식교인으로 출석하자 먼저 다니던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 양반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우는 큰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박성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백정들을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3년 후인 1898년에는 백정교회와 갈라섰던 양반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백정출신 장로와 왕손 장로가 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였다.

백정 박성춘에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다움을 의미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언문과 산술을 터득하여 장로가 된 박성춘은 백정들의 계몽과 해방에 발 벗고 나섰다. 그의 노력으로 '인간됨'의 상징이었던 '갓과 망건'까지 백정들도 쓰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백정의 신분을 벗은 박성춘은 은행가로 변신했고, 아들 봉출도 세브란스의학교를 나와 박서양이란 이름의 의사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박성춘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인간다움의 회복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들, 병자들, 세리들은 죄인취급을 당했던 빈 배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간성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며 신분이 상승하는 채움(회복)이 일어났다.

인간다움의 채움(회복)은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병들어 죽어가던 박성춘에게 구원의 손길을 제공했던 선교사 무어와 왕의 주치의 에비슨처럼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때 일어난다.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

을 내렸지만 건진 것이 없었던 어부들의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허탈과 허기는 어부들의 빈 배만큼이나 공허감이 클 수 있다. 깊은 밤처럼 어둡고, 거센 파도처럼 술렁이는 서글픈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는 자는 긍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이런 현실을 꿰뚫어 보고 손을 내미는 자는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1.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조직(눅 6:1-19)

손 내밀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하였지만 허탕을 쳤던 것의 대칭은 6장 12-13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는 말씀이다.

하나님나라의 일, 복음의 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일, 빵의 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었던” 어부들을 불러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가? 하나님의 일 때문인가, 사람의 일 때문인가, 가족을 위해서인가, 자기만족을 위해서인가? 기도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수고한 보람을 얻고 있는가, 마냥 허탕만 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삶의 목적, 방향, 소명, 사명,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숙고하고 성찰하는가?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의 대칭은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한 말씀이다. 여기서 문둥병자와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5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후에, 또 5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 후에 일어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삶의 무게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가?

“손을 내밀어”와 “네 손을 내밀라”에서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손을 내미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역학(dynamics)이 있는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디다”와 1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시너지(synergy)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나병이 곧 떠났다”는 13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5장 18-26절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협력자들의 돕겠다는 마음과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고 싶다는 마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합하여 만든 시너지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25-26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반대의 결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손을 내밀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18:9).

생명 구하기

5장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의 대칭은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씀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안식일

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지라도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일을 중단해야하는 안식일일지라도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하셨다.

안식일준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써 제4계명에 근거한다(출 20:8-11).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출 20:10절). 셋째, 이 날에 하지 말아야할 일은 창조행위(Melacha)를 말한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창 2:2).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는 모든 창조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할 창조행위의 범주를 39가지로 이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출애굽기 31-35장에 언급된 성막(Mishkan)건축에 필요한 39가지 공정에 착안하여 만들었다. 성막구조는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막제조는 창조행위를 상징하므로 그 같은 창조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이유는 안식일 법에 ‘자르기’나 ‘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자르기’(Kotzair) 금지법은 안식일에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을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 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이었다.

또 6:11절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인

‘매듭풀기’(Matir) 금지법을 어기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을 보면,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분을 내며 책망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안식일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6장 9절에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의 참 뜻이었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을 뽑아 사도라 칭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특징으로써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에 이어서 ‘기도하기’를 볼 수 있다. 누가는 ‘기도하기’가 예수님의 생활습관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누가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하는”(19절) 능력이 예수님의 이 기도습관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누가는 마가와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한 부분,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는 것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고(3:21-22),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9:29)고 의도적으

로 기록하였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4:1), 병을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열 두 사도를 결정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동산에서의 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들 기도비유와 십자가상의 기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도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누가복음 6장 12-19절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실천해 보이신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 그리고 ‘기도하기’로 무장한 평화군(Peace Corps)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열두 명의 사도를 세우셨다. 여기서 긴 밤 지새우고 맞는 새 아침은 긴 암흑시대를 떠나보내고 새로 맞는 광명시대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의 사명은 다름 아닌 암흑시대를 떠나보내고 광명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다. 이 평화군의 선봉장들의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였다. 이들 가운데 시몬이 두 명, 야고보가 두 명, 유다가 두 명이었다. 17절을 보면, 이들이 평지의 전장(戰場)에 내려와 도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도열을 클로즈업시켜 보면, 평화군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맨 앞에 서셨고, 몇 걸음 뒤에 열 두 사도들이 도열하였으며, 또 몇 걸음 뒤에는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무리가 도열하였다.

이 평화군의 무장은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와 ‘기도하기’

였다. 그리고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군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었다. 18-19절은 싸움에 대한 결과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세상을 이길 힘이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롬(평화), 즉 손 내밀기, 생명 구하기, 기도하기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2.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강령(勅 6:20-49)

강령(綱領)의 내용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화군(Peace Corps)의 조직, 출정, 강령 등을 보여준다. 특히 17절은 이들 평화군이 평지(전장,戰場)에 도열(堵列)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평지란 저지대의 평지가 아니라 고지대의 평지를 말한다. 예수님의 활동무대였던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과 같은 연안마을들은 지중해보다 대략 210미터나 낮은 곳에 위치한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3km 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에 이르는 커다란 호수이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활동무대는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마을들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경로는 주로 북서 또는 북동 혹은 그 반대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를 타신 것은 아니다. 또 갈릴리 지역의 평균 고도가 500-700m 사이에 이르고, 갈릴리 호수 동북쪽의 너른 골란고원은 해발 1000m에 이른다. 이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호수와 호수를 낀 주변 지역들의 고도차이가 700m에서 900m 혹은 1200m에 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서서 바라본다면, 동서남북으로 주변이 모두 산으로 보일 것이다. 마태가 산이라고 한 지역을 누가가 평지라고 한 것은 지역이 달라서가 아니라 바라본 위치가 달라서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는 모세가 율법을 전수한 시내산을 염두에 뒀고, 누가는 평화군의 연병장(練兵場) 또는 전장(戰場)을 묘사한 때문이다.

1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장이신 예수님이 연단(演壇)에 서시고, 맨 앞줄에 열 두 사도 그리고 몇 걸음 뒤에 많은 수의 제자들이 도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임무(任務)는 암흑시대를 몰아내고 광명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들의 무장(武裝)은 하

나님의 살롬(peace of God) 즉 ‘손 내밀기,’ ‘생명 구하기,’ ‘기도 하기’이다. 그들의 적(敵)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훈령(訓令)하셨다.

누가가 6장 20-49절에 소개한 예수님의 훈령은 마태복음 5-7장에 실린 산상수훈과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이 거의 같다. 그렇지만 누가의 것이 30절에 불과한 반면, 마태의 것은 109절이나 된다. 절수로만 보면, 마태가 소개한 산상수훈의 28퍼센트에 조금 못 미친다. 그리고 마태가 산상수훈의 거의 모든 내용을 모아서 마태복음 5-7장에 집중시킨 반면, 누가는 내용의 일부를 그의 복음서 곳곳에 분산시켰다. 그러나 분산된 내용을 다 합치더라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분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태의 관심은 유대교의 모세오경에 능가하는 기독교의 복음과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소개하는데 있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많은 양의 비유와 말씀들이 소개되었다. 반면에 누가의 관심은 이방세계를 향한 평화의 복음,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과 “이방을 비추는 빛”(2:32)으로써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있었다. 그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14개의 선교비유를 비롯하여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자, 어린이,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어린 사역이 소개되었다. 마태는 율법에 의한 옛 질서를 대신할 메시아시대의 새 질서에 따른 새 윤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한 반면, 누가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자, 어린이,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것이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의 일부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의 길에서, 특히 이방지역인 데가볼리와 베레아에서 선포된 이유이다.>

강령(綱領)의 대상(對象)

평화군의 대강령(大綱領)은 애인(愛人) 즉 ‘인간사랑’이다. 누

가복음 6장 20-49절에 실린 예수님의 훈령(訓令)의 특징은 경천(敬天)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점이다.

누가복음 6장 20-49절에 실린 예수님의 훈령은 평화군이 실천해야 할 15개의 강령이다. 이 15개의 강령은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0-49절의 강령은 "너희"라는 2인칭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의 훈령을 듣고 있는 평화군의 용사들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17절)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훈령을 실행에 옮겨야 할 자들이다.

예수님의 훈령은 복(福)과 화(禍)의 선언으로 시작된다. 마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 8에 맞춰서 8복을 언급하였지만, 누가는 마태의 8복의 절반인 4복을 소개한 대신에 마태복음에 없는 4화를 추가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가 각각 네 개씩 병행되어 나타난다. '가난한 자'(20절), '주린 자'(21절), '우는 자'(21절) 및 '왕따 당한 자'(22-23절)는 복이 있고, 23절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였다. 이 복은 뒤에 이어진 15개의 강령을 실천하고, 35절에서, 받을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과 동일한 복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인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및 왕따 당한 자는 평화군의 용사로서 강령의 실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겪을 자들이다. 반면에 "부요한 자"(24절), "배부른 자"(25절), "웃는 자"(25절) 및 "칭찬을 받는 자"(26절)는 15개의 강령들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기준이 없다면,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왕따 당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거나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기준이 없다면,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당한 자는 예수님의 평화군의 용사인

그리스도인 자신일 수도 있고, 강령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당한 자이며, 또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당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평화군의 용사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평화군의 대강령(大綱領)인 애인(愛人) 즉 ‘인간사랑’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및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없거나 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및 칭찬을 받는 자란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강령을 실천하지 않거나 폄박하는 자들이다. 역사(歷史)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입증하듯이, 복과 화는 반드시 받을 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누가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23,26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번 언급하였다.

강령(綱領)의 실천방법

누가복음 6장 20-49절의 15개의 강령은 예수님의 평화군의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다. 이 강령들은 전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10개가 나온다. 1)원수를 사랑하라. 2)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3)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4)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대주라. 6)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7)구하는 자에게 주라. 8)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9)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10)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이 10개의 강령은 모두가 대인관계 혹은 이웃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애인(愛人) 즉 ‘인간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32-34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credit) 받을 것이 무엇이나?”는 “무슨 상급(reward)이 있겠느냐?”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35절에서 10개의 강령을 한 줄로 요약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면서 강령을 실천하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후반부 36-38절에 5개의 강령이 더 나온다. 11)자비로운 자가 되라. 12)비판치 말라. 13)정죄하지 말라. 14)용서하라. 15)주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며, 용서를 받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38절)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고, 주지 않는다면, 너희를 그렇게 행하도록 만든 기준, 잣대, 저울, 법률 등이 바로 너희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고,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38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

예수님은 39-49절에서 예수님의 평화군의 용사들이 강령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눈이 성해야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온전해져야 선생과 같아지며, 제 눈 속의 들보를 빼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낼 수 있다고 하셨다. 좋고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선하고 악한 사람도 그의 언행을 보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또 평화군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강령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48절에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으나 예수님의 강령을 듣고 실천하지 아

니하는 자는, 49절에서,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령은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며, 세상에 평강을 끼치는 일이란 것을 예수님은 친히 입증해 보이셨다. 예수님의 가치판단이 옳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이 입증한다.

13.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임무1(눅 7:1-17)

공평하게 주어지는 희년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평화군(Peace Corps) 임무가 희년선 포임을 보여준다. 마태는 109절이나 되는 긴 산상수훈 직후에 10개의 기적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과 능력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메시아이심을 소개하려 했다. 반면에 누가는 30절의 짧은 평지산상(平地山上)수훈 직후에 2개의 기적만을 소개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의 손 내밀어 생명구하기가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상관없이 이방인 백부장의 천한 종(노예)과 과부의 귀한 외아들에게 공평하게 펼쳐졌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은 믿음을 보신 때문이었고, 나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연민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종이나 외아들은 모두 사랑받는 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아픔이었다. 따라서 누가는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려는 자의 깊은 연민과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으려는 자의 믿음은 민족성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세 사람씩 두 쌍이 등장하고 있다.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이방인 남성, 유대인 과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 여인이었다. 또 다른 한 쌍은 병들어 죽어가던 종(노예), 이미 죽은 과부의 외아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었다. 이 여섯 사람은 민족성별 빈부귀천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로마시대의 종들은 조선시대처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노예들이었다. 전쟁노예들 가운데는 배운 자들이 많았고, 더불어 그들의 몸값은 보통노예들보다 훨씬 비쌌

다. 비숙련 노예는 120일 노동자 품에 해당되었지만, 의사, 교사, 기술자와 같은 숙련 노예인 경우에는 가격이 40배나 높았다. 로마에서는 헬라인 가정교사가 가장 값이 비쌌는데, 가장 값싼 노예와의 가격차가 무려 100배나 되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valued highly)는 뜻이다. 죽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이었다. “사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티모스’(entimos)로써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이란 뜻이다.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도 마찬가지이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보다 더 귀했으면 귀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인 과부에게 외아들은 삶의 의지요 희망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여성에게 ‘기업 무를 자가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였지만, ‘기업 무를 자’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다(룻 4:14). 다말과 나오미의 사례뿐 아니라, 과부에게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도록 한 수혼(嫂婚, Levirate marriage)법이 있었던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또 바리새인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잘못이 인정되지만, 그들은 민중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성품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누가복음 7장은 민족성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며 가치 있는 존재됨을 암시한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한 사실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기”(요 1:12) 때문이다.

믿음으로 얻는 희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3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이 이제 성취될 것과 그 희년의 복을 맞이할 자들이 독점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다면, 유대인일지라도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사렙다의 과부나 아람(시리아)의 나아만처럼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는 이 희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를 5-7장에서 설명하였다. 5장에서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의 상징이었던 빈 배에 가지셨던 예수님의 관심(사명)을, 6장에서 희년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군의 조직과 강령선포를, 그리고 7장에서 누가 희년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된 이방인 백부장(1-10절), 나인 과부(11-17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 여인(36-50절)은 누가 희년을 누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신 일은 엘리사가 이방인 나아만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4:27). 예수님께서 나인 과부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신 일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4:25-27). 또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 여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희년을 선포하신 글,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4:18-19)를 기억나게 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답과 설명도 이 희년선포에 준한 것이었다(18-35절).

누가는 희년의 복이 민족성별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듯이, 유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도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려 했다. 고향 나사렛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이 이제 성취될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62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

부장의 종을 치유하셨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고향이며, 갈릴리 호수가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써 회당과 세관이 있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및 세리 마태가 이곳 출신이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나서 언급된 곳이 “온 유대와 사방”이다. 17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진 것을 언급한 후에 18절 이하에서 유대 땅과 요단 강변에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누가복음 7장에 언급된 인물들은 신앙인들이었다. 60-80명으로 구성된 로마군 소대를 지휘했던 백부장은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 자’였다. 그에게는 회당을 지어 줄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나인 과부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여인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연민으로 주어지는 희년

누가복음 4장 27절과 열왕기하 5장 1-14절에 언급된 아람(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누가복음 7장 1-10절에 언급된 백부장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누가복음 7장 1-10절을 요약해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존경받는 로마군 장교였고, 유대교 장로들이 대신해서 종의 치유를 예수님께 청탁하였으며,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이뤄졌다. 열왕기하 5장 1-14절을 요약해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람을 구원한 존귀한 자였고, 그의 나병치유를 위해서 유대인 소녀가 엘리사에게 중재하였으며, 나아만은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이뤄졌다.

여기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들이지 아니한 것은 그가 하나님 경외 자로서 이미 배워 알고 있

는 유대교의 정결규례에 따라 혹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타리 법에 저촉되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집에서 부리는 종(노예)조차 아끼고 사랑하는 자의 태도로써 예수님을 배려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셨고, 또 친히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셨지만, 백부장의 이런 태도와 배려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9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셨다.

예수님의 칭찬은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 선민의식, 땅의 문자적 이해, 하나님 독점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카샤룻’(Kashrut) 음식법을 만들어 엄격히 지키게 하였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 당하고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당하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셨다.

누가복음 4장 25-26절과 열왕기상 17장 8-24절에 언급된 사렘다 과부는 누가복음 7장 11-17절에 언급된 나인 과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나인 과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외아들보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집중되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으며,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모친의 품에 돌려 보내셨다. 이것은 이미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의 상징이었던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건이었다. 5장에서 빈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었던 어부들의 상징이었다. 빈 배는 문둥병자의 상징이었다(12-16절). 빈 배는 중풍병자의 상징이었다(17-26절). 빈 배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의 상징이었다(27-39절). 누가가 예수님의

희년 사역으로써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연상시킨 것은 이방인, 여성,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되어져 왔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14.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임무2(눅 7:18-50)

세례 요한 이야기의 배경

누가복음 7장의 내용 가운데 가버나움 백부장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소개되었지만, 나인 과부와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었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고침(막 7:31-37)과 벳새다 맹인의 치유(막 8:22-26)가 마가복음에만 실린 이유나 이 두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실린 이유는 거의 동일하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은 대개가 저자들의 관심과 전하고자하는 메시지의 목적에 따라 예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렇다. 마가는 귀먹고 어눌한 자와 벳새다 맹인의 고침을 소개함으로써 영이(靈耳)가 열리고 영안(靈眼)이 열려야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 했고, 누가는 예수님의 평화군의 임무가 소외계층에게까지 희년선포 즉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히려 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도 예수님과 제자들인 평화군의 임무가 연민의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일임을 밝히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마 11:2-19)를 소개한 이유는 새천년시대 즉 메시아시대를 학수고대하는 민중의 절박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특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 11:5)는 말씀은 메시아시대의 개방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임신과 출생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인간의 역

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일군들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뤄져왔음을 말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관계로 보려하지 않고 성령님의 활동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뤄져갔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1:17) 자로, 예수님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분으로 소개되었다(1:71). 그 때문에 요한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3:16)라고 밝혔다.

새천년시대 즉 교회천국의 도래를 선포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히브리민족을 그 땅에 인도한 모세였던 것과는 달리, 희년선포 즉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종교박해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아와 엘리사였다.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숭배정책에 대항했던 선지자였다. 그리고 엘리아보다 두 배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는 쿠데타로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백성에게 평화와 야훼신앙을 되찾아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월등한 능력으로 희년선포 즉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 엘리아의 취임으로 엘리아가 퇴임했듯이, 예수님의 취임은 세례 요한의 퇴임으로 이어졌다.

“이 세대의 사람” 이야기의 배경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직책을 수행하시자, 세례 요한은 분봉 왕 헤롯 안디바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3:19-22), 참수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펼치시는 사역과 성격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

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게 하였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에서 누가와 마태가 추가한 곳은 각각 한 곳씩이다. 누가복음의 경우, 29-30절로써,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였는데, 침례를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씀이 추가 되었고, 마태복음의 경우, 11장 12절로써,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이 추가되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민중의 절박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민중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려는 것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할뿐이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할뿐이었다. 위로를 구할 곳이 없던 민중이 보려고 했던 것은 메시아였다. 가진 자들과 통치자들은 메시아시대가 오는 것이 영 달갑지 않았겠지만, 유대민중은 이미 600여 년간이나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 원했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예수님이 메시아 인자로서 민중에게 실현시켜 주고자 했던 ‘장차올 더 좋은 것’은 문자적이고 세속적이며 땅 중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이며 천국중심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었다. 예수님은 실재했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력하셨다. 이 갈등과 충돌을 잘 이해하려면 광야사막에서 있었던 모세와 히브리민족의 갈등과 충돌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저항, 인간적인 욕구들의 분출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

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고통의 땅 광야사막에 묻히게 하였다. 피리소리에 춤추지 않는 자들,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자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자들,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저렇게 말해도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광야사막시대에 모세를 불신하고 저항했던 자들과 동일한 패거리이다. 가나안 땅 정복대열에 끼지도 못하였고, 또 땅을 얻지도 못하였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저항하는 자들도 새천년왕국이든, 평화든, 희년이든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22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희년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것을 메시아시대의 특징으로 선포하셨다.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 이야기의 배경

유대인들은 낮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관습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인이, 38절에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

유대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정한 것(kosher)과 부정한 것(treyf)으로 나뉘었으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일지라도, 죄인과 창기와 세리를 포함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천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다. 이들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멀리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룩함 또는 의로움이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상식으로써 시몬이 자기 동네에 잘 알려진 죄를 범한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취한 행동을 옹계 보았을 리 만무하다. 시몬이 심중에 생각한 것은 단순히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전통이고 관습이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보존이 되듯이, 새 시대에는 새 패러다임, 새 가치관, 새 세계관, 새 사상이 필요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잘못 되고 낡은 생각을 탕감비유로써 깨우쳐 주셨다.

예수님의 탕감비유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한 가지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려함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밝히려함이였다. 예수님은 이미 5장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20)는 말씀을 7장 48절에서 여인에게도 하셨다. 또 50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위로하셨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말씀하셨다. 한 가지는 여인이 지은 죄를 질병과 동일시했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갚아야할 채무와 동일시했다는 점이다.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11장 4절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빛 지은, opheilonti, 오페일론티)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잘못을 저지른 죄, hamartia, 하마르티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지만,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오페일레마)을 용서한 것같이 우리의 빛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적었다. 헬라어 ‘오페일레마’는 경제적인 채무를 뜻한다. 마태처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을 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할 채무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행위는 죄를 사하고 빛을 탕감하는 행위와 동일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밥상에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선언하셨다.

34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 범한 여인의 접근을 물리치지 않으셨던 이유였다. 맛난 음식으로 대접한 바리새인 시몬보다 거룩한 척

하고, 의로운 척하며, 죄 없다고 빠기는 교만한 자들보다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많은 빛을 진 것처럼,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의 눈물의 회개를 예수님은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영접한 행위로 받아드리셨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롬 5:20)는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살았지만, 눈물로 회개한 여인에게 회년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다.

15.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훈련(눅 8:1-56)

평화군의 수련: 여성들의 헌신

그리스도의 평화군의 목적은 인류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여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복음사역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 평화군을 조직하셨으며, 강령을 선포하셨고, 임무를 설명하셨으며, 임무수행의 모범을 친히 보이시고 훈련시켜 파송하셨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미션수행의 모범을 친히 보이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병자들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마치 대학병원의 교수가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하는 레지던트들을 거느리고 병실을 찾아 회진하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한 여성들은 간호사들과 같다.

누가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한 여성들의 이름까지 열거해 놓았다. 2천 년 전 로마시대 때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2절의 “어떤 여자들”에서 보듯이, 여성과 관계된 일은 언급을 피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가는 “어떤 여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요 20:11-18)이었다. 막달라(Magdalene)는 지명으로써 예수님이 생전에 방문하신 적이 없는 갈릴리지방의 수도 디베랴에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전에 일곱 귀신들에 붙잡혀 제대로 미쳤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했던 여인이었다. 요안나는 '하나님의 은사'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집에서 관리자로 있었던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는 백합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들 여성들은 다른 여러 여자와 더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누가는 거의 20년간 바울과 동역했던 선교사로서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들을 섬겼던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여성들의 헌신이 당연히 있었고, 또 그러한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나라가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는 없고 의사만 있는 병원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교회 출석률을 보인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도왔던 여성들의 힘이 컸다. 이들 여성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수년을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가 대표적인 여성들이었다. 그밖에도 유오디아, 순두게, 뵤뵤 등이 있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빌 4:2-3) 자라 하였고,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이었던 뵤뵤를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보호자"(롬 16:1-2)라고 불렀다.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는 미모를 지닌 여성 사역자 테클라(Thecla)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이 실려 있다.

평화군의 수련: 활동의 목적

누가복음 8장 4-15절의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비유와 16-18절의 등경위에 뒤야할 등불의 비유는 평화군의 활동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다.

네 종류의 땅은 복음의 씨앗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암시

한다. 이 비유는 희년선포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다. 선포된 희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나라의 가족이 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드리지 않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사람, 복음을 받지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할 사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평화군의 희년선포 또는 복음전도 활동을 말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함이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목적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인 것처럼 또 씨를 뿌리는 행위가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함인 것처럼, 평화군의 희년선포 또는 복음전도 활동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하나님나라의 시민 또는 하나님가족의 식구를 늘리는 것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누가가 이들 비유에 연이어서 모친과 동생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한 것은 하나님나라가 민족혈통남녀노소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사렙다의 과부나 시리아의 나아만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될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을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희년이 선포된 하나님나라는 율법을 공유했거나 혈통을 공유했거나 이념을 공유했거나 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공유한 나라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나라(Israel)는 할례를 받고 613개의 계명들 또는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지키기로 맹세한 ‘계명의 아들들’ 또는 13세 이상의 남성들이다. 헬라인들이 생각한 나라(Polis)는 동일한 피 또는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다. 로마인들이 생각한 나라(Res Publica)는 정신을 공유한 자들이었다.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한 나라(Ekklesia)는 믿음을 공유한 하나님가족의 식구들이

다.

시내산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이후 주후 70년까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속주민으로 살아야했고, 그 이후 주후 1948년까지 1878년간은 속주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야 했다. 혈통을 중시했던 헬라인들은 지중해 연안 세계를 250년 정도 지배했고, 정신의 공유를 중시했던 로마인들은 500년 정도 지배하였다. 그러나 민족혈통남녀노소빈부귀천에 차별이 없는 나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공유한 기독교는 세계인들의 지배적인 정신으로 우뚝 섰고, 유럽세계를 1500년간이나 지배하였으며, 지금도 인류 최고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평화군의 희년선포운동이 그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사역이란 것을 강조하였다.

평화군의 수련: 가족의 의미

누가복음 8장 19-21절의 모친과 동생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평화군의 수련과정에서 참 가족의 의미를 교훈하신 것이다. 또 22-25절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 26-39절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군대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신 기적, 40-56절에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여성의 혈류증을 고치신 기적은 9장 1-6절에서 이뤄진 제자들의 파송 직전의 사건들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의 혜택을 과연 누가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4장 16-30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희년의 축복을 맞이할 자들은 민족혈통남녀노소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사렘다의 과부나 시리아의 나아만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희년 혹은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22-25절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 26-39절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군대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신 기적, 40-56절에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여성의 혈류증을 고치신 기적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첫째, 이들 기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평화군의 훈련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들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미션수행의 모범을 보이시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희년선포활동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질 사역이란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둘째, 이들 기적들은 사람들의 반응, 즉 배척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에서 이미 설명되어졌다. 씨를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고, 씨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있듯이,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치유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 사실은 또 하나님나라의 식구가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밝히신 모친과 동생들에 관한 말씀에서 이미 설명되어졌다.

22-25절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에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과 믿음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이 각기 다른 반응의 사례이다. 26-39절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군대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신 기적에서 “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날 것을 간구한 것과 귀신 나간 사람이 자기에게 이뤄진 큰일을 온 성내에 전파한 것이 각기 다른 반응의 사례이다.

40-56절에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여인의 혈류증을 고치신 기적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사람을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희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참 가족이란 점을 말해준다.

16. 예수님의 평화군(平和軍) 파송(눅 9:1-9)

파송의 목적

누가복음은 총4부로 되어 있다. 1-3장은 서론부분이고, 4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스라엘 북부지역 갈릴리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갈릴리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시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역사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 평화군을 조직하시고 훈련하신 일이었다. 평화군의 임무는 빈배처럼 외롭고 흔들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지친 이들에게 회년을 선포하고 만선(滿船)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신 이야기이다. 이 오름(aliyah)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 24장 가운데 차지하는 분량은 무려 10장, 42퍼센트이다. 이 오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었다. 제자들의 길도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며,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한다. 이것이 9장에서 제자들의 파송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의 행진이 동시에 시작되는 이유이며, 10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중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는 이유이다. 나머지 19장 45절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한 주간의 행적이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파송은 6장의 평화군의 조직과 강령, 7장의 임무, 8장의 훈련에 이은 실습이다. 여기서 파송 받은 제자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다. 하늘 예루

살렘으로 오름의 행진을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다. 1-2절의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말씀에 파송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샬롬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고 보았다. 이 하나님나라운동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 무장한 평화군의 활동으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평화군을 조직하시고 강령을 선포 하시며, 임무를 부여하시고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다.

7-9절은 갈릴리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하나님나라운동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 헤롯 안디바는 세상나라와 세상의 일 즉 돈과 명예와 권세를 좇는 사람들의 대표이다. 헤롯 안디바는 먹고 입고 쓸 것이 풍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나라운동이 흑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당황스러워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입고 쓸 것이 부족한 떠돌이 전도자들이었지만,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나라운동에 힘쓴 것을 보여준다. 이 하나님나라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평화군을 조직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로 덧입히시며 하나님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셨다.

파송의 긴박성

예수님은 3절에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 대신 1절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6절에서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또는 복음의 일과 세상의 일을 명확하게 선을 구어 구분 지으셨다. 그러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며 쓰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이다.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 희년선포의 긴박성, 복음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가지지 말며”는 당장 가되, 지팡이, 배낭, 빵, 돈 또는 여벌옷을 챙기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지금 모습 그대로 신속히 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은 평화의 복음을 수용한 자들로부터 공급될 것이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다. 전도자는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비울 때 그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소유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크게 의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세속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현명한 행동이다.

제자들 또는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가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불필요했을 수 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의 준비가 불필요했을 수 있다. 누가복음이 쓰이고 20-30여년이 지난 주후 100여년 경에 시리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쓰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 문제(11장 3-12절)와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 공양(13장)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떠돌이 목회자는 하루나 길어도 이틀까지만 머물러야 하며,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를 거짓 목회자로 봐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하며,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를 거짓 목회자로 봐야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성도들은 불박이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수확의 만물을 목회자에게 줘야 하며, 만일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물은 거둔 자가 소유주가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밝힌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돈은 필수항목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써 이뤄진다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며, 만선의 기쁨을 준다는 데 있다.

파송의 연속성

누가복음 9장 4-6절은 앞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배척과 영접에 관한 말씀과 행위들의 연장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셨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큰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더라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희년선포 활동은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활동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배척과 수용으로 갈렸다. 8장에서 보았듯이 선포된 메시지를 입증할만한 놀랍도록 큰 능력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병존한다.

사람들의 반응은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에서도 이미 설명되어졌다. 씨를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고, 씨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있듯이, 선포된 메시지를 입증할 큰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치유 받고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활동에도 그와 같은 반응들이 있을 것을 명심토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희년의 소식을 수용한 자들의 것이 될 것

이고, 그들의 삶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희년의 복이 누려지며, 만선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적 후원으로 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은 온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지방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터는 습관이 있었다. 건조한 기후와 비포장 도로 때문에 옷이나 신발에 많은 먼지가 내려앉기 때문이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을 집안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눌 뿐 아니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밖에서 흙먼지를 발로 밟은 순간부터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있다가 집안에 들어올 때나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를 떨어야했을 것이다.

그러나 5절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행 이상의 것, 즉 제자들을 깊이 배려하신데서 나온 말씀으로써 희년의 선포를 수용하지 않거나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자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뜻일 수 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책임이 전도자에게 있지 않고, 배척자에게 있으므로 푸대접받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일 수 있다. 또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는 행위는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살후 3:13).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고(갈 6:9), 중국에는 그것이 “영광”(엡 3:13)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영광이란 것이 누가의 핵심 메시지이다.

17. 누가복음 4-9장의 만선(滿船) 이야기(눅 5:1-13)

만선의 기쁨: 예수님을 대위야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의 배가 있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배였다. 이 쓸쓸하고 처량한 배에 예수님의 관심이 쏠렸다. 물결에 출렁이며 내는 삐걱 소리, 그 소리가 뭔가를 갈망하고, 애원하는 호소란 것을 아셨다. 누가복음 4-9장은 이 삐걱 소리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병든 자, 죄지은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버림당한 자의 외침이란 것을 밝혀준다.

누가복음 5장의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의 상징이다. 인간들의 오랜 출렁임의 상징이다. 인간들의 오랜 헛수고의 상징이다. 인간들의 오랜 배고픔의 상징이다. 인간들의 오랜 병듦의 상징이다. 그런 빈 배에 예수님의 시선이 꽂혔다.

누가복음 5장의 빈 배는 그릇의 상징이다. 37-38절에 언급된 가족부대가 그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낡은 가족부대와 새 가족부대가 언급된 것은 그릇의 변화, 낡은 것이 새 것이 되고, 병듦이 건강함이 되며, 죄인이 성도가 되고, 주린 자가 배부른 자가 되며, 우는 자가 웃는 자가 되고, 버림당한 자가 위로받는 자가 되며, 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나라가 그들의 나라로 바뀌는 변화가 필요한 그릇이다.

예수님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는 빛과 생명과 평화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시어 평화군(a peace corps)을 조직하시고, 강령을 선포하시며, 임무를 설명하시고, 미션수행의 모범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셨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4-9장의 기록이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팬에 해당되는 구경꾼이 있고, 그 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다. 이 어부들은 밤샘을 했지만, 빈 배로 아침을 맞은 실패자들이고, 예수님께 냉담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빈 배와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태웠고,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滿船)을 체험하였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계기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꿨다. 냉담했던 자에서 수제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부들이 밤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그것도 만선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바로 버렸고, 심지어 생업도구인 배까지도 만선을 이룬 물고기까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점이다. 예수님을 배에 태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거나 만선체험 후 “깊은 데”가 무얼 뜻하는지 알게 되었거나 천직을 발견했거나 만선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은 아닌지 연구해볼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누가복음 5-6장에는 비교해 볼만 것들이 있다. 빈 배와 만선을 이룬 배, 어부들의 밤샘 수고와 예수님의 밤샘 기도, 그물과 같은 생업도구를 챙긴 행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행위가 그것들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빈 배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빈 배는 어부들이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밤샘그물질이 가져온 결과는 헛수고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 배에 모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만선의 기쁨이 그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만선의 기쁨: 손을 내밀어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던 것의 대칭은 6장 12-13절에서 “예수께서 ...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가? 하나님의 일 때문인가, 세상의 일 때문인가, 우리는 과연 수고한 보람을 얻고 있는가, 마냥 허탕만 치고 있는가, 우리가 밤을 지새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삶의 목적, 성과, 소명, 사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의 대칭은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한 말씀이다. 여기서 문둥병자와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5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후에, 또 5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암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아야할 것인가? 우리를 짓누르고 지치게 하며 탈진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손을 내밀어”와 “네 손을 내밀라”에서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손을 내미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역학이 있는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와 1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시너지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나병이 곧 떠났

다”는 13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 또 5장 18-26절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협력자들의 돕겠다는 마음과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고 싶다는 마음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합하여 만든 시너지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25-26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람, 예수님, 하나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눅 2:14) 보상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휘방꾼이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이 될 수도 있으며, 일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만선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고, 빈 배를 채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선의 기쁨: 생명을 살려야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출렁임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헛수고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배고픔의 상징이다. 빈 배는 인간들의 오랜 병듦의 상징이다. 그런 빈 배에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다.

빈 배는 밤샘수고를 했지만 허탕을 친 어부들의 상징이다(5:1-11절). 빈 배는 문둥병자의 상징이다(5:12-16절). 빈 배는 중풍병자의 상징이다(5:17-26절). 빈 배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의 상징이다(5:27-39절). 그러나 빈 배는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한다. 빈 배는 만선의 기쁨을 원한다. 빈 배는 수고한 보람을 원한다. 빈 배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고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한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

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빈 배는 누군가의 깊은 관심을 원한다. 빈 배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빈 배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누가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셨고, 중풍병자에게 영혼과 육체의 질고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빈 배에 관심을 갖고 채우셨을 뿐 아니라, 빈 배의 소유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또 다른 빈 배들을 채우도록 하셨다.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적재적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5:36-39절). 헨 옷에 새 옷 조각이 적절치 않고, 새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가 적절치 않듯이,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의 적재적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건강한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가득 채워진 현장이 아니라, 비어 있는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배부른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예수님은 빈 배들을 보시고 그 배들이 채워져야 할 것을 아시고 만선을 이루게 하셨다(5:1-11절).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엎드려 낫기를 구할 때, “손을 내밀어”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적한 곳을 찾아 가셔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기도하셨다(5:12-16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낫기를 위하여 지붕의 기와를 벗기기까지 했을 때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의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영혼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 그가 원하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5:17-26절).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떨시의 대상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 즉 떡(빵)과

건강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복음(교회)과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5:27-32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만선의 기쁨은 또 어떻게 오는지를 성찰하게 하신다.

18. 예수님의 신분노출과 십자가의 길(눅 9:10-50)

신분노출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Christ)임을 밝히신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순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와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개종침례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다. 이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침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침례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요한의 침례와는 성격이 다른 '그리스도 임직'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인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더더욱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이 받으신 침례는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기 위한 기름부음 즉 임직이었다. 구약시대에 올리브기름으로 하던 것이 침례의 물로 바뀐 것인데, 올리브기름이나 침례의 물은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

는 외적 물적 표지일 뿐이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안수하여 왕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신(神)이 그들 위에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행적은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중요한 연관이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직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다. 그 이전의 활동은 갈릴리지역에서 이뤄졌고, 활동의 내용은 이 땅에 평화와 희년(禧年)과 만선(滿船)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평화군으로 훈련시켜 파송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평화와 희년(禧年)과 만선(滿船)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순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야 완성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Christian)임을 세상에 밝힘으로써 시작하는 삶, 즉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희년과 만선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 삶이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십자가의 삶 혹은 고난의 삶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Christ)이심을 세상에 밝히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은 승리요 영광이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영광을 받으실 때"(요 12:23)로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눅 9:51)의 때로 밝혔던 것이다.

신분노출과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본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표지(sign)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권면하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라고 권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배교의 위협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 둘째는 십자가를 진 후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수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主)로서 높임을 받으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는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자기의 십자가”(19:17)라는 표현을 썼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마 16:24; 막 8:34; 눅 9:23)를 강조하였는데, 누가는 여기에 “날마다”란 낱말을 덧붙였고,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의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당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했던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여 오르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신앙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복음서 저

자들은 이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도록 설교하였다.

복음서의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신앙생활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자기 십자가 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신앙의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승리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다. 삶 자체가 십자가이다. 생로병사 자체가 고난의 십자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의 말씀처럼,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다(롬 5:3-4).

신분노출과 갈릴리사역의 마무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언급과 예수님의 신분노출과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점이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의 수난에 대해서 세 차례 예고하셨다. 이 세 차례 수난예고를 처음 소개한 저자는 마가이다. 그렇지만 마가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또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각각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들을 마태와 누가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신분노출과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빵의 문제와 세상의 일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영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고, 영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진 후에야 비로

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강조할 목적에 사용하였다.

누가복음 9장 10-50절은 마태복음 14-17장까지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여기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눅 9:10-17, 마 14:13-21), 메시아신분 노출(눅 9:18-21, 마 16:13-20), 제1차 수난예고(눅 9:22-25, 마 16:21-26), 주의 재림에 관한 예고(눅 9:26-27, 마 16:27-28), 산에서 체험한 신령한 변화(눅 9:28-36, 마 17:1-8),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소년의 이야기 (눅 9:37-43, 마 17:14-20), 제2차 수난예고(눅 9:43-45, 마 17:22-23), 수난예고 후 누가 크냐를 놓고 벌인 논쟁(눅 9:46-48, 마 18:1-5),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잘못된 열정을 책망하신 내용이다(눅 9:49-50).

이 부분의 기록에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및 마가복음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따로 기도하실 때”를 강조한 점, 9장 23절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날마다”를 추가한 점, 산에서 체험한 신령한 변화 즉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는 체험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발생된 일로 강조한 점이다. 누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또 신령한 체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자신을 ‘그리스도인’(Christian)으로 정체를 밝힌 후부터는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삶은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삶이고, 이 땅에 평화와 희년(禧年)과 만선(滿船)의 기쁨을 주는 삶이다. 그 삶이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십자가의 삶 혹은 고난의 삶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밝히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은 승리요 영광이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영광을 받으실 때”(요 12:23)로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눅 9:51)의 때로 밝혔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는 하나님의 대전(大殿)에 올라 생명의 월계관을 받아쓰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계 3:21).

19.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1(눅 9:51-56)

오름과 생명의 일

유대인들은 ‘오름’을 ‘알리야’(alayah)라고 부른다. 특히 이 오름은 ‘예루살렘 시온으로의 오름’(ascension to Zion)을 말한다. 지역의 높낮이와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오름이다. 예루살렘이 다윗왕국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전국에 단 하나뿐인 성전(聖殿)이 세워졌던 성지(聖地)이며,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고, 석회암으로 된 해발 760미터 고지에 자리하고 있어서도 그렇다. 다음 장에 소개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10:30)까지는 약 30킬로미터이며 내리막길이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미터나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루살렘까지의 고도가 무려 1020미터에 이른다. 만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예수님처럼 도보로 오른다면(18:35-19:10),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까지를 도보로 오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51절)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북쪽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하셨다. 직선거리로도 130여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였다. 예수님 당시 도보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한다. 당대의 사람들이 하루 30킬로미터씩 걸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도보거리는 18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생애 마지막을 보내신 기간도 6일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까지의 기간이 두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는지, 몇 킬로미터나 걸으셨는지는 아

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여행은 주후 30년 겨울과 봄 사이에 이뤄졌고, 유월절을 일주일 앞둔 니산 8일 또는 양력 3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예루살렘외곽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써 이곳 갈릴리에는 해수면보다 무려 210미터나 낮은 곳에 5천만평이 넘는 큰 호수가 있다. 물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험몬산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며 37종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겨울에 집중되고 연평균 200~500밀리미터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담수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험몬산에서 유입 받은 깨끗한 물을 남쪽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흐려 보낸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젖줄이다. 이 강의 길이는 320킬로미터나 되지만, 직선거리로는 96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이 강의 특징은 낙차가 크고 협곡이어서 배가 다닐 수 없다. 그 대신 도보로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 60여 곳에 이른다.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물이 생명체를 살리듯이 예수님의 활동은 사람들을 씻기고 위로하며 고치고 살려냈다. 마치 갈릴리 호수가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 보내듯이 희년과 만선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흘러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시고 파송하셨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물길인 요단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오름과 죽임의 일

요단강 하류인 남쪽에 유대지방이 있었다. 이곳에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거룩한 성이 있다. 예루살렘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시온 산성, 다윗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정의의 성, 믿음의 성, 평화의 성, 아름다운 성 등이 그것들이고, 문자

적으로는 평화의 성이란 뜻이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소이며, 가장 먼저 교회가 설립된 장소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사해가 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21미터나 낮은 곳에 있는 2억5천만평 크기의 염해이다. 염해에서 불과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는데, 염해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여리고는 요단강이 근처에 있고,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여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등 온갖 작물이 풍성한 곳인 반면 염해는 사막이며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死海) 즉 죽음의 바다이다. 이 죽음의 바다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르셨다.

갈릴리호수에서 넘쳐흐른 물이 요단 협곡을 따라 흐르다보면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흘러들어온 물을 가두는 죽음의 바다이다.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흘러들어온 물은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높은 기온에 수분을 빼앗겨 염도가 일반 바닷물보다 열 배나 높은 곳이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사해(死海)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칼슘과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아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사해는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수면보다 390미터 정도 낮은 곳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30여 미터나 더 낮아져서 해발 마이너스 421미터에 머물고 있고 크기도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1930년보다 32미터나 더 낮아진 수치다. 이유는 요단강 곳곳에 댐을 설치하여 가둔 물을 농업과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심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사해가 줄어들면서 염분 층이 빗물에 녹아내려 '싱크홀'이 생기고 이로 인해 지반이 붕괴되고 있고,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점점 더 줄어 최근에는 사해가 일 년에 1미터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요단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에게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지방 사이에 산지로 이뤄진 사마리아가

있었다. 이곳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앗수리아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강제이주 당한 곳이고, 그들이 떠난 빈 자리를 또 다른 강제이주 당한 이방인들로 채워졌던 곳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유대교와 이교가 혼합된 곳이 되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사람들과 남쪽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고, 사마리아 지방을 가급적 피해서 왕래하였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었던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임이 판을 치는 죽음의 도시였다.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지 않아 죽음의 바다로 돌변한 사해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정치경제종교의 중심지였지만,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매몰되어 외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소통을 가로 막으며 이전투구를 일삼았기 때문에 점차 해골의 언덕으로 변해갔다. 예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생수가 흐르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름의 방향전환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둬놓고 흐르지 못하게 했던 생명수를 온 세계로 흘러가도록 독을 허문 이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바울의 공로가 특히 컸다. 사해(死海)라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 세상에 충만”(사 11:9, 합 2:14) 하게 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주후 66-73년과 132-135년에 두 차례 발발한 유대-로마전쟁은 오만과 자기우상에 빠져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독점하였던 예루살렘을, 독을 무너뜨려 물을 흘러 보내듯이, 무너뜨린 사건들이었다. 이때부터, 좀 더 정확히 밝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한 오름의 방향은 하늘 예루살렘으로 바뀐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은 땅을 얻기 위함이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희망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땅을 얻었으나 빼앗긴 이후 땅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고 살았던 민족이며, 그 땅을 영구히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한 땅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질병이 멈추지 않는 고통의 땅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땅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유대인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환멸과 좌절을 느꼈다. 한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얻고자 했던 것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땅은 호숫가의 빈 배처럼 쓸쓸하고 처량하거나 물결에 출렁이며 빠져거리는 땅이 아니라 희년이 선포되고 평화와 만선의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였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자 한다면, 기독교로부터 환멸과 좌절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누가복음 9장 51-5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이 그것인데 이 배척은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나사렛에서 당하신 것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름에 있어서 불굴의 결단이 필요한데 배척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행 14:22)이라고 했다. 또 51-56절의 말씀은 배척과 핍박이 닥칠 때 박해자들을 대항하지 말고, 복음이 수용되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것을 교훈한다. 바울 일행은 한 지역에서 쫓기면 즉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쫓기는 것으로 인해 주눅 들거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누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려 했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배척과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여지게 되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배척과 핍박은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지게 한 수단이었다고, 교회가 단단하여지게 한 방법이었던 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히 10:39).

20.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2(눅 9:57-62)

오름과 그 목적

갈릴리지방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셨고, 명성도 얻으셨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자로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 사람들이 앉았던 “푸른 잔디”(막 6:39. 마 14:19와 요 6:10참고)가 유월절이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철이고, 봄이 오는 첫 길목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빼앗긴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바람이 들어간 고무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곤 한다. 여기에 더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가오는 유월절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한층 더 높였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고조되어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인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때 혹은 영광 받으실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을 결심하셨다. 그 때가 주후 30년 겨울철이었고, 다가오는 유월절은 니산 15일, 양력 4월 6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오름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유월절까지 보름달이 몇 번 떴다가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소 한번에서 많으면 두세 번까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잠정적이고 일

시적인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참평화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성전과 유대교율법에 포박된 하나님 신앙을 인류에게 되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포박(捕縛)한 바벨론이었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사해(死海)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사 11:9)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 2:14)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었다. 또 그 일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Christian Church)를 세우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십자가수난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은 일종의 모범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걷게 될 순례의 길이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역사 속에서 지속시켜가게 한다는 것이 누가의 신학적 통찰이요, 지연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러므로 누가는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51절에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과정을 9장 53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13장 2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7장 1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8장 31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9장 11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19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라고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오름과 제자의 길

누가복음 9장 57-62절은 세상에 나가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고, 평화와 희년과 만선의 기쁨을 전하며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평화군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다. 57절에서 “길 가실 때”는 예루살렘

에로 오르는 길을 말하고 소개된 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의 길에 관해 담화를 나누는 자들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을 평화군 파송과 예루살렘을 향한 오름의 시기에 배치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8장 19-21절에서 참 가족의 의미를 교훈하셨고, 9장 1-9절의 파송설교에서 희년선포의 긴박성과 복음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하셨다. 9장 57-62절의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은 참 가족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의 긴박성과 절박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기를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와 영광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거처도 없이 떠돌아야하는 제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머리를 누일 곳조차 없는 떠돌이 예언자이셨고, 배척과 환난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다. 갈릴리에서 그분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열광과 인기는 세속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수개월이내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 거짓된 것이었으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독배였다. 그러므로 인기와 영광만을 보고 제자의 길을 걸겠다고 나선 이 사람의 청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58절)는 말씀으로 거절하셨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으나 먼저 부친을 장사지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의무이행에 가치를 둔 효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60절)는 말씀으로 이미 강조하셨던 참 가족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의 긴박성과 절박성에 관해서 교훈하셨다.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으로 청을 거절하셨다. 제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참 가족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의 긴박성과 절박성을 재고하도록 교훈하셨다.

한편 마태는 이 제자의 길을 광풍진압 사건에 맞춰서 소개하였다. 따라서 마태복음 8장 18-27절에 소개된 갈릴리 호수에 불어 닥친 광풍을 진압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의 길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포기할 각오와 가난하여질 각오와 하나님의 참 가족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의 긴박성과 절박성을 깨달아 즉시 결단하고, 위험에 직면하여 죽음을 불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함과 쉽 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오름과 신앙생활

누가는 신약성경을 쓴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도 ‘성령’과 ‘성령 충만,’ ‘기도’와 ‘기도하다’란 단어를 월등히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쉽 없는 기도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하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과 샘플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체험들을 하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는 음성을 들으셨다.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에서 광채가 빛났으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율법과 예언에 관한 신령한 담화를 나누셨다(눅 9:28-29).

둘째,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가를 말씀해 주셨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비유에서 '강청(强請)의 기도'를 강조하셨고, 18장 1절부터 8절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셨으며, 18장 9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겸손의 기도'를 강조하셨다. 특히 강청의 기도를 강조하실 때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공직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기도로 준비하셨고(4:1),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피하셔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도를 하셨다(5:16). 제자선택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하셨고(6:12),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앞두고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다(9:18).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11:1).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다(22:32). 죽음을 앞두고 겓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적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운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배척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또 민중이 요구하고 제자들이 원하며 마귀가 꾀이는 빵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다. 삶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었던 것도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행한 기도 때문이

었다(22:41-44).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조차 고고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로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21.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3(눅 10:1-24)

70인의 신학적 의미

숫자 70(혹은 72)은 완전, 충만, 전체를 의미하며, 지구상의 모든 종족을 상징한다. 숫자 70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누가복음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며, 전 인류를 상징한다는 데 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인 70(LXX역에서는 72) 종족의 명단이 실려 있다. 야벳의 계보에서 14종족, 함의 계보에서 30종족, 셈의 계보에서 26종족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70 종족은 지구상의 모든 종족을 말한다. 그러나 70이란 숫자는 완전수에 대한 유대개념에 따른 것으로서 문자적 기술(記述)이기보다는 신앙적 기술이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조상에서 비롯된 한 가족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종족이 퍼져나갔듯이, 홍수이후에도 노아를 통해서 다양한 종족들이 퍼져나갔고,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사는 지역이 다를지라도, 근본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이다.

헬라제국시대인 주전 3세기에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 이 성경을 셉투아진트(Septuagint) 혹은 70인 역(LXX)이라고 부르는데, 전승에 의하면, 70(혹은 72)인의 학자들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통치시대인 주전 284-247년 사이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인씩 선발된 72인이 알렉산드리아 인근의 바로스 섬에 모여서 72일 동안 모세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고 전한다. 유대교적

기독교를 이방세계의 기독교로 발전시킨 바울, 바나바, 빌립, 스테반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70인 역 그리스어 성경을 사용하였고, 당연히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 70인 역을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70(혹은 72)이란 숫자는 유대민족에서 전체 인류, 소수민족종교 유대교에서 전체 인류의 종교 기독교어로 확대된 것을 뜻한다.

유대인들에게 70(혹은 72)이란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뜻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근 때 야곱이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다(창 46:27). 이 숫자는 며느리들이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 의도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소 215년에서 최장 430년 만에 야곱의 후손들이 춘분이 지난 보름달(유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50일 만에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식 때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출 24:1,9). 이밖에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삿 8:30), 아합의 70명의 아들(왕하 10:1), 칠십 이레(단 9:24), 바벨론 포로 70년(렘 29:10), 엘림의 종려나무 70주(출 15:27) 등이 구약성경에 언급되었다.

둘째, 유대인들은 입법과 사법의 최고의결기구인 ‘산헤드린’(Sanhedrin)을 70(혹은 72)명으로 구성하였다. 산헤드린은 헬라어로 ‘같이 앉다’(συνεδριον)란 뜻이다. 모세의 70인에서 유래하였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

70인 평화군의 파송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이 끝나는 19장까지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요단강 동편지역, 지금의 요르단에 속하는 베레아 지방에서의 이야기들이다. 이 지방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 지역이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에 지구상의 모든 종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70인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평화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창세기 10장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인 70개의 종족의 명단을 소개한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의 길을 이방인 지역으로 택하신 것과 이 이방인 지역에 70인을 파송하신 것은,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거부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참 가족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서 파송하셨다면, 70인의 파송은 이방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참 가족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70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며 대표이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하기’로 무장한 평화군(Peace Corps) 또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암흑시대를 떠나보내고 광명시대를 열기 위해서 평화군을 조직하셨다. 이 평화군의 선봉장들이 12사도들이다. 6장 17절을 보면, 평화군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맨 앞에 서셨고, 몇 걸음 뒤에 열 두 사도들이 도열하였으며, 또 몇 걸음 뒤에는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무리가 도열하였다. 여기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70인 제자들일 수 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하기’로 무장한 예수님의 평화군이 ‘손 내밀기’와 ‘생명 구하기’를 통해서 물리쳐야 할 적군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었다. 예수님의 중요 임무들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었고(6:18, 13:32), 12사도들(9:1)과 70인들(10:17)의 임무도 귀신을

제어하며 항복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귀신들은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병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원인이며 상징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 언약공동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식 입장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12제자들이 있고, 70인 장로들을 대신하는 70인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몰몬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치계급은 아니다. 계시록 7장은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4,000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10)가 도열하고 있다. 이들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군이고 교회이며 새 이스라엘이다.

70인의 복음사역

앞장인 9장에서 파송의 목적, 긴박성 및 연속성이 언급되었다. 복음사역은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평화군이고 교회이며 새 이스라엘이다. 이 공동체의 임무는 빈 배처럼 외롭고 흔들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지친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만선(滿船)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설명된 것은 평화군의 복음사역이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의 과정에서 펼쳐진다는 점이다. 이 오름의 길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기”(3절) 때문에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역사 속에

서 손을 내밀어 생명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일이 시급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2절) 때문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거나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4절)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환게하시를 파송할 때,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왕하 4:29)고 한 것과 같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고 긴박하다는 뜻이다.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희년선포활동은 역사 속에서 시급하고 긴박하게 지속돼야할 일이지만, 사람들의 호불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배척을 당하더라도 평안을 빌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말씀한다(5-6, 10-11절). 또 7-8절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와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는 말씀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고, 더 좋은 대접을 받기위해서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카샤룻’(Kashrut) 음식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특히 70인은 이방인 지역인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순회하였다. 그들이 접촉해야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70인이 대접을 받아야할 곳도 대부분 이방인의 집들이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갖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일뿐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리지 않으셨다. 바울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후 4: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평화군의 임무는 귀신을 제어하며 항복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병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능력이 제어

되고, 굴복되며,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17-20절).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의 행진은 사단의 권세를 붕괴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는 일이다.

22.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4(눅 10:25-42)

유대인의 영생개념

누가복음 10장 25-42절은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덕목에 관한 것이다. 이 덕목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에피소드는 이 두 가지 덕목에 관한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 누가는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자료를 교차대칭으로 배열하였다.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들을 암송하였고, 예수님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각각 말씀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에피소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교훈이다.

25절 후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이 나온다. 그에게 영생이란 어떤 개념이었는가,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었는가? 세 가지로 답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대인들의 영생은 땅의 개념이다. “얻겠습니까?”에 해당되는 헬라어 ‘클레로노메소’(kleronomeso)는 ‘상속받다’ 또는 ‘기업을 얻다’란 뜻이다. 신약성경에서의 영생 개념도 “땅을 기업으로”(마 5:5) 받는 것이다. 성경은 땅에 관한 책이다. 구약성경은 지상 가나안땅에 관한 책이고, 신약성경은 하늘 가나안땅에 관한 책이다. 이 땅에 관한 용어가 ‘상속’의 뜻을 갖는 ‘기업’이란 말이다. 신구약성경에서 무척 많이 쓰인 단어이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희망(Ha-Tikvah)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땅을 얻었다가 빼앗겼기 때문에 땅에 대한 희망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간 품고 살았던 민족이다. 그래서 랍비들도

토라(모세오경)에는 사후세계에 관한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상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유대교가 사후세계를 믿는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

둘째, 구약성경은 페르시아시대까지의 이야기이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에스라(주전 444년경), 역대기상하(주전 450-430년) 및 느헤미야(주전 420년경)의 무대가 페르시아 시대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유배된 후 페르시아로부터 성령(스펜타 마이뉴)과 악령(앙그라 마이뉴), 천국과 지옥, 구세주(사오슈안트), 영혼, 부활, 최후심판 및 영생을 믿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구약성경에는 이런 개념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은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반면에 구전전승의 권위까지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은 영혼불멸, 몸의 부활, 영혼, 천사, 마귀, 사후상벌, 사후세계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39권의 구약성경시대가 끝난 뒤인 그리스가 지배했던 헬레니즘시대였다.

셋째, 영생이나 영적개념은 헬레니즘시대에 소개되었다. 헬레니즘시대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주전 331년부터 500여 년간 그리스 언어, 문화, 예술, 문학이 지중해연안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를 말한다. 로마제국이 헬라제국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리스문화의 영향력은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 로마가 누렸던 전성기의 마지막 황제이자, 영화 ‘글래디에이터’(Gladiator)의 배경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Stoa) 철학자로서 주후 180년 전쟁터에서 병사하였는데, 그리스어로 글을 쓴 사람이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지금도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오름의 행진과 이웃 사랑

25절에서 “예수를 시험하여”란 말은 공적 권위를 가진 율법사가 공적 권위를 갖지 못한 떠돌이 예수님이 뭘 제대로 알고 가

르치는지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뽐내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가는 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2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종합한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의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 제1-4계명의 핵심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은 십계명 5-10계명의 핵심이다.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소가족에 기록하여 지니고 다녔다.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에 민망해진 율법사가 “자기를 옹계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이다. 이 질문을 기록한 배경에는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들추어내려는데 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동료 유대인들을 뜻하며, 죄인,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제외된다. 유대인들의 이웃개념은 동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淨)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에 국한된다. 부정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율법으로 금지되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죄가 있는 부정한 자들로 여겼다. 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10:30)까지는 약 30킬로미터이며 내리막길이다. 예루살렘은 석회암으로 된 해발 760미터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미터나 낮은 곳에 있어서 고도가 무려 1020미터에 이른다. 이 고도와 거리는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에서 제주공항까지를 도보로 걷는 것과 같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치는 일이 잦았던 곳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만난 사람의 국적은 밝혀져 있지 않다. 유대인일수도 있고 이방인일수도 있다.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만난 사

람을 그냥 지나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강도만난 자의 불행을 본인이나 조상들의 죄값으로 본 때문이며, 세 번째는 성전봉사를 수행할 자로서 부정할 것을 만져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레 21:1, 민 19:11)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제사장 가문인 코헨은 가족의 장례식조차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는 말씀이 있다. 이웃 사랑이 십계명 5-10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강도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은 성결법보다도 더 상위의 법을 어긴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면했던 문제는 생명살림법과 성결법의 충돌이었는데, 그들은 하위법인 성결법을 지키려고 상위법인 생명 살림법 즉 이웃 사랑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예수님은 강도만난 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웃으로 알고 사랑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을 올바른 윤리실천자로 보셨다.

오름의 행진과 하나님 사랑

누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아직도 상거(相距)가 먼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의 이야기 초반에 배치하였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 동쪽에 있었던 마을로써 감람산에서 걸으면 한 시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 누가가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에피소드를 이곳에 배치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촉발시킨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였고, 한 가지 답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었다. 여기서 누가는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를 사례를 들어 교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제자 파송설교와 70인 파송설교에서 예수님이 강

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마 6:33)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우치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면서 동시에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려하는데 있었고, 문제점은 그것들의 본질보다는 의식, 의미보다는 형식, 정신보다는 문자에 치우친데 있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동은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 허례의식에 불과했고 형식에 치우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타리법들에 노예가 되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정의(義)와 자비(仁)와 신실함(信)을 버린 자들(마 23:23),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자들(마 23:25), 소경된 자들(마 23:26), 회칠한 무덤(마 23:27), 외식하는 자들(막 7:6),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막 7:7),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막 7:8-9),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막 7:13),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막 8:18)이었다. 그들의 문제점은 신본(神本)인 척하지만 실상은 인본(人本)에 치우친데 있다. 진정한 신본은 인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본을 이유로 인본을 말살한데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을 속박한데 있다. 강도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율법의 참 정신이 사랑이란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한 혼혈족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가 더 윤리적이었는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옳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요,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기적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를 때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라.

23.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1(눅 11:1-4)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생활에서 탄생되었다. 스승의 기도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의 모형은 모세의 기도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는 히브리민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광야사막에서 40년간 이끌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모세는 기도의 능력으로 히브리민족을 지상 가나안땅에 입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광야교회로 인도하여 하늘 가나안땅에 입성시킬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암송기도이다. 바벨론 유배이후 성전예배를 대신할 회당기도회가 시작되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베라코트'(berakhot)라 불리는 기도문들을 만들기 전에는 개인기도가 일반적이었다. 아브라함의 기도(창 18:23-33: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야곱의 기도(창 32:22-29: 압복강가에서의 기도), 모세의 기도(출 8:12-13, 출 8:30, 15:22-25, 17:11-16, 32:7-14, 33:8-11, 민 11:1-2, 12:9-14, 16:20-24), 여호수아의 기도(수 10:12-14: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한 기도), 한나의 기도(삼상 1:10-20: 사무엘을 얻기까지의 기도), 다윗의 기도(시 51:1-19: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회개기도), 솔로몬의 기도(왕상 3:4-14: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왕상 18:16-46: 갈멜산에서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왕하 20:1-11: 여호와께 심히 통곡 기도함), 에스더의 기도(에 4:16: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기도(단 6:1-28, 하루 세 번의 기도), 욥의 기도(욥 42:1-6: 욥의 회개기도) 및 요나의

기도(은 2:9: 요나의 회개와 서원기도)가 있다.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암송기도문들을 대신한 초대교회의 유일한 암송기도문이었다. 예배 때 대표기도를 맡은 자는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에서처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것이 교리논쟁이 격화되면서 이단들의 침투를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대표기도가 사라지고 유대교의 회당예배에서처럼 틀에 박힌 기도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전통교회들은 아직도 예배 중에 공인된 기도문만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예배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은 친히 개인 기도를 즐기셨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에 힘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만들어준 기도문에 익숙한 제자들이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스승의 기도문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대에는 뛰어난 랍비들이 학파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범기도를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자연스런 요청이었다. 이 요청에 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개나 되는 긴 유대교의 켈모네 에스레이보다 내용이 뛰어나면서 간략하여 암기하기 쉬운 모범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보다 20여년 정도 늦게 시리아에서 기록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는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암송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서 주기도문이 유대교의 켈모네 에스레이를 대신한 기도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누가의 주기도문과 마태의 주기도문의 차이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훨씬 짧다. 마태의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누가의 것에 추가된 부분이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는 본래 마태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송에 ()표시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누가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마태의 것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고, “죄지은 모든 사람”이 “죄지은 자”로 바뀌었다. 또 누가의 것에서 “우리에게 죄지은”의 죄가 ‘빛 지은’(opheilonti, 오페일론티)이고, “우리 죄도”에서 죄는 ‘잘못을 저지른 죄’(hamartia, 하마르티아)인 것에 반해서 마태의 것에서는 경제적 채무를 뜻하는 ‘오페일레마’(opheilema)만 쓰였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를 네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첫째, 누가의 주기도문이 마태의 주기도문보다 더 원시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선포하신 ‘성만찬 제정사’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짧은 것이 긴 것보다 더 원시적이고 원형에 가깝다.

둘째, 누가의 것은 안디옥교회의 것을, 마태의 것은 시리아지역 교회의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마태복음이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디옥교회의 것이 ‘주의 만찬 제정사’도 그렇고 주기도문에서도 더 원시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이유는 바울과 누가가 이 교회의 출신인데다가 두 사람이 함께 활동을 시작한 때가 신약성경 27권의 어느 한 권도 기록되지 아니한 40년대 말일만큼 시기가 빠른 반면에 마태의 것은 이보다 십 수 년 뒤진 시리아지역 교회의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둘 다 예루살렘교회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루살렘교회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마태복음보다 십 수 년 늦게 기록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란 책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지역 교회에서 기록된 소책자인데, 이 책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하늘’과 ‘빛’의 복수명사가 단수로, “사하여 준 것같이”가 “사하듯이”로

바뀐 것 말고는 마태의 것과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영송에 () 표시가 없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켈모네 에스레이를 세 번 암송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도문을 하루에 세 번씩 암송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누가의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1세기 말 시리아 교회들이 예배용으로 다듬어 사용한 기도문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 낭송하는 켈모네 에스레이를 대신할 것일 수 있다. 이밖에도 <디다케>는 유대인들이 안식 후 둘째 날(월요일)과 다섯째 날(목요일)에 갖는 단식(눅 18:12) 대신에 주간 넷째 날(수요일)과 준비일(금요일)에 단식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주기도문을 켈모네 에스레이를 대신할 기도문으로 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어 월요일과 목요일에 토라를 낭독한다.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유대교의 켈모네 에스레이의 차이점

누가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는 켈모네 에스레이 5,6,19번에도 있다. 또 “이름이 거룩히”는 켈모네 에스레이 3,18번에 비슷한 표현이 있고,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4,5번의 계명으로써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레위기 22장 32절에 근거한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이란 뜻의 ‘하셈’(Ha-Shem)을 자주 사용하였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켈모네 에스레이 14,15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다가올 문자적인 나라만 있을 뿐, 이미 임한 현재적인 영적인 나라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한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쉐모네 에스레이 9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란 뜻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빵을 구하는 기도이다. 여기서 빵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한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에 의지하며 살았듯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겸손의 고백을 담고 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는 쉘모네 에스레이 5,6번 기도에서 발견된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우리나라 음력 8월 1일 또는 9월 1일에 닿는 신년(로쉬 하샤나)이 되면, 열흘 동안 지난해에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이란 피의 보복문화에 젖어 살았던 2천 년 전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쉘모네 에스레이의 결론 기도문,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으로부터 나의 혀와 또 거짓되게 말하는 입술로부터 보호하소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배교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누가는 “우리에게 죄지은”에서 죄를 ‘빋 지은’(opheilonti, 오페일론티)으로, “우리 죄도”에서 죄를 ‘잘못을 저지른 죄’(hamartia, 하마르티아)로 소개한데 반해서, 마태는 둘 다 ‘빋 지은’을 뜻하는 ‘오페일레마’(opheilema)를 사용하였다.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형제들의 빚을 탕감하여 줌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를 담았다. 반면에 재리(財利)에 밝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는 죄를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로 이해하였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에서만큼은 의견대립을 갖지

않는다. 적어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나라의 임재를 기원하며,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는 간구를 매일 겸손히 드릴 때 하늘 가나안땅에로의 오름을 가로막는 세력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

24.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2(눅 11:5-13)

간청의 기도

누가는 사무엘을 세례 요한의 모형으로 소개한 바가 있다. 누가가 사무엘의 출생배경에 한나의 간청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사무엘상 1장 10-2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원통하고 슬픈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토해내고 있다. 이 애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야훼께 구함’이란 뜻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 ‘간청의 기도’가 연결된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기도비유가 세 개나 있다. 그 첫 번째 것이 11장 5-8절의 ‘간청의 기도’이고, 나머지 두 개는 18장 1-14절에 연이어 실린 ‘끈질긴 기도’와 ‘겉손의 기도’이다. 누가는 11장 5-8절 간청의 기도에 이어진 9-13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끝 절인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이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 11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가 그냥 “좋은 것”이라고 소개한 것을 누가는 구체

적으로 “성령”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나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 가나안땅이다. 마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좋은 것을 하늘 가나안땅 즉 천국이라고 말한 것을 누가는 좋은 것인 하늘 가나안땅을 받게 할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말한 것이다.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게 할 보증과 인침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야 좋은 것인 하늘 가나안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말한 것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간청의 기도가 결국 구하는 자에게, 몰라서 구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인 성령님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들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고, 구약성서에 성령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민중이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거나 성령님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누가는 반세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간청의 기도비유를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휘방하는 자들과의 투쟁에서 이기려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성령님은 인간이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땅을 유업으로 받게 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활동

누가가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그 역사가 태곳적부터이다. 그리고 인간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보았다. 구약시대와 예수님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신다. 다만 구약시대와 예수님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활동하셨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출애굽부터 바벨론에 유배당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었던 인물들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판관)들, 예언(선지)자들, 몇몇 왕들이었다. 여기까지가 구약성서시대이다. 이어진 400여 년의 기간은 그 대부분을 헬라가 지배했다. 이 기간을 신구약중간기라 부른다. 이 기간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개신교가 구약외경이라 부르며 사용하지 않는 이 시기에 기록된 9권의 글을 거룩한 글로 인정하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 곧 신구약중간기는 유대교 랍비들의 율법주의 활동이 성령님의 활동을 가로막았던 암흑기였다.

400여년의 침묵을 깨고 성령님의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때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서 성령님의 활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3년 6개월 남직 되는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는 모세의 사역에 집중되었던 것보다 월등히 크고 중한 것이었다. 그 차이는 모세시대의 2백만 히브리민족과 예수님 시대의 2억 명 열방민족의 차이, 즉 100배 만큼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모세이후 예수님까지가 구약(옛 언약)시대인데, 이 시기의 성령님의 활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덧입히던 시대였다. 그러나 신약(새 언약)시대에는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승천하시고 10일째 날인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시간인 9시경,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영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시간에 성전 뜰에서 혹은 유대교 회당에서 희생 제사를 대신해서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었다.

이 날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덧입힌 외적 역사뿐 아니라, 예수님

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모두에게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내적 역사 즉 내주동거가 처음 시작된 날이다. 구약시대의 특징은 지상 가나안땅을 유대인들의 민족기업으로 유지시키는 것이었고, 이 기업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구약(옛 언약)의 내용인 토라계명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민족기업인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 가나안땅을 아직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방문화 속 지상광야에서 떠돌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동거를 통해 하늘 가나안땅의 약속을 보증 받고 인침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성령님으로의 세례, 줄여서, 성령세례라 부른다.

간청의 기도비유에 담긴 뜻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이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였다. 여관과 가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비유에는 먼 길을 찾아온 친구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함께 들어 있다.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비유는 한밤중에 예상도 못한 친구의 방문을 받고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미 잠들어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 빵 덩어리 세 개를 빌리는 내용이다.

중동지방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밤에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더라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요 곤란한 일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손님에게 빵을 넉넉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미 쪼개놓은 빵조각을 내놓은 것은 손님을 모욕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빵조각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으로 빵을 빌리러 간 때는 이미 깊은 밤중이라 문이 닫혀 있었고 모든 식구가 잠든 상태였다.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친구가 청을

거절할 것이 뻔해 보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문을 열어 놓으면 하루 종일 열린 채로 두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표시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집들은 방이 딸랑 한 개뿐이었다. 이 방이 낮에는 거실이 되고,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눕는 침실이 되었다. 따라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온다면, 잠들었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야 한다. 손님이 찾아오면 등불을 켜고 집안으로 친절히 맞아들여야 하지만, 그러자면 잠든 식구들을 모두 깨워야한다. 그런 무례함을 무릅써야 빵 덩어리를 빌릴 수 있고,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수해야 집주인이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그런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쪽도 물리칠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한밤중까지 여행하다가 숙식을 제공받기위해 찾아온 친구를 나몰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본문에서 “간청”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이테이안’(anaideian)은 문자적으로 ‘고집’, ‘뻔뻔함’, ‘파렴치’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무리한 간청의 차원을 넘어서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정도로 끈덕진 요청을 시사한다. 집주인은 식구들이 누워 자는 한밤중에 찾아와 뻔뻔스러운 정도로 무모하게 간청하는 친구의 청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빵 덩어리를 빌려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집주인이 빵을 꾸려고 찾아온 친구의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정도의 끈질긴 간청과 절박감 때문에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고 말씀하였다.

25.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3(눅 11:14-54)

성령님의 참 능력

누가복음의 테마는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이 오름을 휘방하는 세력과의 영적싸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영적 무장으로 기도와 성령 충만이다. 11장 1-13절에서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이를 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며, 간청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며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마태는 누가처럼 “성령”으로 적지 않고, “좋은 것”으로 적었다.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 “좋은 것”은 하늘 가나안땅을 말한 것인데, 누가가 “좋은 것”으로 적지 않고, “성령”으로 적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으려면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교훈 직후 14절부터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 배치는 의도된 것으로써 1-13절에서 주기도문, 간청의 기도, 성령이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휘방하는 배척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성도들이 끈질긴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배척을 물리치고 좋은 것인 하늘 가나안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마태복음 12장과 23장의 논쟁기사를 누가복음 11장 14-54절에 배치시켰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동질성은 끈질긴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들로 무장할 때, 세상과의 갈등에서 이기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 즉 하늘 가나안땅을 얻을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이 사람은 눈까지 멀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불쌍한 사람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끗함을 받아 하늘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싫어하여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불렀는데, 깨끗지 못한 이방인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있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에도 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능력이며, 그들을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을 자로 삼는데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늘 가나안땅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민족기업인 지상 가나안땅을 이방인들과 공유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다. 이 시험은 “그대가 진정 오실 자 메시아라면, 빼앗긴 가나안땅을 되찾고 유린당한 다윗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라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민족기업을 그들에게 상속시키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진정 오실 자 메시아인지를,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증명하라.”는 비방이다. 배척자들의 이런 식의 비방과 박해를 극복하는 길이 끈질긴 기도와 성령 충만이란 것이 누가의 지론이다.

예수님의 참 능력

예수님을 시험했거나 비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을 빼앗긴 축귀자(逐鬼者)란 설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는 민중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라고 전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지칭하지 않았다. 그렇

게 한 이유는 누가의 선교지가 유대지역이 아니라 이방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지역에서 인종을 불문하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선교지에서 박해자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했지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 같은 사건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삶과 역사적 정황의 극히 일부분을 문자대로 적지 않고, 자신이 섬긴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정황 또는 기록목적에 따라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것이라든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물론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말씀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에 대한 귀중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가장 심하게 충돌했을 때 하신 말씀들을 11장에 배치한 이유는 하늘 가나안땅에 오르는 길이 험하고 유혹과 탄압이 상주했기 때문이다. 누가가 마태복음에 없는 27-28절, 예수님을 “벤 태”와 “먹인 젓이 복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곳에 배치한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18절)고 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20절)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메시아가 도래했으니 그들이 희망하는 “좋은 것,”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고 한, 다가올 세상, ‘올람 하바’(Olam Ha-Ba)가 임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세상은 문자적인 성취, 빼앗긴 가나안땅을 되찾고 다윗왕권을 회복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수용한 방식,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있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에도 불러 하나님을 자녀로 삼는 능력이며, 그들을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을 자로 삼는데 있다. 예수님의 선교활동의 목적이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열방민족의 구원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전에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낸 깨끗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쫓겨났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까지 데려와 도합 여덟 귀신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24-26절) 불쌍한 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던 당대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반영시킨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참 능력

예수님은 11장 29절에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미 언급하신 여덟 귀신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한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여덟 귀신에 사로잡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불쌍한 자들도 유대인들이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도 유대인들이다(39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중상모략과 권모술수와 탐욕탐심이 가득한 자들도 그들이다. 그러므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지 말고, 선한 것으로 속을 꼭 채워 알찬 것으로 남을 도와야 안팎이 깨끗해질 것이라고(41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11장 29-36절에서, 삼 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 돌아온 요나의 표적이라면 몰라도,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회개와 자기 성찰이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씀하셨다. 또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찾아온 남방 여왕과 같은 사람들이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히듯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요,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산자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참 능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말하는 믿음에 있다.

누가복음 11장 42-52절에 밝혀진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마태복음 23장에 밝혀진 것들과 대동소이하다. 유대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하찮은 양념재료까지 십일조 항목에 넣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던”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했으며, 입구를 멋지게 장식한 동굴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 속은 악취로 가득하였다. 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그 속을 보지 못하나 역시 시체가 썩고 있듯이, 또 겉은 멀쩡해보여도 속에는 여덟 귀신이 자리 잡고 있듯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대교 랍비들은 613개의 계명들이 부주의로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타리 법들(Gezeiroth)을 만들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정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는 그들이 율타리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가중된 짐을 지웠다는 뜻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자들이었다. 율법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선 자들이다. 본문은 그들이 예

수님의 책망을 받고서도 회개는커녕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렸다고 적고 있다. 지난 2천 년간 유대인들이 겪었던 불행은 기독교신앙을 배척한데서 기인됐다는 것이 토인비 같은 역사가들의 시각이다. 인간을 살리는 참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소박한 믿음에 있다.

26.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4(눅 12:1-12)

약속을 지키는 믿음

누가복음 12장 1-21절은 11장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무장에 관한 말씀의 연장이다. 예수님은 12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 중에서 제자들에게만 교훈하셨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란 점을 누가가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12장에서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셨다. 신실함이란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래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신실하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도 없고,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쁘시고 믿을만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많이 다르다.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굳세다고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고 말씀한다. 이는 믿음이 목숨보다 가치가 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생명 가운데 한 가지 선택을 강요당한다면,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씀한다. 그리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한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이다. 성서에서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한다. 누룩은 루머처럼 빨리 번진다. 작지만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교회)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

교하였다(마 13장).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오래 묵은 전통,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사고와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되찾고, 다윗왕권을 문자적으로 회복하는데 목숨을 건 자들이었다.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라계명과 온갖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 가나안땅에 관한 희소식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인류를 위한 평화의 복음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여러 형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였다. 그 끝이 십자가의 언덕 끝고다였다. 그들의 박해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대략 40년 동안의 초기 기독교 박해는 그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특징은 세속적이었다.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 13-21절의 부자비유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경고이다. 인간의 복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교훈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박해를 이기는 믿음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

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박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신분을 감추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언젠가는 그들의 올라미에 걸려들게 될 터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피조물이고, 너희들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생명의 근원인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 너희가 정녕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를 빚으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박해자들의 고문에 굴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겠다고 권면하셨다.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 지난 2천 년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 가운데 막시밀리아누스가 대표적이다. <악타 마르티룸>(Acta Martyrum, 순교자 행전)에 따르면, 막시밀리아누스는 로마제국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8년 전인 295년에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속주도시 테베스테에 거주하는 세무공무원이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22세가 된 막시밀리아누스는 병영세습제로 인해서 신체검사장인 병영에 나가 검사관인 군단장 겸 총독인 디오에게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키 150센티미터였던 단신의 막시밀리아누스에게 입대통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막시밀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입대할 수 없다며 죽음을 무릅쓰고 거부하다가 즉결심판을 받아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걸었던 것, 그가 자기 목숨을 걸어 지키려했던 것은 그의 기독교 신념이었다. 막시밀리아누스는 디오 총독에게 말했다. “저는 이 세상군대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군대의 병사입니다.... 제 영혼과 저를 부르신 분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배지를 가진 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저는 목에 구리조각(황제의 옆얼굴?)을 걸고 다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신의 아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상

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인도자인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저의 사명입니다.... 몸은 죽어도 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미 제 주님의 병사가 된 이상, 다른 군대의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목숨을 버려 지키려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나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와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같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막스밀리아누스였고, 사도 바울이었으며, 수많은 순교자들과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었다. 살고 죽고를 떠나서 기독교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를 아는 믿음

정약용의 조카사위였던 황사영이란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16세 때에 진사시에 장원급제를 한다. 이에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한 정조 대왕이 친히 불러 손목을 잡고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너라. 벼슬을 내리고 큰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한다. 부와 권세를 약속받았던 이 천재 소년은 정약용의 셋째형인 정약종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보장된 장래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그러다가 27세 때에 의금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능지처참 형을 받았다.

그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 지키려했던 것은 하늘의 임금께 대한 충성이었다. 이전에는 나라의 임금을 섬기고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란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천지대군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의 아들 가운데 정하상이 있다. 그의 나이 불과 7살 때, 아버지와 이복형 철상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참수 당했고, 나이 45세 때에는 자신과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머니는 옥사하시고, 자신과 여동생은 참수를 당하였다. 그가 쓴 조선 최초의 기독교변증서인 <상재상서>(上宰相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위에는 높낮음이 있고 일에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버지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이다.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겁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욱 커비할 데가 없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 한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무군무부(無君無夫), 곧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인가?

막시밀리아누스, 정하상, 황사영과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정신무장, 신앙무장, 충성무장이다. 자신들이 충성을 바쳐야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한 일당백의 신실한 군사들이었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닥칠 운명을 내다보면서 5-12 절에서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

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딸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27.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5(눅 12:13-59)

재물의 나눔

누가복음 12장 13-21절의 부자비유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경고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고,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에서 쌓아두는 행위는 습관적인 행위와 집착을 뜻한다. “자기를 위하여”란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타인(밖)이 아니라 자기(안)란 뜻이다. 자기와 재물에 집착하는 만큼 정직한 방법만을 고집했을 리 없고, 하늘에 재물을 쌓겠다는 생각이 없는 만큼 나눔을 고민해봤을 리가 없다. 결국 부자의 문제는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고, 탐심의 많음에 있다. 재물은 죄가 아니지만, 탐심은 죄이다. 재물의 많음은 죄가 되지 않지만, 탐심의 많음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란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리고 “부요하지 못한 자”란 그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22-34절의 말씀이다. 첫째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22절)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31절)는 것이며, 셋째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낚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33절)는 것이다. 이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치 않다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입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정의와 사랑을 구하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의와 사랑을 구한다면,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겠다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흠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다면, 공중의 까마귀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닳지 않는 지갑과 같고, 고갈되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보물과 같아서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최후의 식량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 빵을 구웠을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왕상 17:12-14) 것과 같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타인과 나눴을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막 6:41-44)과 같아서 정의와 사랑이 넘친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랑의 나눔

레오 톨스토이(1828-1910)의 마음속엔 세 가지 물음이 있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

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민화를 통해서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는, 천성이 착하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데, 가난하고 모질며 거칠고 욕하는 성질의 사람의 마음속에조차 사랑이란 평화의 씨앗이 심겨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과 세 번째 해답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주인공 미하일은 인간의 목숨을 거둬드리는 저승사자였다. 그는 자신의 일을 동정심에 이끌려 늦장 처리함으로써, 톨스토이의 마음속 세 가지 물음에 해답을 찾아야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과제를 안고, 지상으로 쫓겨난 날개 꺾인 천사였다. 그러나 그의 과제는 의외로 쉽게 풀려나갔다.

미하일은 헐벗고 배고파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극한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둬주고 일을 시켜준 구두장이 세몬 부부에게서 사람의 마음에는 근원적으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부유한 신사에게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부유한 신사는 가져온 값비싼 가죽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될 것을 모른 채, 1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을 튼튼한 가죽부츠를 만들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미하일은 그를 위해 부츠대신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었고, 부자의 하인은 가던 길을 돌아와 주인이 죽었다며 부츠대신에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소녀들을 데리고 구두 가게를 찾아왔을 때, 미하일은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목숨을 빼앗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아 인간세상으로 추락했으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수일 후

핏덩어리 쌍둥이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못한 채 유명(幽明)을 달리했던 그 가여운 여인의 아이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고아소녀들은 이웃 아주머니의 극진한 사랑으로 반듯하게 자라 벌써 6살이 되었던 것이다. 미하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마지막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과 레오 톨스토이는 인간의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을 향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만이 사는 길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의식주문제나 생사문제를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 자기 부족, 자기 민족만을 바라보는 탐심 때문에 죽임의 일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적정보의 나눔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려고” 또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또 52-53절에서는 이 분쟁이 가족까지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분쟁을 언급하시고, 54-59절에서 시대를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분쟁이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평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2:14)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이다. 참 평화에 반대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평화를 식

별하고 몰아내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 불의를 제거하기 위한 분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분쟁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요, 결단해야 할 시기이며, 선하고 악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

49절의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고통과 죽음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의 저항과 배척과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고의 시간은 회개를 위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화해하기를 힘써야”한다. “화해하기”는 “놓이기”(aphallasso)를 뜻한다. 빛을 진 자는 빛쟁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가기 전에 빛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빛을 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채무자가 상황파악을 잘 해서 채권자에게 고소당하지 않도록 해야 감옥에 들어가지 않듯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롬 5:1)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누가는 사랑과 선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다. 마태는 다가올 세상 ‘올람하바’(Olam Ha-Ba) 또는 고토회복을 희망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유한하고 불안한 이 지상 가나안땅이 아니고, 영원하고 안전한 저 하늘 가나안땅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에 집중하였지만, 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눅 2:14)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랑과 선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59절에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하였고, 중국에는 정치종교지도자들과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동굴무덤에 가두고 인봉까지 시켰다. 동일한 마귀는 지금까지도 성도에게 역사하여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저지하고 시험한다. 그러므로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45-51절)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49-53절)와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54-59절)고 교훈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와 성령 충만, 믿음과 나눔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기습과 시험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서 선악을 구별할 것과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이룩될 시기임을 분간하여 심판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정보를 이웃들에게 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8. 복음서시대 보통 사람들의 형편(눅 12:22-48)

군인

이 글은 로버트 냅(Robert Knapp)이 쓴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로마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Invisible Romans)>를 읽고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로마제국의 전체인구 6천여만 명 가운데 99퍼센트를 차지했으나 역사가들이 외면했던 평민남녀, 빈민, 노예, 해방노예, 군인, 매춘부, 검투사, 산적과 해적들의 이야기이다. 저자가 이용한 자료의 대부분은 그들이 쓴 편지, 비문, 낙서, 문학과 신약성서 등이고, 극히 일부는 지배계층이 쓴 역사와 희곡, 시 등이다.

신약성경 저자 중에는 누가가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인권이 말살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업이 귀했던 로마시대에 군인들의 삶은 보통사람들보다 안정적이고 윤택했다. 급여이외에도 충분한 양식과 생필품이 공급되었고, 법률상의 특권을 누렸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고,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군인은 중죄의 혐의가 충분한 경우나 중죄를 지었더라도 고문을 받거나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거나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맹수 우리에 던져지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군대는, 살아남는다면, 신분상승이 보장되는 유일한 제도였다.

반면에 군인은 두 가지 신(神)을 숭배해야 했다. 첫째는 황제

이고, 둘째는 유피테르였다. 로마군대는 국가와 동일시되는 황제를 위한 군대였다. 따라서 로마에 충성한다는 말은 황제에 충성한다는 말이었다. 황제는 인간들 속에 있는 신이었다. 그렇더라도 군인은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추가로 더 갖기도 하였다. 군인의 가족은 군대였다. 그런 이유로 결혼할 수는 없었으나 비공식으로 아내와 자식을 갖는 것에는 관용을 베풀었다.

퇴역군인은 중요한 세금이 면제되었고, 각종 사회봉사의무도 면제되었다. 퇴역군인에게는 면책특권이란 것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여 품위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도 갖고 있었다.

사병들에게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인물은 백인대장이었다. 군대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백인대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백인대장은 군사재판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었고, 사병의 진급과 전출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백인대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항상 뇌물을 바쳐야 했다. 그 때문에 백인대장들은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백인대장은 제대 후 소도시에서 지배계층에 진입하거나 지역의 시의원 혹은 수석 치안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백인대장은 일반 사병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다. 백인대장은 대기실이 딸린 커다란 방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백인대장은 막사에서 아내나 자녀와 함께 지낼 수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건축해 주고 수하의 노예를 사랑했던 백부장의 신분과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7:1-10).

평민

삶의 모든 것이 지배와 복종게임으로 이해되는 계급사회 속에서 로마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 질병, 전쟁, 폭력살인, 납치, 강간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야 했다.

제국의 전체인구 6천여만 명 가운데 대략 25퍼센트를 차지했

던 평민들조차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운명을 걱정해야 했다. 운명은 항상 나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컸다. 미래에 대한 이 같은 불안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능력에 맞춰져 있었다.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착취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굴종하는 식이었다.

죽음과 질병은 큰 걱정거리였다. 많은 아이들이 열 살 이전에 죽었고, 인구의 절반은 20세 무렵에 죽었다. 기대수명은 50세에 못 미쳤다. 가난과 빚도 큰 걱정거리였다(12:22,29, 7:41-42, 16:5-7). 가난 때문에 가정은 붕괴되고 가족은 노예로 팔리기 십상이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사치에 불과했다.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다.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는 불리한 것이었다.

불안한 사회와 경제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잦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듯이 여행에는 산적과 해적들의 위험이 뒤따랐다(10:30). 가난할수록 낮은 계급일수록 법 앞에서 불리했다.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도 문제지만, 판사에게 줄 뇌물이나 연줄이 없다면,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던 시대였다.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주인은 노예를 때리고 강간했으며 학대했다. 가장은 부인과 어린 딸을 매춘부로 내몰기까지 했다. 플라우투스 “여자보다 비참한 존재는 없다”고 했듯이,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 일 말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여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투표권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지배를,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았다. 폭력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참금을 되돌려 받고 이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다. 비문을 통해서 볼 때, 여성들이 일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은 1퍼센트에 불과했다. 가난은 젊은 여성들을 매춘부의 길로 내몰았다. 이 시대에 매춘은 합법이었고, 국가에 세금도 냈다. 그러나 매춘부의 대다수는 여자노예들이었고, 그 나머지는 입에 풀칠이 어려운 여성들이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무작정 당하고 산 것만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

들은 강했다. 심히 불평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조차 여성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남편의 강력한 동반자로서 인생의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로마시대에 범집행은 끔찍하고 잔인했다. 채찍질하거나 신체를 절단하고, 인두로 낙인을 찍기도 하고, 광산에 보내며, 효수시키거나 검투장에 투입시키거나 맹수들의 밥으로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평민들조차 노예와 해방노예와 상인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증오하였다. 폼페이에서는 “나는 가난한 자들을 증오한다.”는 낙서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무서운 가난과 착취와 폭력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좌절감이 너무 컸다. 일을 많이 할수록 보상이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길 것이 더 많아지는 현상에 상실감이 컸다. 그런 상황앞에서도 그들은 마냥 굴하지 않고, 운명의 가시밭을 헤쳐 나갔다.

빈민

로마제국의 전체인구 가운데 65퍼센트가 빈민이었다.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생존이었다. 출세나 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들의 형편은 “배를 채울 빵이나 입을 옷”이 없는 상태였다. 이 당시 가구당 일 년 최저생계비가 300테나리온이었다고 한다. 한 테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품삯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국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벼랑 끝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좌절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진 자들에게 저항했고, 더 좋은 세상을 꿈꿨다.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시대에 노예의 숫자는 로마시민권 자들보다 조금 많은 전체인구 중에 15퍼센트를 차지하는 900여만 명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노예들이었다. 더러는 노예의 자식들, 강도나 해적에

게 납치되어 노예상인에게 팔린 자들, 빚을 갚지 못해서 계약서를 쓰고 스스로 된 노예들도 있었다. 여기에는 빚을 탕감 받거나 굶주림을 면하려는 아버지들이 팔아넘긴 자식들도 있었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복종이 강요된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들은 24시간 노동과 폭력과 성적학대에 시달렸다.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얼굴의 낙인과 등의 채찍자국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흔적이었다. 노예들에겐 그 어떤 도덕심도 수치심도 남겨지지 않았다. 남녀 주인들이 남녀노예들을 애어른 가리지 않고 성 노리개로 마음껏 농락했기 때문이었다.

해방노예들도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다. 그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와 공무 및 회계업무를 책임졌다. 주인은 자기 재산을 굴리고 부를 창출하여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수족인 해방노예의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12:36-48, 16:1-10, 17:7-10, 19:12-27). 이로 인해서 능력이 남다른 노예나 해방노예들은 막중한 일을 책임 떠맡거나 부를 쌓을 수 있었다. 해방노예는 옛 주인을 후원자로 모셨는데, 후원자(patron)란 아버지(pater)란 뜻에서 나왔다. 해방노예의 책무역시 아들의 책무에 준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해방노예는 신분상승을 이룬 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노예공동체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노예와 자유인의 세계를 편하게 오간 역동적 존재였다.

로마시대에 여성들은 결혼하거나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성적 갈취를 당할 운명이었다. 수입이 째깍한 매춘의 유혹은 노예주인은 물론이고, 가난한 자유인 여성과 가장에게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남녀 매춘부(15:30) 대부분은 생사여탈권을 권 노예주인과 가장에 의해서 강요되었다. 그 당시 매춘은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매춘부들은 주인이나 포주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더러는 악랄한 착취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했지만, 더러는 돈을 모아 해방노예가 되거나 포주가 되기도 했다. 복음서가 기록된 때에 폼페이시민 1 퍼센트는 매춘부였다고 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복음이 오늘에도 고통스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여전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29.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위한 무장6(눅 13:1-35)

회개와 열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컬어 누가문서라 부른다. 누가문서의 테마는 순례, 성령, 기도, 배척이다. 순례는 예수님과 바울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주로 말한 것인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전체 24장 가운데 10장, 전체 분량의 42퍼센트를 담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초기교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셨고, 바울과 누가는 주로 헬라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였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교훈들은 대개가 문자적이고 역사적이지만, 헬라인인 누가에게는 또 그가 섬기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들의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교훈적인 뜻풀이와 의미가 담긴 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순수역사)과 기록된 사건(해석역사)의 차이점이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과정이나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과정의 모범이자 상징이다. 이 점에서 누가문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에 오르는 천로역정(天路歷程)이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된 빈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예루살렘'의 경우, 누가복음에 30회, 사도행전에 58회, 총 88회 사용되었는데, 신약성서 전체 138회 가운데 64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 누가복음에 27회, 사도행전에 4회 총 31회 사용되었는데, 신약성서 전체 56회 가운데 55퍼센트를 차

지한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36회 사용된 ‘천국’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93회 가운데 누가문서가 33퍼센트를, 마태복음이 43퍼센트를 차지한다. 누가복음 13장에서만 ‘예루살렘’이 4회, ‘하나님의 나라’가 3회 언급될 정도로 이방인기독교에 집중한 누가문서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월등하게 더 많이 언급되었다.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가로막는 마귀의 저항과 방해공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단한 무장이 필요한데, 기도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장비로 언급되었다. ‘영’과 ‘성령’이 누가복음에 38회, 사도행전에 69회, 도합 107회나 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 168회 가운데 64퍼센트를 차지한다. ‘간구’와 ‘기도’는 누가복음에 28회, 사도행전에 30회, 도합 58회나 된다. 신약성서 전체 113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퍼센트를 차지한다.

이것들에 더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회개촉구의 말씀들을 13장 1-9절에 배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열매로 무장할 것을 촉구한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게 될 것(7,9절)을 경고하셨는데,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멸망을 실제적 상황에서 경고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교회는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과 기록된 사건의 차이점이다.

새 패러다임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문자적으로 지상 예루살렘보다는 하늘 예루살렘에 더 관심이 컸다. 누가복음은 기독교직전시대에 대부분 유대인들을 상대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기독교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헬라인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소재로 꾸민 신화라는 틀 속에서 종교문화를 형성시켰던 사람들이다. 제우스를 포함한 12신들의 거처는 올림포스 산 정상이었다. 신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든지, 그들의 거처가 영원한 영적 세계라는 개념은 약했다. 헬라인들은 물질은 물론이고 추상적 개념인 사랑, 증오, 지혜, 용모와 같은 것들까지 신화의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들보다 능력이 많고 초월적인 것 말고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신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종교적이고 교훈적일 수는 있었지만, 철학적 정신적 영적 부분은 약했다. 그런 약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사상이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보이지 않는 본질세계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았다. 물질세계는 유한하고 변하며 변질될 수 있지만, 본질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보고, 이것을 이데아세계라고 불렀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들은 모두가 본질이고 참인 이데아세계의 그림자란 것이다. 그리고 이데아세계가 바로 영적 지적 세계요, 빛과 생명의 세계요, 본질과 참의 세계라고 믿었다. 여기서 현세와 내세를 구별하는 지혜가 생긴 것이다. 이 점에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나라를 영적 세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속한 곳(2:22), 예수님이 올라가 머물러계실 곳(2:41,43), 예수님이 속량하실 곳이다(2:38). 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 올라가야 할 곳이다(2:45). 그런데 마귀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전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고(4:9),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왕이 되셔야 할 곳을 처형장소로 삼았다(눅 9:31,51,13:22). 이것은 아이러니이면서 동시에 역설이다. 예수님은 지상 예루살렘의 유한한 왕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마귀와 그에게 동참한 자들이 실패자요, 하나

님의 구원프로젝트에서 악역을 담당한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은(눅 13:34, 18:31) 그 대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눅 21:20,24) 곳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볼 때,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 떠났던 자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가야 할 곳이다(눅 24:33).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눅 24:47) 곳이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눅 24:52-53)해야 할 곳이다. 궁극적으로 이곳은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려고 10-21절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한 말씀을 배치한 것이다.

좁은 문

예수님이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면서 촉구하신 회개는 무엇을 말씀한 것인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들을 어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이 이스라엘 멸망의 제1원인이라고 성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촉구는 계약법과 관련이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한이 지난 율법에 매인 폐쇄적 사고로 자신을 배척하고 새 언약시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22-3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길을 제시하시고, 이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단순히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를 의미할 뿐이다. 유대인들에게 본래 영적인 개념은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개념이 생긴 것은 구약성서의 기록이 끝난 다음인 헬라시대였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나안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있다. 그들의 조상은 떠

돌이였고 노예였다. 비록 모든 조상들이 떠돌이였거나 노예는 아니었을지라도, 민족사의 대부분이 떠돌이와 노예의 세월이었다. 그들에게 땅은 안식과 자유의 상징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야훼이시고 주신 분도 야훼이시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그 약속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책이 구약성서이고, 그 몸부림이 '게자이로트'(Gezeiroth)로 불리는 율법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땅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일 수 없고, 반드시 문자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유대교에서보다는 초기교회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이후 희망하게 된 다가올 세상 '올람하바'(Olam Ha-Ba)는 예루살렘에 회복된 다윗왕국이요,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예배와 유대교를 국교로 한 신정국가이다. 그러나 초기교회의 유대인 사도들은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유대인들만의 국가가 아니라는 새롭고 열린 사고(패러다임)를 가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하늘 가나안땅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가나안땅에 회복될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에 이미 세워진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 또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눅 4:43). 예수님은 이 나라가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나라(눅 6:20),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눅 9:2), 곧 세워질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죽기 전에 불 자들이 있을 것이며(눅 9:27), 이 나라가 가까이 와있다(눅 10:9, 11)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이다. 신약성서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배타주의를 폐쇄적인 율법주의 때문으로 보았다. 교회는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시작되어 주후 70년 예루살렘멸망 때까지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탄압을 받았다. 이후 물리적 탄압이 불가능해진 유대교 랍비들은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하루 세 번 제사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문 '쉐모네 에스레이'에 추가하여 기독교를 멀리하도록 하였다. 이 악연은 지난 2천년 동안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1(눅 14:1-35)

생명의 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마태복음에 20개, 마가복음에 18개, 누가복음에 20개씩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적이 다섯 개다. 첫 번째 고기 잡는 기적(5:1-11),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7:11-15), 18년간 귀신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기적(13:10-17),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신 기적(14:1-6) 그리고 열 문둥이를 고치신 기적(17:11-19)이 누가복음에만 소개된 기적들이다. 이들 기적들은 모두 생명의 일이었다.

누가복음에만 실린 비유들도 많다. 고리대금업자(7:41-43), 선한 사마리아인(10:30-37), 간청의 기도(11:5-8), 어리석은 부자(12:16-21), 열매 없는 무화과(13:6-9), 연회의 말석(14:7-14), 제자의 길(14:28-33), 잃었던 동전(15:8-10), 탕자의 아버지(15:11-32), 지혜로운 청지기(16:1-8), 부자와 나사로(16:19-31), 주인과 종(17:7-10), 끈질긴 기도(18:2-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10-14)가 그렇다. 이들 비유들은 대부분 기도와 선교에 관한 비유들로써 생명의 일에 관련된다.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비유들이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것들 가운데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신 기적(14:1-6)과 연회의 말석(14:7-14) 및 제자의 길(14:28-33)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만에 실린 것들이다.

수종(고창)병에 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6장 1-5절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은 이야기, 13장 10-17절에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함께 안식일 논쟁에 관련된 사건들이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마태라면 안식일 논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헬라인으로

서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누가까지 안식일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일 논쟁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초기교회에 안식일대신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초기교회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였다는 증거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다(행 20:7절). 또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한 음모와 관련이 있어서 누가복음에서의 안식일 논쟁은 배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식일준수는 제4계명에 근거한다(출 20:8-11).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출 20:10절). 셋째, 이 날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창조행위(Melacha)를 말한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창 2:2).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는 모든 창조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행위의 범주를 39가지로 이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출애굽기 31-35장에 언급된 성막(Mishkan)건축에 필요한 39가지 공정에 착안하여 만들었다. 성막구조는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막제조는 창조행위를 상징하므로 그 같은 창조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살림의 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치셨다. 수종병은 심장병이나 신장병의 하나로 심장병일 때는 다리, 신장병일 때는 얼굴이 붓는병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건져주는 것에 비교하셨다. 과연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들도 우

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건져주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안식일 법 가운데 ‘쭈드’(Tzud), 즉 가두기(뒧 또는 올가미 설치)가 있는데, 동물을 코너로 몰아 놀라게 하거나 만지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동물을 잡아 가죽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반대의 행위도 안식일 법에서는 통상 금지된다. 결국 안식일에는 살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안식일 법에 ‘자르기’나 ‘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자르기’(Kotzair) 금지법은 안식일에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을 지나 앞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살림의 일이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 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이었다.

또 6-11절에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인 ‘매듭풀기’(Matir) 금지법을 어기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을 보면,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분을 내며 책망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안식일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6장 9절에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안식의 참뜻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11,16절에 쓰인 숫자 18은 구속과 매임을 상징한다. 사사기 3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간 섬긴 일, 사사기 10장 8절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십팔 년 동안 억압을 당한 일,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느부갓네살의 십팔 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팔백삼십이 명이 된 것이 다 그렇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은 사탄에 매인 때문이었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자들은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누가복음 11장 37-41절에는 손 씻기 법 논쟁과 그릇 씻기 법 논쟁이 언급되어 있다. 손 씻기 법이나 그릇 씻기 법은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의식들이다.

자리의 일

누가복음 14장은 자리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첫 번째는 수종병이 든 사람이 식탁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다가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이다. 그는 제자리를 잘 선택함으로써 병 고침이란 행운을 안았다.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미리 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음으로써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 물론 그의 동료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병 낫음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서는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병 낫음이 더 절박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께 많이 고마워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초청받아 온 자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신분에 맞게 처신하라고 충고하신 말씀이다. 또 복을 받으려면 잔치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12절),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13절)고 권면하신 말씀이

다. 세 번째는 큰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제자리를 비우고 채우지 않음으로써 엉뚱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경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과 그 자리에 대해서 권면하셨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자리는 ‘토포스’(topos, 22절)이다. ‘토포스’는 ‘장소’란 뜻이며, 문학 철학 신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 “세상에는 그야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리가 있다. 놀자리, 술자리, 별자리, 든자리, 난자리, 낚자리, 안낚자리, 설자리, 앉을 자리, 잘자리, 죽을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맞선자리, 임신부 자리, 울자리, 웃을 자리, 부끄러운 자리, 자랑스런 자리, 일등 자리, 꼴등 자리, 빈자리, 그대가 머문 자리, 그대가 떠난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사랑을 나누던 자리...”

이처럼 자리란 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26-27절)고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제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필히 갖고 살아야 한다. 자기 자리가 부담되는 자리란 인식도 필요하다. 여기서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비용을 계산해보고, 손익을 따져보며, 비용편익을 분석해보는 것과 같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행위와도 같다.

예수님을 안식일 날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제자리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오해한 자들이다. 상석을 탐한 자들이나 초청을 받고서도 잔치자리를 채우지 아니한 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헌신과 희생보다는 명예와 권세를 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본분, 겸손, 배려, 직무에 대한 미덕이었다. 사람이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일어날 자리, 낚 자리 빠질 자리, 머리인지 뺨지인지를 알면 인생의 숙제가 반은 해결된다.” 또 “올라 갈 때와 내려 올

때를 알면 일 잘하고 뺏맞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자리의 일을 잘하는 것이 상 받을 일이다.

31.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2(눅 15:1-10)

하나님의 심정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선교비유가 있다. 이들 비유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 은전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의 심정,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있다. 여기서 양, 은전, 아들은 모두 잃었다가 찾은 것들이다. 그리고 목자, 여인, 아버지는 잃은 것을 찾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목자는 예수님, 여인은 성령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다.

누가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의 관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본 장에는 죄인의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이 피력되어 있다.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에 해당되는 잃은 자들이다. 2절에 등장하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하나님이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자들이다. 이 두 그룹의 대조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탕자와 순종적인 맏아들에서, 또 18장 9-14절의 두 사람의 기도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리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apollymi, 아폴뤼미)이란 단어가 8번 (4, 6, 8, 9, 17, 24, 32절) 나온다. 그 가운데 6번이 “찾은”(heure, 휴레)과 함께 대조되어 쓰였다. 또 15장에는 각 비유에 소유를 나타내는 “있는데”(ekon, 에콘)란 단어가 4, 8, 11절에 나온다. 이 말은 주인이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기

땀을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 그리고 “잃은”은 “죽은” 상태를 말한다. 24절과 32절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가 이것을 잘 설명해준다. 1절에 등장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한다.

누가복음 15장의 양, 드라크마, 아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다. 고대근동이나 그리스 로마시대에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자 재산이었다. 주인이 자기 소유물을 잃었다가 찾고 큰 기쁨을 누렸다. 예수님은 이들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란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잃어버린 자들이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란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당신의 곁을 떠난 자들을 기다리신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방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범주와 둘째 아들 탕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다. 맏아들,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택하시고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잃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버림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의의 새 옷을 입히시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시고(엡 6:15) 상속자의 증표로 손에가락지를 끼어 주시며 천국잔치를 베풀어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신다.

목자(예수님)의 심정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집나간 탕자의 모습과 겹치고,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비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께 불만을 털어놓은 순종적인 맏아들과 곱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613개 계명들을 무의식중에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랍비들이 만든 율법들(Gezeiroth) 가운데 음식법과 그릇 씻기법이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지지만,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淨)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음식법과 그릇 씻기법을 철저히 지킨 자신들의 집에서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조차 부정(不淨)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淨)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不淨)하다고 생각한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섞이는 것조차 부정(不淨)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비난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외식보다는 본질에 치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613개 계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율타리 율법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독점하며,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가두는 행위였다. 민족, 성별, 신분, 계급에 따라 율타리를 정하고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둔 예루살렘성전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구중궁궐이나 다름없었고, 유일하게 지성소 출입이 허가된 대제사장이야말로 지존(至尊)이었다.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계시자였다. 하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안전한 곳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간절하게 찾으시는 분이시다.

3-7절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은 소외된 자들의 대표이다.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의 상징이다. 자신들이 정(淨)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부정(不淨)하다고 생각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의미한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 불쌍한 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귀한 자식을 잃고 찾아 헤매는 부모의 아픔과 희생과 속상한 심정처럼 이들 잃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이다. 잃은 자를 찾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초비상상태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참 모습이다.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목자로 오셨고, 그들을 찾으시려고 공생애 내내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걸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잃은'은 목자에게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찾은'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찾은'은 '잃은'의 대가를 상쇄시킬 만한 기쁨을 선물한다. 그리고 죄인은 회개함으로 '잃은'에 따른 빛을 청산할 수 있다.

여인(성령님)의 심정

누가복음 15장 8-10절에서 예수님은 열 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다가 찾아내면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여인으로 묘사된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하신 것이다. 여기서 여인의 등불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조명의 사역, 즉 죄인을 깨우치시는 사역을 상징한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써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 드라크마는 이웃까지 초청해서 기쁨을 나눠야 할 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닌 돈은 아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그 돈이 예사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열 드라크마”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준 결혼반지와 같았다. “열 드라크마”는 줄에 꿰어있었고, 결혼한 여성의 머리장식에 쓰였다. 이 머리장신구를 잠자리들 때에도 풀지 않는다는 해설이 있고, 빛을 갓지 못했을 때에도 이 “열 드라크마”만큼은 차압당하지 않을 만큼 결혼한 여성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런데 이 “열 드라크마”를 펜 줄이 끊어져 드라크마들이 흩어졌고, 나머지 한 개를 찾지 못했다면, 여인은 돈 자체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 결혼 증표를 손상시킨 상실감으로 인해 이 은전을 열심히 찾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2천 년 전 보통 유대인들의 집은 구석돌과 초석 말고는 흙벽돌로 지어졌다. 대개는 벽면을 석회로 바랐고, 우리 말 성경에 23번 정도 “다락”으로 번역된 복층으로 된 집이었다. 지붕은 각목을 얹고 갈대나 나뭇가지들을 깐 후에 진흙으로 발랐다. 지붕이 슬래브 형태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다.

유대지방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지붕이 튼튼해야할 필요는 없었다. 1층은 짐승의 우리, 곡식저장고, 부엌 등으로 사용되었고, 바닥에 돌을 깔아 청결상태를 유지했다. 2층은 식사, 잠자리, 손님접대 등에 사용되었다.

2천 년 전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는 유리나 창호지와 같은 소재가 없었고, 비와 모래바람과 열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작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낮에도 집안이 어둡던 편이었다. 실제로 이 창구멍은 채광보다는 집안에서 피우는 연기를 빼내기 위한 굴뚝이었다. 드라크마를 펜 줄이 끊어져 바닥에 흩어진 10개의 드라크마 중 나머지 한 개를 마저 찾기 위해서 여인은 등불을 밝혀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하나가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아니한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구촌 6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존

재들이다. 선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 즉 1퍼센트를 잃었다고 그 양을 포기하지 않듯이,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는 1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 한 개가 있어야 온전한 사랑의 증표가 되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과 잃은 은전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심정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심정이다.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고 역설(力說)한다.

32.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3(눅 15:11-32)

아버지의 심정

탕자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집을 지킨 맏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차별이 없는데 반해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고, 형제사이에 생각하는 마음도 서로 다르다.

이 두 아들에서 신구약성경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맏아들은 유대교인들의 대표로서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쓴 것이 구약성경이다. 탕자는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이 탕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 신약성경이다. 맏아들의 입장, 즉 선민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탕자의 입장, 즉 이방민족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맏아들이든, 탕자든 다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탕자 또는 이방민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이 될 수도 있고, 복음적이 될 수도 있다. 율법적이란 맏아들의 태도를 말하고, 복음적이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심정과 밤낮없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탕자도 하나님의 자식이란 점이다. 그는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이다. 20세기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탕자를 일컬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였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란, 칼뱅의 주장처럼,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기독교인들은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울부짖으며 하신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막 15:34)이다.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외면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그 어떤 곳에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이 신약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이다.

칼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적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가?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신 반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신 반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고 하였다. 이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취하신 대신에 당신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역할에 대한 성찰

연속극이나 소설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삼각구도가 성경에서도 자주 쓰였다. 하나님과 사람과 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야곱과 라헬과 레아,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주인과 빛진 종과 그의 동료,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유대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혹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 예수님과의 삼각구도가 대표적이다. 예수님은 가진 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반면, 갖지 못한 자들을 옹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밥상교제까지 나누셨다. 오죽했으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눅 7:34)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복음서를 잘 읽는 방법은 삼각구도의 역할들, 즉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역할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삼각구도에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파악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부각시킨 채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도외시하거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만을 부각시킨 채 죄인들의 역할을 도외시하면 복음서이야기를 균형감을 가지고 읽을 수 없다. 보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여겨서 도외시해버리고,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부각시킨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죄인의 자리에 자신의 역할을 대입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의 역할을 대입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실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에 빠진 사람이 많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역할 또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외시된 역할이자, 반드시 채워져야 할 역할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좋아할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든지,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자기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그런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 중에도 자기우상에 빠진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역할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고 또 필요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나 복음서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의 역할 또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충고하셨고(마 6:8, 23:3),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살전 1:6, 롬 15:4, 고전 11:1, 빌 3:10, 딤후 1:13)고 수차례 권면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본받으라(엡 5:1)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추천하신 아버지의 심정은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환대한 사랑,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는 맏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해하라시면서 맏아들의 불평까지 감싸 안는 너그러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아들을 모두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이었다.

탕자의 심정

탕자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할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갖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마음도 있고, 꼭 본받아야 할 마음도 있어서 양면적이다.

첫째 아들은 순종적이고 모범적이며,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 보인다. 맏아들의 훌륭한 점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 하나님을 사랑”(막 12:30)하여 613개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계명들을 무의식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수많은 율타리 법들까지 부지런히 지킨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맏아들의 잘못된 점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눅 18:9) 바리새인한테서 찾을 수 있고, 집나간 동생을 걱정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자기만의 아버지가 되었고, 재산의 상속권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독점의식과 배타의 식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픈 마음이 커서 집안일에 무책임했고 열정도 헌신도 없었다. 생각이 온통 방탕한 삶에 있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아들한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점이다. 둘째 아들의 훌륭한 점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라고 회개한 세리한테서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18-21)라고 말한 탕자한테서 찾을 수 있다.

아버지는 탕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음” 아들로 여겼다. 이 24절의 말씀은 ‘죽음’을 ‘잃음’으로, ‘삶’을 ‘다시 얻음’으로 설명한다. 또 ‘죽음’과 ‘잃음’은 관계단절을, ‘삶’과 ‘다시 얻음’은 관계회복을 말한다. 아버지를 떠난 것과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것을 ‘죽음’과 ‘잃음’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삶’과 ‘다시 얻음’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죽음을 단절로, 생명을 회복으로 설명한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단절을 뜻하고, 영혼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단절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탕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깨진 관계는 회복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롬 6:23)는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회하는 심정이다. 탕자가 궁핍하여져 굶주릴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고 누우친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심정이 필요하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떨시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하는 세리
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
이다.

33.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4(눅 16:1-31)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

누가복음 16장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다. 16장에 불충한 청지기, 돈을 사랑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가운데 영원한 처소에 도달한 거지 나사로는 다소 난해한 불충한 청지기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이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22절)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데 반면, 부자는 죽어 타르타로스의 불 못에서(24절)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로는 “영주할 처소”(9절)를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13절)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과 혈통과 권세로 얻을 수 없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복음적 실천으로만 침탈할 수 있다(16절)고 말씀하셨다.

1절에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지요, 불충한 “청지기”는 모든 인간의 대표이다. 그는 빛의 아들도 되고, 이 세대의 아들도 된다. 그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자신이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인간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 것처럼 낭비한 자가 불충한 청지기였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제 것처럼 착각하여 함부로 쓴 자가 불충한 청지기였다.

그랬던 청지기가 깨닫게 된 것은 1절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세상의 평판 때문이었다. 유언비어는 민중의 신음이지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그의 평판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닿았다. 2절에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죽음과 심판을 뜻한다. 여기서 “직무” 또는 “직분”은 생명 또는 목숨을 뜻한다.

죽음은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아야하는 순간이다. 다행한 것은 이 청지기가 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점이다. 그 행위가 빛진 자들의 빛을 감면시켜 준 것인데, 회개를 뜻한 것이다. 청지기는 삭개오의 심정으로 자신이 고리로 착취하고 괴롭혔던 빛진 자들을 불러 빛을 깎아주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투자와 증식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불법으로 증식한 재물을 풀어 피해를 입혔던 자들에게 화해를 청한 것이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9절)는 말씀이 이 뜻이다.

비유에서는 빛진 자 두 명이 대표로 언급되었다. 청지기는 그들을 불러 보통 노동자의 일이 년 치 품삯에 해당되는 500데나리온씩 동등하게 감면해 주었다. 6절에서 “기름 백 말”은 올리브나무 92그루에서 짤 수 있는 2,300리터의 기름으로써 1,0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되는데, 그 절반을 감면시켜줬다. 7절의 “밀 백 석”은 27,500킬로그램이고 2,5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20퍼센트를 감면시켜줬다.

10절의 “지극히 작은 것”은 11절의 “불의한 재물”을 말하고, 10절의 “큰 것”은 1절의 “참된 것”을 말한다. 청지기는 “지극히 작은 것,” 즉 “불의한 재물”을 풀어 “큰 것,” 즉 “참된 것”을 샀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이다. 재물은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인간의 우상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의 어리석음

14-18절의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지, 돈을 사랑하거나 스스로 옳다는 자기우상에 빠지거나 사람 중에 높임을 얻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할 수 없다는 교훈이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과 재물을 숭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불충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들었는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긴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재리에 밝고 돈을 밝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 6:10)거나 13절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교훈한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재물관을 보여준 것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두 종교에 왜 차이점이 생긴 것일까?

구약성서에는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내세의 개념이 없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존속을 위한 언약(모세오경)과 언약준수여부에 관한 성찰의 글(예언서)과 섬김의 글(성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은 땅의 소유와 그 땅에서 누리는 부와 장수와 자손의 개념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은 전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 그 복을 얻자면, 실용적이고 공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가나안 땅을 내세의 천국 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안식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주할 처소”를 준비한 청지기와 나사로를 부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눈다. 언약법과 랍비들의 율타리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정한 것이고, 정한 것만 먹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반(反)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가난과 질병은

부정한 삶에 대한 대가란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였다. 정한 것만 먹고 행하는 거룩한 삶은 그 대가가 부와 명예와 권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부는 거룩한 삶에 따른 당연한 대가이고, 복의 상징이였다. 유대인들의 재물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여기서 나왔다.

유대인들은 수천 간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다. 시민권도 참정권도 없이 남의 나라에 얹혀살았던 유대인들이 해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돈뿐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고 돈을 불리는 수완을 키웠고 그 방법을 후손에게 전수하였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만들고, 세계경제를 손에 쥘 수 있었던 이유이다.

소수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공동체의식이 남달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표시를 몸에 지닌 선민공동체였기 때문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떠돌이 민족이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푹푹 뭉칠 수밖에 없었고, 구제에도 적극적이었으나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뒀다.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갖는 어리석음과 음부의 세계에 있는 타르타로스에 들어간 불쌍한 부자의 상징이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것” 곧 “참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재물”은 명예와 권세와 더불어 “작은 것”에 불과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참된 것”은 “큰 것”으로써 영원하고 복된 것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상시하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바, 보물을 하늘에 쌓아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게 되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현대 투성이의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며, 혼한 이름이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마 6:20)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결론부분이다. 여기에 천사와 음부가 나온다. 음부는 그리스신화에 나오지만, 천사가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엘리에셀), 천사, 아브라함은 모두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건들 속에 출현하는 인물들이다(창 15:2, 19:1).

구약성서가 말하는 ‘음부’(하데스)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무덤을 의미한다(행 2:27). 그러나 23절의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는 타르타로스를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신화는 음부가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신화에서 음부는 지상세계와 여러 강들로 연결되는데, 비통의 강에서 시작되어 시름의 강과 분노(불)의 강을 거쳐 망각의 강으로 이어진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 너른 별판이 나오는데, 별판 건너편에는 증오의 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낙원인 엘뤼시온(샹젤리제)이 있으며, 왼쪽에는 지옥인 타르타로스가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하나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천국이라 불렀다. 그리스신화가 낙원을 지하에 있다고 말한 것과 차이가 난다. 또 신약성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못 받은 것에 따라서 낙원과 타르타로스로 나뉜다고 가르친다. 신약성서에서 낙원이 지하에 있다는 암시를 보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타르타로스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벧후 2:4) 혹은 “흑암에”(유 1:6)란 표현에서 보듯이 지하를 연상케 한다. 베드로와 유다는 이곳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 심판 때까지” 가두는 곳으로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무저갱”과 “불과 유황 못”이 있는데, 무저갱은 화산의 용암 구덩이(계 9:2)를 연상시킨다. 무저갱은 적대세력인 박해자가 나오는 곳이고(계 11:7), 사단이 일천 년 동안 갇히는 곳(계 20:3)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 못”(계 20:10)은 예수님 재

림이후에 생길 영원한 지옥이다. 이곳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상반된 곳이다.

부자는 왕처럼 입고 먹고 행세했지만, 제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개념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와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하고 혼자 의인인척 외식하며 호의 호식한 삶의 대가는 “불과 유황 못”이다.

34.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5(눅 17:1-19)

용서, 믿음, 순명(順命)

누가복음 17장 1절의 “실족케 하는 것”(skandalon)은 덩, 울무, 함정 등을 의미한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울무를 놓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모의했던 것(마 22:15)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곤”(눅 6:7) 했던 것이 여기에 속한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고 하셨다.

2절의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지칭한 것일 수 있으나 제자, 믿음이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을 말한 것일 수 있다.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3-4절의 용서에 관한 말씀은 1-2절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당할 화와 상반된 말씀처럼 보인다. 3-4절에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형제의 범위에 서기관

과 바리새인들이 포함되는지가 불확실하다. 제자들과 보통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범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용서해야한다는 점에서는 형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형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형제를 헛수에 제한두지 말고 무한정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5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달라고 청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청한 제자들의 말속에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몰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라는 반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매우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해도 그것이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다. 그리고 7-10절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며,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여전히 좋은 주인에게 자신이 무익한 자라고 말해야 하듯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명(順命) 할 것을 충고하셨다.

가톨릭에서는 순명(obedience)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따르는 태도를 말한다. 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순명은 그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절대 순명이다. 절대 순명한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노예의 절대복종

노예의 절대복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다.”고 한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한 것은 자기운명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삶 자체가 처참하였다. 가난했고,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언제 난리를 겪을지, 언제 노예로 팔릴지, 언제 겁탈을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던 때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와 바울은 만민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쳤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다.

바울 당대에 노예는 소 돼지와 같은 주인의 재산목록에 불과하였다. 로마제국은 해방노예들에게 일반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지만,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가 있었다. 또 노예는 동물처럼 노예시장에서 매매되었고, 몸에는 불 인두로 지진 노예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인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노예의 몸에 새겨진 주인의 흔적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표현이 자기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노예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만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노예의 운명이 그렇듯이, 절대 순종이라면, 그것이 도를 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할 것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어떤 절대운명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절대 신(神)이시지만, 절대 신이시기 때문에 갖는 제한이 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도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의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기할 만큼 절대 신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들에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믿을 만하시다,’ ‘사랑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가 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엿매는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 신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속박도 없을 것 같은데, 절대 신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 없는 어떤 속박과 제한이 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이기 때문에 꺾어야 하는 제한과 속박, 연예인이기 때문에 꺾어야 하는 제한과 속박처럼 하나님께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때, 자신의 운명적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운명적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총과 감사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사마리아 접경에 도착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씀이 나온다. 9장 52절의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입성이 막혔고, 동편지역으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계속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데가볼리와 베레아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데가볼리와 베레아를 갈릴리에 속한 지역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11절에서 누가가 언급한 ‘갈릴리’는 사마리아에 인접한 ‘베레아’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 당시 요단 강 건너편 동쪽지역에 북쪽으로 데가볼리와 남쪽으로 베레아가 있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편과 사마리아 북쪽에 접경한 지역이었고, 베레아는 사마리아와 유대지방에 인접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베레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데가볼리는 마태복음에 한 차례, 마가복음에 두 차례 나온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이란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 사마리아가 빠져있다. 사마리아는 데가볼리처럼 마태복음에 단 한차례 언급되었는데, 이방인과 동일개념으로 취급되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지역이 두 번, 사마리아 사람이 두 번, 사도행전에 여덟 번 언급되었다. 누가문서에서 사마리아인은 여행에서의 배척을 강조하는 9장 52절을 빼고는 10장 33절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17장 16절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서 보듯이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셨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 앗수리아의 침략으로 철저히 붕괴되었고, 이후 사마리아에 잔류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피와 종교가 섞이게 되었다. 그들 역시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남쪽 유대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비유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보아진다.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다. 기독교는 민족성별과 빈부귀천의 차별을 없애고, 야훼를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열방 민족의 하나님으로 원위치 시켜드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바울과 누가와 같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받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 여

기 사마리아인도 나병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나병을 고침 받은 열 사람이 모두 유대교를 믿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이란 천형에서 건짐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다. 지옥의 형벌이란 천형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한다면,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백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

35.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할 덕목6(눅 17:20-37)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동문서답이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하나님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신정국가를 뜻한다. 회복된 다윗왕국을 말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루 세 번 바치던 희생제사와 성전예배가 회복된 왕국을 말한다. 유대교를 국교로, 토라계명을 헌법으로 한 신정국가의 재건을 말한다. 유대왕국이 사라진 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였다. 이후 유대인들은 제2모세가 출현하여 빼앗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되찾고 유대왕국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어왔다. 그 다가올 나라를 '올람하바'(Olam Ha-Ba)라 부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가 지상 가나안땅이 아니고, 하늘 가나안땅인 '낙원'이라고 믿었다. 낙원은 영혼들의 나라이다.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을 기다리는 곳이다. 참되고 영원하며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다가올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출범될 것이라고 믿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크고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지상에 출범되었다는 것이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회중을 말한다. 교회도 낙원처럼 영적인 나라이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부활의 몸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낙원

인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순례하는 공동체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출범되어 성령님께 이끌리는 공동체이다. 그 모형이 모세시대의 광야교회이다. 히브리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사막에서 40년간 구름기둥에 이끌리어 가나안땅을 향해 순례하였다. 순례를 마친 후 그들은 지상 가나안땅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땅이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상 가나안땅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자 지복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613개의 계명과 그 계명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만들어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려했던 땅을 지키지 못했고 수천 년간 떠돌이가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이끌림도 없고, 이미 이뤄진 하나님나라의 개념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20-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나라가 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늘 가나안땅인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인 동시에 이미 오래된 나라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누가가 예수님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특징으로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2-25절은 이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25절에서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셨

다. 그리고 23절의 경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여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었다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 세레 요한, 예수님, 발 코크바, 사베타이 제비가 포함된다. 유다 마카비는 예수님보다 한 세기 앞선 사람이고, 세레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다. 발 코크바는 예수님보다 한 세기 후의 사람이고, 사베타이 제비는 17세기 사람이다.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는 헬라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켜 하스몬가왕가를 세웠고, 주전 64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100년간 주권을 지속시킨 영웅이자 혁명가로서 모쉬아크(메시아)에 준하는 인물이었다. 발 코크바(Bar Kochba, 별의 아들)로 불린 코시바의 아들 시몬(Simon ben Kosiba)도 뛰어난 혁명가였지만,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로마에 무너짐으로써 유대인들에게 1,800년이 넘게 시련과 실망(Kozeba)을 안긴 인물이었다. 사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는 1665년 유럽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1666년에 이슬람교로 전향한 전형적인 거짓 모쉬아크였다.

민중이 세레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그가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헤롯 안티파스도 요한에게 관심을 보였고, 두려운 나머지 살해하였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는 수천 명의 만다교(Mandaeism)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세레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하나님나라가 임하기전에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설립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보이는 지상의 하나님나라요, 완전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오래된 하나님나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완전한 하나님나라를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라고 불렀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죽으시고 부활

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날도 유월절 날 이집트를 탈출하여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넌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다. 이 옛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탄생되었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탄생되었다.

2천 년 전 보통 유대인들의 집 다락(2층)은 식사, 잠자리, 손님접대에 사용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이 숙식하는 곳이었고, 집회 장소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었다(행 3:11, 5:12).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눅 24:53), 관행에 따라 하루 세 번 기도문(쉐모네 에스레이)을 암송했는데(행 3:1, 10:9),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성전의 뜰에서 했다(행 3:1).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시간은 오전 9시 기도시간이었고, 오순절 순례자들이 운집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성전의 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결단

누가복음 17장 26-37절의 말씀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한다. 이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우주종말을 준비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개인종말을 준비하라는 경고내지는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촉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아 때의 홍수심판과 롯의 때의 유황불심판이 우주종말을 경고하는데 쓰이는 사례들이긴 하지만, 노아 때의 홍수심판과 롯의 때의 유황불심판이 곧 바로 우주종말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 사례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고, 그것이 우주종말이든 개인종말이든 간에, 신속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롯의 처처럼 머뭇거리서도 안 된다. 우주의 끝이든 인생의 끝이든 그 끝은, 34-35절의 말씀처럼,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고, 도둑이 예고 없이 들듯이 느닷없이 찾아온다(마 24:43). 그러므로 지금 당장 회개해야한다.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12장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15절)고 이미 경고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21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19절) 것으로 써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20절)고 물으셨다. 또 예수님은 16장에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셨다. 재물로는 “영주할 처소”(9절)를 살 수 없다고 교훈하셨다. 예수님은 이곳 17장에서 세 번째로 경고하셨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27절) 것과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28절) 것만으로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고하셨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멧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31-35절).

예수님 당시 로마사람 절반이 20세 무렵에 죽었다. 고려시대의 귀족과 왕들의 평균수명이 40세였다. 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은 24세였고, 왕들도 47세에 불과했다.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 2050년쯤에는 15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수에 있지 않고, 죽음에 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대과학의 업적에 너무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는 순식간에 닥친다. 전쟁, 테러, 지진, 태풍, 홍수, 폭설,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가 언제 우리에게 덮칠지 장담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혼인집인가, 초상집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전 7:4)고 했다. “룻의 처를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다.

36.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7(눅 18:1-43)

오만에 눈이 멀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 오만에 빠진 바리새인, 미몽(迷夢)을 헤매는 제자들, 부유한 관리는 모두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다. 그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여리고의 맹인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2-8절의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을 가진 과부이야기는 8절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에서 보듯이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다. 42절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에서 보듯이 믿음은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불의한 재판장의 단점은 2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있고, 원한을 가진 과부의 장점은 1절의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한데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악한 자라도 행복하고 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지 않겠으며, 속히 마음의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7-8절의 교훈이다. 불신은 시력을 잃게 하지만, 믿음은 시력을 되찾아준다. 믿음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게 해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한을 풀지 못한 가련한 과부가 믿음이 없는 재판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듯이, 믿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세태를 한탄하셨다.

9-14절의 오만에 빠진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지은 죄를 회개하는 세리이야기도 믿음의 시력에 관한 교훈이다. 믿음의 크기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도 풀린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눈뜬 소경 즉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막 8:18).”형제의 눈 속에 있

는 티는 보고 제[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마 7:3)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9절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털어도 먼지하나 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전 뜰 중앙에 서서 자기 의를 하나님에게 큰소리로 늘어놓았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절).

오만은 응보를 부른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는 율법과 규례(장로의 유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의 본질이 사랑이란 것을 몰랐다. 본질보다는 외식에 눈이 멀어서 자기 부족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허공만 친다. 회개가 없는 행위는 교만만 키운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자신의 진실을 보는 시력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더 높임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훌륭한데 있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데 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성전 뜰 한구석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13절)라고 속으로 응얼거렸다.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15-34절은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한 제자들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한 부유한 관리에 관한 교훈이다. 31-3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겪게 될 고난에 대

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고했을 때, 34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하나님의 인류사랑에 대한 깨끗하고 순전한 가치를 제자들이나 부유한 관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와 명예와 권세에 어두워지고 더럽혀져 순수하고 맑지 못했기 때문이다. 34절에서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수난예고가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고의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뜬다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손에 넣고자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영안이 열려 하나님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본 후부터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다.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는 43절의 결론말씀처럼 그들의 시력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그 열매가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31-33절의 말씀처럼,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험한 가시밭길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16-17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맑고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아지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관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율례를 충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때문이었다. 그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는 분명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지상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받고자한 계명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의무사항을 지켰을 뿐이지, 하늘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받을만한 믿음의 행위는 못되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23절에서 그 관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던” 것은 유대인의 상식에서 그가 소유한 재산은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킨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란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복의 개념과 기독교의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영원하고 참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 부와 명예와 권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

믿음으로 눈을 떠서

35-43절에서 믿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41절에서 믿음은 자비를 입게 한다. 42절에서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한다. 43절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며, 이를 지켜본 사람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시작한 10장부터 오름이 끝나는 19장까지의 기사들은 대부분 누가복음에만 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요단강 동편지역, 지금의 요르단에 속하는 베레아 지방에서의 사건들이다. 이 지방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 지역이다. 주후 30년 겨울에 갈릴리를 출발한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초봄에 요단강 하류 여리고 근처에 다다랐다. 그리고 35-43절은 여리고 근처 길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맹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 이냐고 묻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소리 쳐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였다. 사람들의 방해와 배척이 있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호소하였다. 가련한 과부의 반복적인 한의 소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그의 반복적인 애절한 외침은 예수님의 관심의 끈에 성공하였고, 그의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믿음은 예수님의 자비를 입기에 충분하였다.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처럼,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잘 안 애끓는 맹인의 호소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물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절에서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눈을 뜬 후에 만물을 밝히 보듯(막 8:25)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을 우매한 소경이라고 질타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낡은 가치관과 낡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어둔 현실에서 밝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뜻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동굴에 갇힌 죄수가 족쇄를 풀고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눈을 뜨다는 것은 눈뜬 한 사람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눈먼 한 사람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눈뜬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 눈먼 사람들이 눈뜬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눈뜬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눈을 떠서 실체를 밝히 보고 살림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자.

37.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8(눅 19:1-10)

간절함

누가복음 19장 1-10절에 소개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는 앞서 소개된 맹인 이야기와 연결된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묻고 알고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고 간절히 호소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비를 입고 눈을 뜬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맹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신 것을 일러준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끈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다. 예수님도 긴 광야 길을 끝내시고 이곳 여리고에 입성하시어 의미 있는 구원사역을 펼치셨다.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된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여리고성 정복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여리고 사역은 그리스도의 평화군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 1:8) 복음의 증인이 될 예시(豫示)였다.

여리고는 요단강 하류에 있고,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여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등 온갖 작물이 풍성한 곳이다. 유대광야 근처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킬로미터이며 오르막길이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미터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의 고도가 무려 1020미터에 이른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1100고지휴게소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이곳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다. 당시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였다. 회당 출입이 금지될 정도였다. 유대인이자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와 죄인”을 세 번, “세리와 창녀”를 두 번, “이

방인과 세리”를 한번 기록하였다. 헬라인이자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누가는 “세리와 죄인”을 세 번 기록했으나 “세리와 창녀” 및 “이방인과 세리”는 생략하였다. 마태복음에 세리에 대한 모멸적 표현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다양한 것은 마태가 모멸을 당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리를 창녀와 이방인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세리를 죄인으로만 취급하고, 창녀와 이방인의 범주에는 넣지 않았다.

로마시대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는 반 세겔(이틀치 노동품값)의 세금과 십일조 이외에 로마가 물리는 각종 세금들을 내야 했다. 그 가운데 인두세가 있었는데 12세(혹은 14세)부터 65세까지 한 테나리온씩(하루치 노동품값) 바쳐야 했다. 유대인에게 로마에 인두세를 바치는 행위는 이방인에게 맹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다.

세리직은 월급을 주지 않는 도급제였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여 할당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제몫을 챙겼다. 할당액보다 많이 거둘수록 세리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였다. 2절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소개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3장 12-13절을 보면, 세레 요한이 세리들에게 충고하기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할당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 착복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과도한 세금부과는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혐오한 또 다른 이유였다.

목마름

‘삭개오’란 이름은 ‘의인’(zaccai)이란 뜻이다. 에스라 2장 9절과 느헤미야 7장 14절에서는 ‘삭개’라고 불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150-c.215)에 의하면,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한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가 지닌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3절에서 “보고자 하되”는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뜻도 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아서였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4절에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장애를 극복할만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심겨진 돌무화과나무를 발견했고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가나무는 뽕나뭇과 속하는 나무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확히 돌무화과나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에는 아름답리 뽕나무들이 가로수로 심겨져 있다. 여리고 길가에 심겨진 뽕나무 혹은 돌무화과나무도 삭개오가 타고 올라갈 만큼 충분히 큰 나무였다.

그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의 간절함은 자비를 입기에 넉넉하였다. 5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6절에서 삭개오는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7절에서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였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죄인과 식탁교제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거나 가난 때문에 유대교의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세리들은 부유했지만, 로마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자들이었던 만큼 음식법과 같은 율법의 규례들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이나 식탁교제는 율법의 규례들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계명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율타리 법들이고 계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법이나 안식일 법들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동일한 '손 내밀기'와 '생명구하기'였다. 삭개오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다. 삭개오는 마음의 병을 간절히 고침 받고 싶어 했다. 그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살림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을 내밀어 이웃의 내민 손을 잡아줄 때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 찾음

삭개오는 자신의 내민 손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 주셨을 때, 마치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한 것처럼, 8절에서 예수님께 말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비유가 있다. 여기에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여리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여리고 사람 삭개오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는 여론의 못매를 맞아 정신적으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다. 강도에게 옷을 빼앗기듯 질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행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 사람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손을 잡아준 누군가가 있어 강도만난 자가 살아났다. 그는 그 사실을 소중히 간직했을 것이고, 자기처럼 강도만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을 것이다. 그렇게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 메마른 세상을 적신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매국노니 죄인이니 하는 따위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명분보다는 부를 택할 만큼 충분히 실리적이고 공리적이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음부에라도 갈 사람이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랜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에게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삭개오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다(5:5). 그가 부자였다는 것 빼고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에게 삶의 깊이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어부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듯이, 또 세리 마태를 부르셨듯이,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은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의 상징이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은 인간들의 오랜 목마름의 상징이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은 인간들의 오랜 헛수고의 상징이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은 인간들의 오랜 출렁임의 상징이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은 인간들의 오랜 병듦의 상징이다.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5장에서 어부들의 빈 배를 채우시고(1-11절), 문둥병자(12-16절)와 중풍병자(17-26절)를 고치시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27-39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27-32절). 예수님

의 평화군이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건강한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가득 채워진 현장이 아니라, 비어 있는 현장일 것이다. 그곳은 배부른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현장일 것이다.

38.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1(눅 19:11-48)

오름의 시작과 끝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진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 시온에로 향하는 오름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온이 끝은 아니다. 아직도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 불리는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를 따라 오르는 골고다의 길이 남아 있다. 이 골고다 언덕도 끝은 아니다. 가장 고통스런 십자가에로의 오름(못 박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아직 아니다. 동굴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로 오르는 영광의 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 삶이다.

높은 산은 대개가 정상을 눈앞에 두고 밧줄을 의지할 만큼 급경사인 경우가 많다. 정상을 밟으려면 남은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킬로미터이며 오르막길이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미터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760미터에 있어서 고도차가 1,020미터에 이른다. 오아시스를 떠나 돌산을 향해 오르는 험난한 길ियो,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다.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깝지만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젓 먹던 힘까지 다 쏟아야하는 길이다.

1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고 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포로기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왕국이요, 신정국가이며, 회복된 다윗왕국이다.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올람하바’(Olam Ha-Ba)로 부른다. 이 나라는 교회가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이 나라는 빼앗긴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며, 성

전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유대왕국이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종종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신정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제2모세 또는 제2다윗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메시아이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목적이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라고 믿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혁명을 위한 전쟁은 곧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곧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였고 절박한 희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희망이다. 그러니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가를 놓고 다투고, 서열을 정하려는 암투가 벌어졌으며,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자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흥분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유대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마 9:36)해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마 4:16).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마 9: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교훈하실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르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문자적인 지상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였다. 그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혁명가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였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는 메시아인 제2의 모세 또는 제2다윗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들 가운데 충만하였지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하였다. 메시아인 제2모세 또

는 제2다윗의 출현이 수백 년간 지연되었듯이, 곧 돌아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도 지연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궁금해 하였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하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열 므나 비유를 통해서 지연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열 므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누가가 이것을 복음서에 소개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누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되고, 2천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된다. 이것이 역사기록의 진가이고 역사해석의 중요성이다.

누가의 역사해석은 이 시대가 교회시대요, 성령시대이며, 은혜시대요, 구원받을만한 시대란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는 잠정적인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의 공동체이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선수금)하시고 인(인감)치시며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마음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낙원도 잠정적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구원받은 영혼들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교회와 낙원을 잠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교회시대가 지속되어질 것이고, 낙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열 므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바라는 동안 장사 즉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이다.

1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깝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역사적 정황이요, 문자적 사실인 동시에 누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요 생각이었다. 초대교회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열 두나 비유를 소개함으로써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장사 즉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12절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간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시다.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일을 맡기셨다. 증인의 일이란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눅 24:47-49)되는 복음장사를 말한다. 이 장사는 1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복음장사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을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17절)하는 종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은 지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끝은 하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우편보좌이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환영하였지만(37절),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가까이”란 표현만 썼다. 여리고(11절)와 베다니에서 썼다(28절). 이밖에도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29절)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란 표현을 썼다. 이처럼 누가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을 뿐이지, 입성하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28절)고 적었다. J장군 예수님이 평화군을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10:9,11, 21:31)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 이것과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11절)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 보인다.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37-38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 찬양은 마가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막 11:9-10)와 마태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마 21:9와 조금 다르다.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것만 강조되고 입성사실을 부각시키지 아니한 이유일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지 땅의 왕이 아니시다. 영적인 왕이시지 문자적인 왕이 아니시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찬양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3-14)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부른 찬양은 “하늘에는 평화요”(37-38절)였다.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였다. 하늘 예루살렘이 가까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평화를 누릴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의 평화를 넘어 하늘에서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41절). 예수님이 바라보신 예루살렘은 참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름뿐인 ‘평화의 도시’ 즉 평화가 없고 평화를 모르는 도시였

다. 이 성민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었다. 그 대가가 과열이었기 때문에 안타가워서 우셨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주후 70년 유대-로마전쟁의 패배로 철저히 붕괴되었고, 이후 유대인들은 1878년간 모국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잡아 죽일 방도나 찾는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다 (41-48절).

39.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2(눅 20:1-18)

기독교인들의 공모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은 배척으로 시작해서 배척으로 끝난다. 누가복음 20-24장은 예루살렘에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이뤄진 배척사건의 이야기이다. 배척에 집중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의존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였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엄숙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 날은 기도와 안식으로 여독을 푸셨다. 예수님은 4월 2일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방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하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19:45) 날은 월요일이었다.

20장 1절의 “하루”는 4월 4일 화요일을 말한다. 따라서 19장 47절의 “날마다 성전에서”에서 “날마다”는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짧은 3일간을 말한다. 그리고 입성 3일째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70인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1절) 따져 물었다. 2절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압박질렀다. 이 물음은 “당신이 오실 자 메시야냐?”고 물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9-28절을 보면, 이들은 3년 6개월 전 쯤에도 동일한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질문의 핵심은 “네가 그리스도냐?”는 것이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들이 메

시아의 출현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새 세상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답변 대신에 공회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4절)고 물으신 것은 이런 배경에서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불륜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여 죽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득권층은 선지자들을 거부하였다.

세례 요한은 민중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고 광야에 나갔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 사는 수천 명의 만다교(Mandaeism)인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 한 자루 몸에 지니지 아니한 예수님을 반란자로 죽이려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메시아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민중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적극 찬동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혁명가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메시아를 받아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기득권층의 반란

9-18절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유대교에 맡겼던 역할을 빼앗아 기독교에 넘기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이다. 유대종교지도자들과 그들 종교의 실패를 더는 내버려두지 않고 교회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이다. 16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한 말씀이 그 증거이다.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 혹은 이스라엘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을 말한다. 그 열매를 받아오도록 보냄을 받은 종들은 예언자들이며, 그 주인의 아들은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14절)한 말의 뜻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실,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데서 드러났다. 기득권 세력은 새 세상을 원치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 한 자루 몸에 지니지 아니한 예수님을 반란자로 죽이려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확신이 섰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메시아신분을 드러내신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 신분이 노출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곧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아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독점한 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교제를 거부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유대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타민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 분밖에 없는 신을 독점해 버렸으니, 타민족들에게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서 유대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이외에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손씻기법과 같은 수많은 율타리법들과 관습법들을 만들어 방어막을 겹겹이 쳤다. 이 신(神)의 독점의식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단 한 개의 성전만 허락되었다. 그나마도 하나님을 지성소에 묶어 뒀다. 그 하나님을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법궤 앞에서 두서너 차례 독대할 수 있었다. 보통사람들은 성전내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일신 하나님이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신 때는 외침들에 의해서였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능욕당하는 치욕이 있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16절),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봉사자로 세워 열방선교의 그릇으로 쓰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조상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해버렸고, 안식일법과 정결법과 같은 율타리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 즉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식탁교제를 차단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히 10:9).

기득권층의 참패

9절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세상 혹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이다. 또 “세(費)로 주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타국”은 천국을 말한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옛 언약백성인 유대인들이 언약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새 언약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실 것을 말한 것이다.

10-12절에서 농부들은 주인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번번이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방법을 찾다가 외아들까지 보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뉘우치기는커녕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인의 외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끌고나가 죽였다. 여기서 “외아들”은 예수님을 말한다. 외아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었다는 누가의 진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암시한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2-13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말한 것이고, 그 오름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며 자기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자는 말씀이다. “성문 밖에서”가 강조된 것은 지상 예루살렘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16절의 “농부들을 진멸하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진멸 당할 것을 암시한 것이다. 또 17절에서 버림당한 돌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을 말한다. 18절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딪힌 자들 즉 유대인들의 말로를 예언하신 것이다.

유대총독 플로루스(Gessius Florus, 64-66년)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후 66년에 성전 금고에서 금 17달란트를 강탈하자 분개한 유대인들이 “불쌍한 플로루스”를 위하여 적선하라며 조롱하였다. 이에 총독은 수천 명씩 유대인들을 반복해서 살육하고 약탈하였다. 격분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독립전쟁으로 발전되었다. 예루살렘은 혁명가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유대-로마전쟁은 비극적 참패로 끝났다. 로마군이 수적으로 우세했던 점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내부 분열과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욕은 사람들을 급진파 보수파 온건파로 갈라놓고 자기편끼리 물고 뜯고 살육하게 만든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정권을 잡고 흔들며,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이다.

전쟁의 실패가 준 대가는 너무 컸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다.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해야 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으며 1878년간 모국을 갖지 못하였다.

40.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3(눅 20:19-47)

인두세 올무

19-26절은 정치적 논쟁으로써 인두세에 관한 이슈였다.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의 관심과 일은 온통 손에 쥔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보수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들이 로마정부에 뇌물을 바쳐서 지켜온 권력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직책도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아니한 떠돌이 예언자를 한 마음으로 체포하여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로 올무를 놓아 책잡으려고 교활한 자들을 뽑아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속이면서 예수님의 입에 올무를 놓았다. 그 첫 번째가 로마황제에게 세(貫)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를 말씀해 달라는 간계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간단히 응수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26절)고 했다.

예루살렘은 그 의미가 ‘평화의 도시’요 다윗이 세운 도시였다. 또 국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물로 바치려했던 모리아 산 정상에 세워진 유일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장엄해보였지만, 그 속에는 권모술수가 판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가 자행되는 곳이었다.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다. 가해자들은 율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예복을 빼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고위직과 상석을 탐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주제에 거창하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다(46-47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다.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 술과 과일의 5분의 1, 수입의 1퍼센트를 내야 했고, 12세(혹은 14세)부터 65세까지 1테나리온씩 인두세로 바쳐야 했다. 인두세는 로마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대가였다. 이밖에도 반 세겔의 성전세와 회당에 자발적으로 내는 십일조도 있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내고 있었다. 주후 70년 유대-로마 전쟁에서 패한 대가였다.

열심당원(zealot)이나 단검단원(sicarii) 같은 과격한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굴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였다. 만일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다면, 매국노로 몰려 민중의 몰매를 당할 일이고,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면, 반역자로 고소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기득권자들이 토끼몰이 하듯이 예수님을 죽음의 언덕 끌고다오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구요 정치 마당놀이였다. 그런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본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으로 질문자들의 악한 의도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런데도 나중에 그들은 빌라도법정에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모함하였다(눅 23:2).

성도들은 성(聖)과 속(俗), 즉 하나님의 나라(교회)와 세상의 나라 모두에 속한 시민들이다. 이 두 나라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되며, 일치될 수 없지만, 각각이 성도들의 영적 육적 삶에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들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와 교회의 의무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

수혼법 율무

27-40절은 신학적 논쟁으로써 이생과 내생에 관한 이슈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의 모순성을 지적하기 위해 신명기 25장

5-6절에 나타난 수혼(媾婚, Levirate marriage)법을 들고 나왔다. 수혼법은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맏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고 족보에 올라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당시 집권 여당세력으로써 진보 헬라주의를 표방한 유물론자들이었다. 구전전승의 구속력과 권위를 부정하여 토라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그것들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내세, 부활, 천사, 마귀 등의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 성전치안 맡은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정치집단이었던 공회원(Sanhedrin)들의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사도들을 싫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보수 유대주의자들로서 주전 2세기경 하시딤에서 유래하였다. 하시딤(Hasidim)은 '경건한 자들'이란 뜻으로써 시리아지역을 통치했던 안디옥쿠스 4세(Antiochus Epiphanes, 175-164 BC)가 펼친 유대교에 적대적인 헬라화정책에 대항한 그룹이었다. 당시 안디옥쿠스 4세는 유대교 말살정책을 펼쳐 성경을 금하고, 성전에 제우스신상을 세우는 등 유대인들에게 혹심한 박해를 가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이외도 각종 구전전승을 정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전전통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주장하였고, 영혼불멸, 몸의 부활, 영혼의 존재, 천사와 마귀의 존재, 사후상벌, 성경의 영감설, 죽은 자의 미래, 인간의 평등을 믿었으며, 주로 원리적인 가르침에 치중하여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셨다. 그들의 질문이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못한 이유는 이생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내세의 삶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님은 34-36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 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을 부정하셨다. 부활의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의 몸에 가장 필요했던 본능이 없다는 점이다. 본능은 영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던 것이다. 바울이 말한 육신의 연약함은 이 본능을 두고 한 말이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살아서 현존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영혼이 잠자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활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37절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씀이 38절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아의 신성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41-44절에서 그들이 문제 삼는 메시아의 신성문제를 들고 나오셨다. 예수님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일컬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음”(롬 1:3-4)과 다윗과 만민의 주님이 되심을 알리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主)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역공을 펼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쉽사리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

의 메시아관(觀)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구세주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의 신(神)도 아니었다.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신성(神性)도 아니었다. 메시아는 빼앗긴 가나안땅을 되찾아줄 제2모세 또는 제2다윗과 같은 정치군사적 영웅으로서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예배와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가나안땅은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이요, 한 맺힌 희망(Ha-Tikvah)이었다. 그들이 땅을 소유했던 때보다 빼앗겼던 때의 기간이 3배나 더 길었다. 민족사의 대부분이 떠돌이와 노예의 세월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은 안식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45-47절은 유대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신 내용이다.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외식”이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은 14회가 쓰였지만, 누가복음에서도 5회나 쓰였다.

21절에서 시험하는 자들이 아침하는 말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613개의 계명들과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사랑하고 또 눈물겹도록 철저히 지키지만,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었고(마 23:23),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또 10장 25-37절을 보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말씀하시고, 율법에 묶여 강도당하여 거의 죽게 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매정한 인간이 되지 말고, 너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권면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모르고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적 의미에 묶여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들은 유대인들의 올무를 피하고 잠시 그들의 입에 빗장을 걸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음모까지 꺾지는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골고다언덕에까지 내몰리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41.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4(눅 21:1-9)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기간은 한 주간이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주로 성전에서 보내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뜰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 불린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19:45). 이 광장 한쪽에 담으로 둘러싸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물과 공간이 있었다.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이 신성한 구역이었다. 바깥 담벼락에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다. 미문을 통과하면 여성의 뜰이 나온다. 유대인 여성들과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입장이 허용된 공간으로써 창고로 쓰인 네 개의 모퉁이방과 회랑이 있고,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 헌금함은 미문기둥 앞과 모퉁이방 앞과 회랑에 놓여 있었다. 여성의 뜰은 니카노문(Gate of Nicanor)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뜰로 이어진다. 니카노문은 15개의 돌계단 위에 있었는데, 이 계단을 오르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0-134편에 실린 15개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이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 즉 계명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스라엘의 뜰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었고, 이 뜰에 변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 이 뜰에서 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에는 안식일 오후에 교대하는 당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 법궤가 놓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매년 속죄일(음력 8월 혹은 9월 10일)에 두세 번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37절) 노숙하셨는데, 보름이 가까운 때여서 달빛이 밝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은 주로 여성의 뜰이었을 것이다(19:47, 20:1). 누가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21:38)고 적었다. 오전 기도시간에 맞춰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곳은 여성의 뜰이었다. 그곳에 나팔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9개는 성전세와 제물대신 돈으로 바치는 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보수와 유지비용을 헌금하는 함이었다.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의 목적과 액수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뜰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녀에게 두 렙돈은 자신이 가진 것 전부였다. 그녀의 형편을 아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다.

렙돈(lepton)은 유대인들의 주화로써 로마 돈 고드란트의 2분의 1,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우리 돈 약 500원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은 우리 돈 천 원 정도로써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의 헌금과 함께 직전에 언급하신 율법사들의 외식(20:45-47)에 상반된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부자들의 헌금과 율법사들의 외식은 건강한 상태인 가난한 과부의 믿음과 헌금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의 행동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참과 거짓은 액수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셨다.

예시된 기독교 박해

누가복음 21장 5-36절은 박해시기, 유대-로마전쟁 및 세상종말에 관한 경고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있는 말씀이다. 그 이유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당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당면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거나 신앙적인 권면을 주려는데 있었다. 그래서 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시대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전면에서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시대 즉 저자시대의 사건들과 논쟁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깔려있다. 독자들이 예수님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자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자기시대의 사람들에게 쓴 서신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생긴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범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이 자기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한, 대개는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친, 예언서들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모세오경의 배후에 깔린 유대교적 신학과 민족주의적 역사이해까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저자시대의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란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 내부의 이단침투, 교회가 앓았던 성장통을 말한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 신학과 제도를 바로 세우도록 요구하였고, 교회는 이들 문제에 잘 대응함으로써 주후 30년에 창립된 지 283년만인 주후 313년에 로마로부터 합법종교로 공인받았고,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교회가 설립된 지 한 세대가 지났을 무렵인 주후 60년대에 교회는 이단들의 침투를 받고 있었고, 로마와 예루살렘에서 세계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이 사건들은 기독교계와 유대교계 모두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것들은 로마 시에서 벌어진 네로의 기독교박해(64-68년)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유대-로마전쟁(66-73년)이었다. 네로의 기독교박해는 비록 로마 시에 국한된 사건이었지만, 로마당국차원에서 시행된 최초의 기독교박해였을 뿐 아니라,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의 기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유대-로마전쟁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참화(慘禍)를 안긴 불행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누가문서의 주제가 배척일 만큼 초기교회는 박해에 직면해 있었다. 교회는 로마당국의 박해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누가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박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수십 년 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북부지방 고향 나사렛에서, 중부지방 사마리아에서, 남부지방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 속에 예시되어져 있었다. 누가의 예리한 판단에 따르면, 성령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나란히 이어져왔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평화군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이며, 그들이 밟았던 노정은 예수님이 걸고 쟁취하셨던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노정은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밟아야할 구원의 길이요, 샘플이며, 모범적인 길이었던 것이다.

기로에 선 유대교와 기독교

한편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파와 종파들은 소멸되고 오직 바리새파만이 존속되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은 전쟁직후 로마의 허가를 받아 읍바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 지중해 동쪽 6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야브네'(Japheth) 혹은 '얌니아'(Jamnia)란 소도시에 율법학교를 세워 성전을 대신할 율법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존에 힘을 쏟아부어야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회당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파문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85년경이었다. 그들은 사라진 성전제사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 기도시간에 바치는 18

개의 기도문(쉐모네 에스레이)에 “이단을 공격함”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12번째에 첨가하여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추방시키는 노력을 펼쳤을 뿐이다.

다른 한편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인한 예루살렘교회의 폐쇄와 야브네 회의의 파문결정으로 세력이 약화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야고보 장로가 수장이었다. 이방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에 완전 개종했거나 절반 개종한 하나님 경외 자들이었다. 또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경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20-21절)는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 강 동편의 ‘펠라’와 ‘페트라’로 피신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예루살렘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 교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로마전쟁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인 기독교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 발판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기독교가 이후 300여 년간 로마당국의 박해를 받는 새로운 위기도 제공하였다.

유대-로마전쟁이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회당의 소속으로 남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민족유산을 다수 포기하고 이방인 교회에 합류하든지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남은 유대인들에는 ‘나사렛당’(Notzrim)과 ‘에비온파’(Ebionites)가 있었다. 나사렛당은 유대교의 계명들을 준수했지만, 그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유대-로마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펠라’와 ‘페트

라'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로 낙인찍혔다. 에비온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한 반면 바울의 글들은 무시했으며,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였다. 바울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비온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기에 매우 강했음을 본다. 위기는 발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로였기 때문이다.

42.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5(눅 21:10-38)

기독교 박해

누가복음 21장 5-36절은 박해시기, 유대-로마전쟁 및 세상종말에 관한 경고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있는 말씀이다. 10-19절은 세상의 종말이 있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12절의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는 이 박해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로마당국으로부터도 있게 될 것을 암시한다. 또 16-17절에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박해시대에 고문과 종교 갈등이 때때로 가족배신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13절에서 말씀하셨고, 19절에서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어라”고 권면하셨는데, 이것이 18절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의 뜻이다. 박해로 인해서 육체는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1차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유대교가 세력을 잃기까지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때리고 수없이 감옥에 가두며 돌로 몰매를 때려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던 사람들이었다(고후 11:23절 이하).

로마는 황제숭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투기장에 끌려 나가곤 하였다. 네로의 박해가 그 시발점이었다.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 상가에서 발화된 불이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9일 동안 로마 시의 3분의 1이상을 잿더미로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항간에는 네로가 방화범이란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화살을 피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워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괴수로 지목받았고, 긴급 체포되어 로마의 지하 감방(Mamertine Prison)에 갇혀 있다가 네로가 자살하기 한 해 전 67년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피신하던 중에 “로마의 내 백성들이 널 찾고 있다. 네가 내 백성들을 버리면 난 로마로 돌아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목양하다가 체포되거나 같은 죄인은 바로 죽을 수 없다고 간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해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는 그리스도인들의 광야길, 즉 긴 역사 속에서 자주 있을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역사의 어느 특정시기 즉 칠년 대 환 난에 집중적으로 발생될 사건들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시련의 연속이다. 하물며 어찌 신앙의 길이 순탄만하겠는가?

유대-로마전쟁

예수님은 8절에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때가 왔다고 외치며 난리와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여명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짓 메시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혁명가이다. 그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거사에 참여하라는 선동이다.

예수님은 이런 난리와 소문들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세 번의 난리가 있었다. 20-24절과 32-33절의 말씀은 이 난리들에 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주후 66년에 발발하여 73년에 끝난 제1차 유대-로마전쟁이다. 이 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은 아마 한 세기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의 추억에 젖어 있었던 자들일 것이다.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는 헬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켜 하스몬가왕가를 세웠고, 주전 64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100년간 주권을 지속시킨 영웅이자 혁명가로서 메시아에 준하는 인물이었다. 유대인은 누구나 마카비 혁명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외경 마카비1,2서가 이 혁명에 관한 글이고, 해마다 기념하는 빛의 축제 하눅카에 얽힌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한 번의 성공에 대한 추억은 유대인들을 세 번의 유대-로마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제1차 유대-로마전쟁이 예수님보다 한 세대 후에 일어난 전쟁이었다면, 예수님보다 한 세기 후에 제2차 유대-로마전쟁이 주후 132-135년에 발발하였다. 이 전쟁을 일으킨 혁명가는 ‘별의 아들’(Bar Kochba, 민 24:17)로 불린 코시바의 아들 시몬(Simon ben Kosiba)이었다. 시몬은 엄한 독재자였고, 로마에 대항한 3년 전쟁에 대패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1,813년간 영영히 씻을 수 없는 시련과 실망(Kozeba)을 안긴 인물이 되었다.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초토화 되었다. 58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고, 생포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노예로 헐값에 팔렸으며, 나머지는 이집트에 강제로 이주하였다. 로마황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주피터신전을 세우고, 도시 이름을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로 바꿔 이방인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이때부터 5백여 년간 이슬람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내 출입과 접근을 금지 당하였다. 오직 일 년에 하루, 아브월 9일(Tisha B’Av, 7-8월경)에만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도록 방문을 허용 받았다. 이때 하드리

아누스 황제는 유대라는 속주 이름을 '시리아-팔레스티나'(Palestina) 곧 팔레스타인으로 바꿨고, 유대인들의 종교행위와 절기축제와 성경을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이 전쟁의 참패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자기 땅에서 학살되거나 추방되었고, 산 자들은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다.

또 제2차 유대-로마전쟁 직전인 115-117년 사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로마에 항쟁하였는데, 이를 '키토스' 전쟁(Kitos War)이라 부른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파르티아(이란) 침공을 계기로 이집트, 키프로스, 키레나이카(리비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같은 기간에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파르티아의 통치자들과 함께 그 나라에 침범한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다. 이 반란으로 키프로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였다.

세상의 종말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밧히리라”고 말씀하셨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힌 역사는 매우 길다. 주전 586년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배당한 때로부터 1948년 건국 때까지, 주권을 회복했던 주전 164-64년까지 100년을 빼 나머지 기간이 실상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무려 2434년간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라면 1948년까지 그 기간이 1878년간이 된다. 그렇다고 여기가 끝은 아니다. 일부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메시아왕국이 시작되면, 613개의 계명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한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 범법 절차들에 관한 계명들도 지키지 않는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의 나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직 고국에 다 복귀하지 못하고 여

전히 유배(디아스포라)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5-33절은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들린다. 27절에서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29-31절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절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이후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32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반세기가 지난 후였다. 32절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에서 “이 세대”는 예수님시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세대”가 과거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32절의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대로 앞에서 언급하신 일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성취됐어야 한다. 만약 그랬더라면 또 그렇게 이해되었더라면,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이 벌써 도래했을 것이므로 누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지속되었고,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기록의 필요를 요구받고 있었으며, 재림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누가는 왜 32절의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였는가? “이 세대”란 무엇인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직면한 세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 지속적인 역사적 현재 세대를 말하고자한 것은 아닌가? 교회시대를 말하고자한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제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민중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된다. 중요한 것은 34-36절의 말씀이다. “그 날” 곧 주의 재림의 날이 “덧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항

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만이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잘 마칠 수 있는 보증 수표이다.

43.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6(눅 22:1-6)

가롯 유다의 배반

유월절은 유대인의 광복절이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니산월 15일부터 22일 8일째 날까지 지킨다. 이 날은 춘분이 지나고 오는 첫 보름날이다. 예수님이 잡수신 유월절 식사는 우리 시간으로 주후 30년 4월 6일 목요일 밤, 유대인 시간으로는 7일 금요일이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지 일주일만인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모임을 가지셨고, 그 밤에 체포되시어 심문 받으셨으며, 같은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되어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드시고 동굴무덤에 안치되어 안식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이 금요일 하루에 다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의 배신음모도 불과 며칠 사이에 긴박하게 이뤄졌다.

기득권층은 메시아의 출현을 두려워했다.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불륜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도 하고 미워도 하여 살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파견된 정보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추적하고 메시아인가를 여러 차례 시험하며 말의 울무를 놓아 고소거리를 찾아 보고하고 호시탐탐 체포 기회를 노렸던 것에서 보듯이, 기득권층은 선지자들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손에 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빼앗긴 가나안땅을 되찾아 주고, 빚문제를 해결해 주며, 다윗 왕국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될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다. 가롯 유다의 환멸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마귀라 칭하셨고(요 6:70), 요한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 13:2)고 적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가롯 유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일 수 있고, 세 가지 시험은 유대인들의 요구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정치군사적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신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의 피를 부르기 때문이었다. 피를 흘리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지, 영원한 안식과 궁극적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민중의 영원한 반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민중은 처음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갖고 싶은 것만 갖고자 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현실문제에 어두운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이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설픈 혁명가였을 바라바를 놓으라고 외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롯 유다의 환멸

가롯 유다의 환멸은 유대민중의 환멸을 상징한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유대민중의 배신을 상징한다. 예수님께 얻고자 했던 세속적 욕망을 얻지 못한 우매한 민중의 배척을 상징한다. 예수

님께 걸었던 희망(Ha-Tikvah)이 좌절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든 환멸은 증오로 돌변하여 배신으로 표출되었다. 이 환멸과 증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득권층의 욕망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졌다. 가롯 유다의 배신과 거래가 그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거래는 마치 급전이 필요한 주인이 자기 노예를 헐값에 팔아넘기듯이 120데나리온에 성사되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것,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전쟁과 혁명이 아닌 평화와 개혁, 분노가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교훈하시려고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채 민중의 분노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려한다는 것을 알고 고뇌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정을 쫓던 여인에게 배신과 환멸을 느껴 헤어지려 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내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이다. 가롯 유다의 배신감과 환멸은 유대민중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소개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가롯 유다의 입을 통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하스 페르츠처럼 따져 물었을지도 모른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현실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고통이 민중의 고통이란 것을 아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불의와 절망에 상처 입은 민중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욕망의 신을 섬겼던 민중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고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기적만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자가 없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기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셨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일시적이고 허망하며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궁극적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세속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머지않아 예수님께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의 은혜의 강물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롯 유다의 고향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복음서 저자들은 유대교의 병든 상태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펜을 들었다. 그들은 율법과 복음, 거짓과 참, 형식과 본질, 유대교 메시아와 기독교 메시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선택과 삶을 권면하려하였다.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일 수 있다. 가롯 유다는 병든 상태를 예수님은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샘플일 수 있다. 가롯 유다는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영적으로 병든 유대인들의 대표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배척당함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시다.

가롯 유다로 상징되는 병든 사람들은 욕망과 소유의 신에게 사로잡혀 족쇄에 묶인 채 성공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란 폐쇄적 동굴 깊숙한 곳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효과 있고 현실에 쓸모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의 실상은 참이 아니라 거짓 것이며,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며,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건강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바라며, 전쟁과 혁명보다는 평화와 개혁을 꾀하고, 분노의 신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실체에 접근하며 당장의 효과와 쓸모보다는 사랑과 진리로 궁극에 다가가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악은 아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욕망이란 주술에 걸려들게 만들고 마약에 취하듯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데 있다.

유대민족사의 그늘과 기독교사의 빛은 가롯 유다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독립투쟁, 배타주의, 선민사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는 자들의 가면이었을 뿐,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동포애도 애국심도 없는 독침이었다. 제1-2차 유대-로마전쟁 당시 유대혁명세력은 로마군에 포위된 상황에서조차 주도권을 빼기 위한 피의 살육을 멈추지 않았고, 불복종하는 자를 즉결 처형하였다. 독립전쟁이란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감내했어야 했는지는 전쟁사만이 쓸쓸히 증언할 뿐이다.

유대민족사는 우리민족사를 독립과 친일의 잣대만으로 재는 민족민주자주 운운하는 경직된 역사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강변한다. 우리는 국민을 볼모잡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병든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국민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세계사 속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잔혹사들이 권력을 쥐기 위한 동족살육

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민족분열과 멸망, 1천2백만 학살, 노예 살이, 강제이주, 2천5백년의 떠돌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피맺힌 한을 누가 안겼는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권력을 쟁취하려한 자들이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유대인들의 비극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이다.

44. 예루살렘으로의 오름과 배척7(눅 22:7-23)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란 유월절 예비일을 지칭한 말이다. 주후 30년은 유월절 예비일이 목요일이었다. 유월절 식사는 18단계로 이뤄지는 긴 종교 식사이다. 예비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이는 성전에서 저녁희생이 드려졌던 기도시간이다. 양의 도살(shechitah)은 랍비나 제사장처럼 경건하고 율법에 밝아 도살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shochet)이 대행한다. 예수님은 금요일 밤(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2천 년 전 보통 유대인들의 집 다락은 식사, 잠자리, 손님접대에 사용되었던 2층(복층)을 말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 모인 곳이 마가의 집 2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는 마가와 친분이 있었지만 마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19-20절은 주의 만찬 제정사이다. 이 제정사를 소개한 사람이 네 명인데, 마태와 마가의 것은 로마교회의 것으로 바울과 누가의 것은 안디옥교회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바울과 누가는 둘 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며 50-60년대를 함께 사역한 선교사들이다.

네 개의 제정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 실린 바울의 것이 50년대 중반의 것으로써 현장성이 가장 뛰어나고 오래된 것이다. 그 다음이 누가의 것이고, 마태와 마가의 것은 현장성보다는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현장성이 높을수록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이 강조된다. 바울의 것에 2회, 누가의 것에 1회 있고, 마가와 마태의 것에는 언급이

없다. 마태와 마가에 반복령이 없는 이유는 70-80년대에 이미 주의 만찬이 모든 교회들에서 매주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들은 “새 언약”의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의 것들은 “새”자(字)가 빠지고 “언약의 피”만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유대교가 극도로 약해진 상황이었고, 기독교는 이미 새로운 언약공동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은 빵을 먹고 포도주잔을 들기 전에 “저녁 먹은 후에” 또는 “식후에”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마태와 마가의 것들에서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애찬에서 소량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의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녁 먹은 후에” 또는 “식후에”를 생략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현장성이 낮을수록 신학적 해설이 많아진다. 바울과 누가가 “너희를 위하여”라고만 한 반면에 마가의 경우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마태의 경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진보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서 유대민족으로, 유대민족에서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째로 배타적 민족주의 유대-기독교에서 온건적 포용주의 헬라-기독교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점차 넓어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둘째로 땅에서 하늘어로, 육(肉)에서 영(靈)어로, 유한에서 영원어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옛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1-11절에 언약체결 장면이 나온다. 이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땅이다. 1-3절은 예비단계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토라율법을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장면이다.

4-8절은 본 단계로써 엄숙한 언약식의 장면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언약, 곧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하고, 언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게 하였으며, 소를 잡아 바친 화목제의 살코기들은 언약식 마지막 단계인 언약의 식사 때에 사용하였다.

언약식의 중요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다음, 언약서인 토라를 회중에게 읽어준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11절은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9-10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 간에 나누는 언약의 식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고대근동에서는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이 시내산 언약을 구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 19:5-6). 우리는 이것을 ‘선민’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토라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는 짐승의 피로써 맺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땅을 조건으로 맺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 땅은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지상의 가나안 땅이고, 구원개념은 이 땅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땅의 지속적인 유지여부는 언약의 내용인 토라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죄와 허물, 특히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인 이상, 그들의 땅은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소유했던 때보다 빼앗겼던 때의 기간이 3배나 더 길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렘 31:31-33).

새 언약의 피

19-20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늘 가나안땅이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옛 언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소의 피를 계약 당사자인 회중에게 뿌림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강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심령에 뿌림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히브리서가 새 언약을 일컬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식 때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붓는 예수님의 피로 된다. 이것이 신약(新約) 곧 새 선민언약이다.

주의 만찬은 새 선민언약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떡하신 죽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10)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97년경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일곱 편의 서신을 썼다. 그는 에베소서신에서 주의 만찬을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불렀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주의 만찬은 기독교예배를 영적예배로 만들뿐 아니라, 유대교예배와 차별시킨다. 주의 만찬 제정사들은 “떡을 가져(봉헌), 감사기도 하시고(주의 만찬기도), 떼어(분병례) ... 주시며(성찬배수 / 聖餐拜受), 이르시되(교훈)”로 되어 있다. 이것들과 신약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초기 기독교예배는 제1부 말씀의 예배로써 성경봉독(바울서신의 봉독), 집례자의 설교, 기도, 찬송시(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엡 5:16, 골 3:16, 고전 14:26)가 있었고, 제2부 주의 만찬예배로써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고전 16:20-24), 봉헌(“떡을 가져”), 주의 만찬설교(“이르시되”), 주의 만찬기도(“축사하시고,” 고전 10:16), 주기도(마 6:9-13), 주의 만찬에의 초대(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분병례와 참여(“떼어 주시며”), 그리

고 축도(고전 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순서로 이어지는 예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구약에서 모형을 갖는 실체적 예배이다.

45.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8(눅 22:24-53)

제자직에 관한 교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9장 46-48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된바가 있다. 9장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9:48)고 교훈하셨다. 22장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한다”(22:26)고 하셨다. 9장은 작은 자가 큰 자이니,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이었고, 22장은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다. 누가는 이 제자직에 관한 교훈을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시작하기 직전에 두 차례와 오름의 막바지에 한 차례 소개하였다.

복음서에서 제자직에 관한 교훈은 수난예고 다음에 나온다. 누가복음의 경우 제1-2차 수난예고가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시작하기 직전인 9장 22-25절과 46-48절에, 제3차 수난예고가 오름의 막바지인 18장 31-33절에 배치되어 있다. 제1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제자직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9:23) 따라야한다는 것이었고, 제2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제자직의 교훈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이었으며, 제3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제자직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18:29)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18:30)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22장 24-3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

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복종하고 섬긴 후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3차 수난예고를 언급한 18장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부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병든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예수님의 수난예고가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고의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에 중독된 문화와 세속적 부와 명예와 권세로 얽힌 월계관을 쓰고 힘차게 승리의 광과르 속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가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손에 넣고자 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영안이 열려 하나님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의 무지와 배반까지도 참아 내셨다.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영원하고 참된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교훈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누릴 영광

누가복음 22장 24-27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신 후, 28-30절에서 예수님은 고난에 동참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메시아왕국에서 메시아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은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으로써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과 동일한 보상이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계시록 2-3장에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당시 교회들은 박해의 풍랑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을 각오해야 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채찍과 몽둥이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다. 예수님은 큰 환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는 말씀으로 보상을 약속하셨다.

이것들은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말들이다. 잠시 받는 환난을 견디고 참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위로한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족히 비교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말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

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에서도 같은 위로의 말을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왕권은 영적인 것으로서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의 왕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태평천하(太平天下)를 뜻한다.

제자직수행의 능력

누가복음 22장 31-53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기도는 제자직수행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셨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가지고 놀 것이기 때문이다. 33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단단한 각오를 밝힌 베드로조차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말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5-38절의 말씀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용사처럼 단단히 무장하라는 권면이다. 무장의 내용으로 전대도 차고, 배낭도 매고, 단검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지만(36절), 그 뜻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하라”(40절)는 당부였다. 상황과악을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단검 두 자루를 내놓았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죽하다”고 하셨다. 단검 두 자루로 무슨 혁명을 이룰 수 있겠는가?

39-53절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신 장면이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늦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노숙 장소인 감람산에 오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40절)고 당부하시고 자신을 위해 혼신의 기도를 바치셨다. 누가는 41-44절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화된 기도생활을 강조한다. 누가는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적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헬라어로 ‘에토스’(ethos)이다. 이 말은 규칙적인 행동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에 철학적 수사학적 의미를 첨가하였다. 그는 그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자의 자연적 성향, 기질, 도덕적 성격 등을 에토스라 불렀다.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1:9), “율법의 관례대로”(2:27), “주의 율법을 따라”(2:39), “절기의 관례를 따라”(2:42), “때를 따라”(12:42), “계명을 따라”(23:56)와 같은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의 에토스 즉 예수님의 습관, 성향, 기질, 성격과 같은 성품을 통해서 또 자세, 옷차림, 목소리, 시선, 태도, 카리스마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성인 ‘파토스’(pathos)를 자극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는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습관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생활

을 강조한다. 예수님이 사탄의 끈질긴 유혹 또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세속적 요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도에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지금도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

46.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9(눅 22:54-71)

체포와 심문과 희롱

누가복음 22장 54-71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문받으신 일과 베드로의 배교에 관한 기사이다. 이 내용을 당시의 상황에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다. 유월절 식사는 18단계로써 찬양과 권면과 문답이 있고, 식사를 겸한 경건한 예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만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까운 겐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는데, 이 날은 춘분이 지난 첫 보름날 밤이고 달이 밝게 뜬 날이어서 햇불이나 등불이 없이도 이동에 지장이 없었다.

예수님은 이곳 동산에서 힘겨운 기도를 하였고, 자기와의 싸움에 돌입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내면의 큰 고통을 눈치 채지 못했고, 피곤한 육신을 가누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 한 밤중이 되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겐세마네 동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했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는 그날 밤의 거사를 도모하느라 이미 모닥불이 피어있었고, 쌀쌀한 밤 기온 탓인지 사람들은 일이 어찌 되어 가는가를 보려고 모닥불 곁에 모여들었다. 그들 사이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초라한 행색의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숙들로부터 세 번이나 심문을 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때마다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고 부인하였다.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고 하였다.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였다(61-62절). 그리고 그 때 동이 터오기 시작하였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문을 받으신지 벌써 네다섯 시간이나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새벽이 되고서야 비로소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을 소집할 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상문제가 더욱 신속히 처리되었다. 로마제국 당시 고관대작의 집들은 대개가 이층집이고, 집 가운데에 뜰이 있었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뜰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층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래 뜰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이층 난간 쪽에 세워놓고 심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제사장들의 다그침에 담대하게 답변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교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시고 아래 뜰에 있는 베드로를 연민의 눈빛으로 잠시 내려다보셨을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닭이 울었다. 그리고 동녘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닭이 울다

서울대학교 미대 김병중 교수는 자신이 그린 <닭이 울다>(1988)란 그림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 그리고 환회의 시간이다.” 닭이 우는 시간이 통회와 고통의 시간이라 말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병중 교수가 왜 닭이 우는 시간을 환회의 시간이라고 했는가?

배교와 닭의 울음과 여명은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 생각나게 한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보면, “멀리서 닭이 울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본부 유물전시관에는 다 닳은 성모상이 새겨진 작은 성화판이 전시되어있다고 한다. 1637년 일본 큐슈우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기독교금지에 반항하여, 16세의 소년 아마쿠사 시로오(天草四郎)를 대장으로 삼아 난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때는 3대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미쓰 시대였는데, 시마바라 난을 진압한 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색출된 기독교인들을 ‘구멍 매달기’란 방법의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토록 유도하였다.

<침묵>에 로드리고란 이름의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담당 형사는 지독하게 믿음이 강한 이 신부를 배교시키려고 이미 몇 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성화를 밟고 배교한 농민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거적에 말고, 양쪽 귓바퀴에 구멍을 뚫어 한 방울씩 피가 흐르게 한 뒤 좁은 구멍에 거꾸로 매달아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가게 한다. 결국 신부는 자기로 인해서 농민신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성화판을 발로 밟고 지나간다. 엔도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 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밝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닭이 울고 동이 튼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닭의 울음

은 곧 동터오는 새날에 대한 전령의 외침이요, 그 외침에 눈을 뜨고 통회하는 자는 새날을 맞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이 곧 이 뜻일 것이다. 수탉의 외침에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자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온몸과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병중 교수가 자신의 그림 <닭이 울다>에 붙인 해설,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다.”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뿐 아니라, 닭이 울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통회와 고통과 환희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는 62절을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통회했을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아닌가? 그러나 그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당혹스럽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심문을 받고서도 당당히 맞서셨지만, 베드로는 하속들의 심문에 맥없이 무너져버렸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도 오르신 반면,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에도 올랐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예수님께 세 차례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수난에 대해서 들은바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는가? 베드로가 통회와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였던 것이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했으며,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다. 그것도 살인자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득권층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치밀하게 손익과 비용편익을 분석해 본 후에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기로 작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 유다가 뒤늦게 후회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기엔 너무 멀리에 가 있었다. 또 사탄은 손아귀에 쥐고 “밀 까부르듯”(31절) 이용했던 가롯 유다가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롯 유다의 비극은 유대인들의 비극이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유대민중의 배신을 상징한다. 예수님께 얻고자 했던 세속적 욕망을 얻지 못한 우매한 민중의 배척을 상징한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지상 최초의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교회와 지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가이사랴 교회를 창립하였고,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와 바울의 선교교회들을 승인하였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아니었지만, 열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였다. 통회와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이 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되어 갇혔다가 주후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압박 강가에 혼자 남아 밤이 맞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얼마나 힘쓰고 땀을 흘렸는지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져 있었다. 동틀 무렵에 하나님은 그에게 속임수와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온 지난날의 ‘야곱’이란 이름대신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혹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다. 통회와 고통으로 밤을 지새운 대가로 야곱은 환회의 아침을 맞았다.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는 뜻으로 ‘브니엘’이라 지었다. 베드로가 통회 후에 부활의 새아침을 맞은 것도 이와 같다.

47.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배척10(눅 23:1-49)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유대총독부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112km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지방의 수도 디벨료에 머물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헤롯궁전과 안토니우스 성곽에 로마군 병영과 총독 관저가 있었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는 민란이 일기 쉬운 유월절에 정치적 책임자로서 혹은 행사참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직후 밤새도록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다시 빌라도 총독과 군중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다. 유월절 날 아침 8시경에는 살점을 도려내는 채찍을 맨살에 맞으셨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형틀에 쓰일 가로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를 오르셨으며, 기도시간인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기도시간인 정오부터 저녁희생을 드리는 오후 3시경까지 어둠이 지속되었으며, 예수님은 저녁희생제물이 드러지는 바로 그 시각에 운명하심으로써 인류의 화목제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다.

1968년 예루살렘의 기밧트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하난 벤하콜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18cm 길이의 굵은 쇠못이 박혀있는 발뒤꿈치 뼈가 있었다. 쇠못은 나무에 박힌 후 빠지지 않게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십자가는 올리브나무였다. 그리고 쇠못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뭇조각이 죄수

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큰 나무망치에 맞아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강이뼈도 있었다. 발견된 손과 손목 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 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2천 년 전에 시행된 십자가 처형식이 어떠한가를 재구성해볼 수 있게 되었다.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기둥의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벌거숭이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죄수의 등에다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매달린 채찍으로 내리치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진다. 체벌이 끝나면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도착하면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나무 위에 죄수의 옆구리가 나무 바닥에 닿게 놓인다. 그리고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다 쇠못을 박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쇠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90도 비틀고 무릎을 꿇려서 바로 놓인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쪽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산소 부족과 호흡곤란으로 큰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땀별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그러면 횡격막이 숨통을 조여 죽게 된다. 예수님은 못 박히신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무죄한 자의 십자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서 누가 주목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기도하

셨다는 것이다. 누가는 다른 저자들과 달리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사실을 세 번 강조하였다. 4절에서 빌라도는 첫 번째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고, 14-15절에서 두 번째로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22절에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고소인들에게 강하게 항변하였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마태와 마가가 “죄패”(마 27:37, 막 15:26)라고 적었지만, 누가는 ‘죄’자를 빼버리고 그냥 “패”(38절)라고만 적었다. 또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백부장의 신앙고백을 마태와 마가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막 15:39)라고 한 것을 누가는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47절)라고 적었다.

이것뿐 아니라, 누가는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놓으려한 점을 강조하였다. 16절에서 빌라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고소인들에게 선언했고, 20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놓고자” 하였으며, 22절에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고소인들에게 선언하였다. 또 누가는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함께 못 박힌 죄수의 고백까지 실었다.

누가가 예수님의 무죄에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당시에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와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바울이 곤경에 처한 것은 그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간교한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으며, 빌라도와 같은 로마총독들과 백부장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고, 선언했으며, 석방하려고 했고, 기독교신앙에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때문이다.

22절에서 누가는 “세 번째”란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삼심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세 번째”란 말이 8번 정도 쓰였는데, 대부분 ‘마지막’을 뜻할 때 쓰였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초대교회의 박해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Bithynia)에 111년 총독으로 부임한 소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차례 배교할 기회를 준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하면 처형토록 하였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신앙고백과 세 번의 침수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받는 자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첫 번째 침수를,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두 번째 침수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세 번째 침례를 받았다. 이 세 차례의 신앙선언과 침수세례는 박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직면했던 세 번의 배교선언과 무관하지 않았다.

용서와 기도로 승화된 십자가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1:35, 4:3, 8:28), “구세주”(1:47, 2:11), “하나님의 거룩한 자”(4:34), “의인”(23:47),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인자”(21:27, 22:69),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9:51, 24:6-7),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 많은 배척과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이셨다. 그분은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셨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의 음성을 체험하셨으며(3:21-22),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변모하시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하셨다

(9:28-29). 또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4:1), 병을 고치신 후에 성찰의 기도(5:16),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9:18),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모범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기도(22:41-46)를 드리셨다.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겸손의 기도(18:9-14)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강도를 위한 축원기도, 임종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드리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은 일곱 마디이다. 마태와 마가는 각각 예수님의 절망적인 외침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막 15:34)를 기록에 남겼고 누가와 요한이 각각 세 마디씩을 기록으로 남겼다.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물리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말씀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요 19:26), “내가 목마르다”(요 19:28), “다 이루었다”(요 19:30)를 기록으로 남겼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삶을 당시의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삶의 본보기로 제시하였다. 그것들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가 그것들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용서와 기도로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과 구원의 십자가로 승화시키셨다. 예수님께서서 운명하시기 직전 정오 기도시간부터 저녁 희생을 바치는 기도시간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지속되고(44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45절) 것은 성전의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이 허물어진 사건을 말한

다. 이로써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히 4:16),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히 10:19).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찢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48. 하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과 영광(눅 23:50-24:53)

부활사건과 여성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지켜본 책임자 백부장과 구경꾼들은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23:47-48),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23:49). 마가복음 15장 40-41절을 보면,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으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이들 여성들이었다. 복음서에서 “여자들”이란 복수명사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사건이다. 유대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기독교 창립 역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들 여성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이었다(8:2-3, 막 15:40-41).

둘째, 이들 여성들은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23:49, 막 15:41).

셋째, 이들 여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다(23:49, 막 15:40).

넷째, 이들 여성들은 예수님이 묻힌 동굴 무덤을 확인한 사람

들이었다. 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었다(23:55).

다섯째, 이들 여성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동굴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었다(24:1).

여섯째, 이들 여성들은 가장 먼저 부활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다(24:5, 마 28:5).

일곱째, 이들 여성들은 가장 먼저 부활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들이었다(눅 24:10, 마 28:8).

여덟째, 이들 여성들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마 28:9).

아홉째, 이들 여성들은 초대교회의 창립 구성원들이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행 1:14).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여성이며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었다(8:2).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는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았던 여인들로서(8:2-3) 다른 무명의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이 밖의 여인들에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막 15:40-41)가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남성들의 마음이 부와 명예와 권세욕에 차있었던 반면, 이들 여성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남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디 믿었고,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야 믿었지만, 이들 여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사건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을 헐어버리신 하나님의 새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부활사건과 남성

누가복음 23장 50-53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라 하는 사람이” 소개되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는 겁 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장사한 자였다. 이 요셉과 여성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은 부끄럽고 무지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첫째, 남자들은 예수님의 수난예고에 실망하여 말리고(막 8:33) 항변했으며(마 16:22) 근심한(마 17:23) 사람들이었다.

둘째, 남자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욕에 사로잡혀 “누가 크냐?”를 놓고 길에서 토론(막 9:33)하고 쟁론하였으며(막 9:34) 변론하고(눅 9:46) 다투던(눅 22:24) 사람들이었다.

셋째, 남자들은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막 10:35-40)를 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넷째, 남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마 26:40, 막 14:37).

다섯째, 남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다(마 26:31,56, 막 14:27,50).

여섯째, 남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나(마 10:4, 막 3:19, 눅 6:16) 부인한 사람들이었다(마 26:75, 막 14:72, 눅 22:61).

일곱째, 남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해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막 16:13).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장 9-11절을 보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서 부활한 사실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다만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자였다.

여덟째, 남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에서의 불행한 사건에 실의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슬픔에 젖어

낙향했던 사람들이었다. 13-35절을 보면, 글로바와 다른 한 남성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에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다.

아홉째, 이들 남자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남자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

열째, 남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던”(요 20:19) 겁쟁이들이었다.

열한 번째, 남자들은 예수님의 못 자국을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요 20:20,25,26). 36-49절을 보면, 이들 남자들은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에도 마음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었다.

부활사건과 증인

부활사건을 접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다소 의구심이 든다.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에서 보듯이(왕상 17:17-24)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어서 나홀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보듯이(요 11장)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제자들이 다만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했을 뿐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의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미 부활을 믿고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하고 더디 믿었던 남성들은 유대교인들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과 정황증거들이 부활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고 더디 믿고 의심하는 자들, “눈이 가리어져서”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과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일 수도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신하거나 더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26-35절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남자에게 성경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또 제자들에게 친히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셨다(요 20:27). 36-4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되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소식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열 한번이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동굴무덤이 빈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 16명이 4명씩 일 개조가 되어 4 교대로 동굴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장정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커다란 원판의 돌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교회는 출범직후부터 주일예배, 주의 만찬, 침례를 시행해왔다. 안식일 율법을 엄하게 지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 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순교를 불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태도

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증거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순교를 불사한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유대인들로부터 서른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고, 수없이 투옥 당하였으며, 심지어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같은 박해상황에서 예수님부활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 각기 여러 나라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 평화의 복음을 위한 누가복음의 오름의 모형론(눅 9장)

예수님의 공적 삶의 재현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배가 제1부 말씀예배와 제2부 성만찬예배로 구성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펼치셨던 말씀사역과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펼치셨던 십자가사역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재현해야 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과거만의 일도 아니고, 현재만의 일도 아니며, 미래만의 일도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일이므로 역사 속에서 그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 누가의 역사적 통찰이었다. 그렇다고 누가가 예수님의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보거나 동등하게 본 것은 아니다. 예수님 이전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구원사건들은 그 자체가 실체이거나 원형이 아닌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날 실체와 원형에 대한 예시(豫示)와 예표(豫表)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의 재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가의 신학적 통찰이었다.

예수님의 사건들을 대칭의 축 또는 중심의 축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의 사건들은 실체와 원형이 되고, 구약성도들의 사건들은 장차 올 더 좋은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로서 예수님의 사건들의 예시와 예표적인 사건들이 되며, 신약성도들의 사건들은 모델과 샘플인 예수님의 사건들의 따름과 실천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어' (Followers),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디사이플' (Disciples)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건들은 구약시대의 사건들과 신약 시대의 사건들을 이어주는 역사의 중심축, 또는 BC와 AD의 분수령이 된다. 그런데 누가는 구약성도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신약성도들의 삶을 이어주는 줄,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시켜주는 생명줄이 있는데, 이 줄이 성령님이신 것을 파악하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학자였다. 또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강조한 선교사였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광야사막에서 히브리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형으로 나타나 약속의 땅인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는 주후 30년 오순절사건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첫 번째 유월절 다음날 히브리인들은 집단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하고, 광야사막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지상 가나안땅으로 이동하는 '오름의 순례'를 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이교문화들 속에서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오름의 순례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수님의 오름의 시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 날이었다. 보름날 밤에 탈출을 준비했던 유대인들은 춘분이 지난 첫 보름날 밤의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리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50일째 되

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식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킨다. 이후 히브리인들은 약속의 땅인 지상 가나안으로의 오름의 순례를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은 하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에 대한 실제적 모델로써 그 모형을 히브리인들의 구원사건에 두고 있다. 누가복음 1-9장은 전반부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을 위한 준비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1-3장은 출생이후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록이고, 4장부터 9장까지는 대부분 이스라엘 북부지역 갈릴리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이 지역에서의 활동은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시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역사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6-7장에서 평화군을 조직하여 강령과 임무를 선포하셨으며, 8장에서 훈련하신 후, 9장 1-6절에서 실습을 위해 파송하셨다. 여기서 파송 받은 제자들은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름의 행진을 시작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다.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며, 5장의 빈 배들에서 보듯이, 외롭고 흔들리며, 배고프고 병들어 지친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만선(滿船)의 기쁨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9장에서 제자들의 파송(1-6절)과 예수님의 오름의 출범(51절)을 함께 설명한 것은 제자들의 파송이 예수님의 오름을 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려는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제2출애굽 즉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참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성전과 유대교율법에 포박된 하나님 신앙을 인류에게 되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포박(捕縛)한 바벨론이었고 로마였으며, 하나님 신앙을 가두고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바다(死海)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

상에 충만”(사 11:9)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 2:14)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오름의 시점을 유월절 직전으로 결정하셨다. 9장에 실린 오병이어의 표적(10-17절), 베드로의 신앙고백(18-27절), 별세(31절)와 수난(44절)과 배척(53절)에 대한 예고, 제자적(46-50절)과 오름의 결심(51절)에 관한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신분의 공개와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십자가수난의 시점들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 사람들이 앓았던 “푸른 잔디”(막 6:39. 마 14:19와 요 6:10참고)가 유월절이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철이고, 봄이 오는 첫 길목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의 순례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는 과정의 기록이다. 이 오름(aliyah)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 분량 가운데 42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오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길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한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의 광야사막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던 것과 같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안식을 누리는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이 이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름이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에 대한 실제적 모델로써 그 모형을 히브리인들의 구원사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사건의 절정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

째 되는 오순절 날에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하였다. 히브리인들의 대 구원사건이 유월절 날 이뤄지고, 그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짐승의 피로써 맺은 언약을 통해서 13세 이상의 남성 히브리인들로만 구성된 옛 언약공동체가 출범하였지만, 인류의 대 구원사건이 유월절 날 이뤄지고, 그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맺은 언약을 통해서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가입하는 새 언약 공동체가 출범하였다.

누가에 의하면, 이 공동체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의 순례를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 곧 광야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5장의 빈 배들이 상징하듯이,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고, 평화와 희년과 만선의 기쁨을 전하며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는 평화군대이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과송설교와 57-62절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관한 말씀은 희년선포의 긴박성, 복음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긴박성과 절박성에 추가된 말씀은 8장 19-21절에 언급된 참 가족의 의미를 재고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재물, 명예, 권세, 인기, 영광, 심지어는 혈육의 가치와 의미조차 재고하라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오름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재물, 명예, 권세, 인기, 영광을 좇음이 아니라, 궁극에로의 오름, 영원하고 참된 것에로의 오름을 말한다. 이 오름의 특징은 누가복음 5장의 빈 배들이 상징하듯이,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고, 평화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만선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일이다. 누가는 이 일의 성공여부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강령

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겸손의 기도(18:9-14)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로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